

Dusk

2026

Echae
2025

Dusk

2026

Echae
2025

Dusk

Echae. Dusk: 2026. 출판장소: 출판사, 2025.

ISBN 숫자

알림

- 본 소설의 내용은 모두 가상이며, 현실의 모든 사건, 인물, 단체, 장소 등과 관련이 없습니다.
- 본 소설은 2024년 8월부터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정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넣을 가장 중요한 대사 한 줄.

Contents

Prelude	3
I.	5
II.	22
III.	36
IV. 천망대	48
Elevation	57
V.	59
VI.	72
VII.	92
VIII.	114
IX. 칼의 무게	140
Discovery	145
X.	147
XI.	168

나는 손목시계를 눈 앞에 들어 보았다. 9월 22일, 1시 50분. 창 밖으로 새벽의 우수리스크 평야가 지나간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승합차가 크게 한번 덜컹거렸다. 운전수의 고개가 따라서 흔들렸다. 그가 밝게 말했다.

“Oh, sorry about that!”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라면 아무 반응이라도 해 주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미하일을 돌아봤다. 미하일은 미동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고 뻗뻗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돌려 반대편의 칼리를 보았다. 그는 나를 의식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었다. 나는 별 반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앞을 보았다.

차가 수목지대로 들어서자, 조수석에 앉은 안나가 허리를 숙여 자기 발치에서 무언가를 더듬기 시작했다. 안나의 긴 금발은 오늘따라 칙칙해 보였다. 안나가 답지않게 문 손잡이에 머리를 박았다. 그는 머리를 마구 쓸었다.

“Hehe, you should be careful...” (하하, 조심해야지...)

운전수는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일부러 침언하는 것 같았다. 안나는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는 탄창이 빠진 AK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걸 내게 건넸다. 나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다. 나는 총을 받아 뒷자리에 앉은 토마스에게 전달했다. 다음 것은 토마스의 옆에 앉은 페터에게....

나는 내 손에 들린 고풍스러운 소총을 내려다 보았다. 창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은 어두웠다. 손잡이의 나무는 삭아 있었지만 만져 보니 매끈했다. 안나가 입을 열었다.

“This, is a civillian smooth bore rifle. The same one his bodyguards use. Not an AK, but basically same as one.” (이건, 민간용 활강 소총이에

요. 그의 경호원이 쓰는 것과 똑같은. AK는 아니지만 사실 다 똑같은거예요.)

미하일은 총을 받고도 얼어 붙어만 있었다. 칼리는 조심스럽게 장전손잡이를 당겼다 놓아 보았다. 총이라. 나는 정말 또 한 번 사람을 죽이러 가는구나. 영문 모를 죄책감에도, 나는 미로노프를 죽일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내 총을 한 번 더 만져 보았다. 장전 손잡이, 안전장치, 탄창멈치, 개머리판.... 투박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랫배가 강하게 아파왔다. 나는 숨을 꼭 머금었다. 칼리가 떨리는 내 손목에 자기 손을 슬며시 올려놓고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까 내가 한 말은, 분명 틀린 말은 아냐. 그치만 지금은 잊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잘 할 거라고 했잖아....”

차가 수목지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섰다. 큰길로는 얼마 안 간다. 곧 도착한다는 뜻이었다. 안나는 우리에게 탄창을 두 개씩 건넸다. 나는 냇이 나간 채 그걸 받아 하나는 체스트 리그의 가운데 주머니에 넣었다. 다른 하나는 총에 꽂았다. 걸쇠가 걸리는 느낌이 팔꿈치로 전해졌다. 나는 소총을 가랑이 사이에 내려놓고 창 밖을 보았다. 시선에는 커다란 한숨이 따랐다.

Prelude

I.

나는 늦은 오후 붉게 물들고 있는 하늘 아래 동네 골목 전신주 옆에 앉아 아스팔트 바닥을 바라보고 있다. 내 작은 발등을 다 떨어진 삼선 슬리퍼가 가리고 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아스팔트에서 떨어져 나온 자갈 덩어리가 흩어져 굴러간다. 발등이 간지럽다. 나는 고개를 들어 돌멩이 중 하나를 눈으로 쫓는다. 돌멩이는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따라 부딪히고 튀어오르며 울퉁불퉁한 표면에 매달리려고 한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돌멩이를 끌고 갈 뿐이다. 돌멩이는 아무 저항도 비치지 못하고 건너편 전신주의 발치에 나 있는 퀴퀴한 하수구로 빠지고 만다. 텅 하고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나는 녹이 쓴 하수구 창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본다. 아스팔트가 붉게 빛났다.

적적하게 파란 봉고 트럭에 군밤과 군고구마를 팔던 밤 장수가 확성기를 걸어 놓고 장사를 접는다. 가로수가 늦가을 시린 바람에 몸을 쫓는다. 트럭 위로 낙엽이 쌓이는 모습, 밤 장수가 차에 타 문을 닫는 모습 등을 나는 멍청하게 쳐다본다. 그때 무언가 차가운 게 눈을 확 덮는다.

“뭐 해?”

오늘 나올 줄 알고 있었다. 나는 창백하고 여린 손을 눈가에서 슬며시 치워 놓으며 말한다.

“응, 그냥...”

“나 기다렸나?!”

그는 내 얼굴에서 손을 뺄 때며 물었다. 가디건 소매가 얼굴에 쓸린다.

“음? ...아니.”

사실 기다렸다. 추운 데 계속 앉아 있던 이유도 오늘 즈음이면 그가 여기로 나와 있을 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었다.

“기다렸으면서..? 아님 넌 여기 왜 있는데?”

나는 여전히 바닥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돌려댄다. 봉고차가 요란한 소리와 매연을 풍기며 떠났다.

“뭔가 음침- 하잖아?”

“그, 그른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니 유독 흘러내린듯한 눈빛이 붉게 달아 올라 있었다.

“그른가는 무슨 그른가야. 또 울었네.”

“...티 나?”

그의 갑자기 목소리가 가라 앉았다.

“응... 티 나.”

그는 내 옆으로 와 쪼그려 앉고 손으로 무릎을 감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다시 해가 떨어지는 길바닥만 보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난 이 정적이 어색해서, 그리고 정말로 궁금해서, 마침내 무겁게 입술을 뻗었다.

“누나... 그런데 있잖아-“

“아-아니, 없는데? 흥....”

누나는 어색하게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금은 묻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나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을 다시 삼켰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굳이 헤집지 마....”

그는 천천히 팔짱을 끼고 한숨을 내쉬더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텅 빈 표정을 지었다. 먼 길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자기가 대화를 끊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화제를 고민하다가 마침내 하나 생각해냈는지 말을 꺼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벌써 한 달 전이네.”

시간이 그렇게나 지난건가.

“그땐 정말 어이 없었는데.”

“응, 난간에서 경치 좀 봤었지.”

나는 뭐라 답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다. 누나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으나 떠오른 것이 없는지,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된 그 날의 이상한 기억을 강조할 뿐이었다.

“야경 이쁘더라”

“지금 농담할 분위기는 아닌 거 같은데.”

또 정적만이 남는다. 우리의 대화는 정적이 대부분이었다. 조금 뒤 누나가 큰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가라앉은 어조로 말했다.

“우린 왜 살까?”

“음... 그야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응?”

“왜 살아야겠냐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학교에서, 책에서, 수도 없이 듣고 봐 왔던 바로 그 정답을 말했다.

“행복하려고...”

그러다가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들었다. 누나는 약하게 코웃음했다. 그의 눈이 감기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

“있지, 나는...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 나지가 않아.”

“.....”

“하지만, 그 동시에, 현실이 피부에 바짝 와닿고 턱 밑까지 들어와서 숨이 막혀.”

나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내일이 빗처럼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었다. 나에게 내일은 그냥 오늘 밤이 지나면 오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내 생각을 곱씹어보았다.

나는 행복한가? 내일이 있어 다행인가? 아니면 누나 말대로 내일은 영원한 저주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성장했다. 성장은 성숙이라는 착각과 동시에 행복이라는 것을 점점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누나나 나나,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터였다. 우리는 모두 이성적으로는 죽는 쪽이 낫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지 않을까? 아니, 왜 죽지 못할까? 내 생각은 여기서 그쳤다.

누나는 내 눈치를 보다가 내가 아무 말이 없는 듯하자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하하! 미안, 너무 내 얘기만 했네. 너에 대해 아직 잘은 모르는데.”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가 사과를 하길래 얼른 말을 붙였다.

“아니,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 그런거야... 음, 우리는 왜 죽지 못할까, 그런거.”

그는 등을 벽에 톹 기대며 기쁜 듯 살짝 웃었다. 그리고는 이제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으응.”

—

아직도 눈꺼풀 아래 걸려 있는 오래 전, 어린 시절. 몇 시간 전 초저녁에 호텔에서 끈 꿈이 아직도 누나의 목소리와 함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 걱정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바닥에서 승합차 뒷문에 달린 창으로 눈길을 옮겨 밖을 내다보았다. 오늘은 유독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단 닥친 일에 집중해야 한다.

안개가 자욱이 내린 이른 새벽이다. 반쯤 폐허가 된 회사 건물이 큰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내가 탄 승합차는 그곳으로 서서히, 그러나 빠르게 다가갔다. 차가운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더욱 창백한 색을 띠어 돋보이는 우리의 목표는 고독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오늘 작은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하는 듯.

우리의 목표는 상호명이 SenCHK라고 되어 있는 회사 건물이었다. 주변에 깔린 파란 방수포에는 대충 스텐실로 찍어놓은 듯한 키릴로 ‘СенЧК’라고 쓰여 있었다. 이 회사는 꽤 이름 있는 IT 중소기업이었다. 우리의 임무는 조용히 서버실로 들어가 메인 서버 컴퓨터에 보관된 기밀 데이터를 빠르게 입수하는 것이었다. 차가 덜컥 흔들렸다.

“Everybody clear on each other’s WF code names?” (모두 서로의 WF 코드명은 확실히 아는가?)

무릎에 팔꿈치를 걸치고 쏘그려 앉은 분대장이 조금 독특한 영어 억양으로 물었다.

“Yes, we are.” (그렇습니다.)

모두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Good. We are designated as callsign Saturn element in this mission. I’m number Six, Alexander will be one. Steve, two. And Paul, you are three.” (좋아. 우리는 이번 임무에서 콜사인 새턴으로 지정되었다. 나는 6번, 알렉산더는 1번, 스티브는 2번, 그리고 파울, 너는 3번이다.)

3번. 사실상 내가 후방이다. 내 역할이 선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압박감이 은근히 기어 올라왔다. 우리 팀은 이번 작전을 위해 급조되어 이틀 전에 서로 간단한 소개를 마쳤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원들 중 아무도 모를 것이다. 본부에서는 단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어떤 곳이길래 중요한 기밀 데이터를 보관 중일까? 기밀 데이터는 무슨 내용일까? 왜 하필 나 같이 경험 부족한 요원이 이런 중요한 작전에 투입되어야 했을까? 우리는 그 중 아무것도 알면 안 되었다.

우리가 탄 검은 승합차는 헤드라이트를 끈 채로 조용히 옆길에 섰다. 1번 인 알렉산더가 앞서 내렸고,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뒷사람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하차했다. 찬 밤공기가 가벼운 장비 안으로 파고 들었다. 내 뒤로도 두 명이 더 뛰어내려 재빨리 길 가 쪽으로 붙었다. 회사 건물 앞 길가에는 잔해와 쓰레기와 뭔지 알 수 없는 찌꺼기와 파편이 굴러다녔다. 모두가 내리자 승합차는 차분한 엔진음을 내며 문을 닫고 떠나갔다. 우리는 건물 옆 뒷골목으로 빠져 길 앞쪽보다 훨씬 더럽고 난잡한 쓰레기장 쪽의 뒷문으로 향했다. 쓰레기장은 적어도 한 달은 방치된 것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다. 검고 하얀 비닐 봉지, 종이 더미, 바스라진 쓰레기 봉투와 바구니, 망가진 가구 등등이 낮게 흔들리는 덩불 주위로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었다. 그 뒤로는 내 키보다 1 미터는 더 커 보이는 콘크리트 담이 있었다. 담은 군데군데 파이고 깨

저 성한 데가 없었다. 나는 팀원들을 따라 뒷문 쪽 벽으로 붙기 시작했다. 풀밭 속에서 풀벌레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났다. 먼치에 서서 혼자 빛을 내는 가로등 주위를 나방들이 쫓았다.

분대장이 조용히 PTT로 무전을 쳤다.

“Saturn 6 to TacComms, Saturn element at AO.” (새턴 6이 본부에게, 새턴이 작전 지역에 도착했다.)

검은색 후드 위에 플레이트 캐리어를 걸친 4명의 전투원은 좁은 철문짝 양 옆으로 늘어섰다. 문고리 쪽에 있는 알렉산더가 우리 쪽을 한 번 돌아본 후 서서히 문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스티브가 고개를 까딱 끄덕였다. 문이 조용히 열어젖혀졌다. 그 즉시 문고리 반대편에 서 있던 스티브가 허리를 기울여 내부를 경계했다.

“I see nothing for now.” (일단 보이는 건 없다.)

스티브가 속삭였다. 잠시 동안 고민하더니, 분대장은 플레이트 캐리어로 가려지지 않은 스티브의 어깨 안쪽에 손을 가져다 댔다. 스티브가 발을 높이 들고 문간 안으로 들어가 모퉁이 쪽으로 총구를 짚었다. 나는 최대한 그에게 붙어 반대쪽 모퉁이를 확인한 후 전방으로 총구를 돌렸다.

“Saturn moving interior.” (새턴, 실내 진입.)

분대는 조용히 로비 안으로 흘러들었다. 로비는 코팅된 화강암 바닥에 프론트가 있는 소박한 구조였다. 내부 역시 분쟁의 풍파를 피하지 못한 것인지, 유리조각과 종이 뭉치가 처절한 대피의 현장을 흩뿌려 어지러웠다. 찬 밤 바람에 종이가 발 밑에서 들썩들썩 날아다녔다. 우리의 목표는 서버실. 다른 팀

원이 자리를 잡고 주변을 경계하는 동안, 나는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층별 안내도를 빠르게 훑었다. 4층의 ‘сервер’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폈다.

4 |

Відділ інформаційної безпеки

Головна серверна кімната

나는 우크라이나어를 할 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 줄이 ‘주 서버실’이라는 것은 짧은 러시아어로 유추하여 알 수 있었다. 나는 팀원들에게 손가락을 네 개 들어 보였다. 분대장이 계단통 문 쪽으로 손바닥을 흔들었다. 우리는 모두 비상계단 표시 아래 있는 문 앞에 섰다. 스티브는 문을 밀어 열고 층을 겨누며 스산한 계단통으로 들어갔다. 그를 뒤따라 알렉산더, 분대장, 그리고 내가 차례대로 들어갔다. 스티브는 앞쪽을, 알렉산더는 위쪽 계단을, 분대장은 옆쪽을, 그리고 나는 옆과 뒤를 경계하며 조용하게 올라갔다. 계단통 속은 붉은 색 비상등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 불길하고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계단통은 반 층계를 오른 후 뒤를 돌아 또 올라가야 한 층을 오르게 되는 구조였다. 오르면서 위쪽 후방이 위험하다는 의식은 더욱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팀원들도 숨소리를 죽이고 긴장한 상태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 오르고 있었다.

우리의 목표인 기밀 정보가 이곳에 있다는 정보는 우리 의뢰처밖에 알지 못한다고 들었다. 빠르게 진입하는 것 보다는 혹여나 들켜 내부 인원에 의해 데이터가 유실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히, 조용히 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한 층 한 층을 서서히 올랐다. 옷에 달린 절그럭거릴만한 모든

것들을 테이프로 발라냈기에 계단통에는 조용한 고무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다.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금방이라도 경비나 일찍 행동한 다른 무장 인원과 만날 것만 같았다. 이 곳 모양을 보아 우리가 이 회사에 발을 들인 첫 무장 인원은 아닐 것이었다. 의뢰처는 대부분 신뢰하기 어렵다.

4층에 도착하자 스티브는 계단통 철문 옆에 비껴선 뒤 몸무게를 실어 문을 밀었다. 그 옆에 선 나는 문이 열리자 총을 치켜들고 넓은 사무실을 훑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 한 손으로 총을 견착하고 다른 쪽 팔꿈치로 문을 잡았다. 팔이 좀 아프길래 총을 문을 잡고 있는 팔 위에 거치하고 주변을 확인했다. 나머지 분대원들은 내가 문간에 오래 있지 않도록 재빠르게 들어가 문쪽 벽에 들어서 사무실을 경계했다. 나는 문을 놓고 나와 빈자리를 채우고 섰다. 문이 뒤에서 철컹 소리를 내며 조용히 닫혔다. 사무실에는 은은한 안내등과 고요한 배경 잡음만이 울려 머리를 흔들었다. 사무실 내부는 칸막이로 뿔뿔히 나뉘어 있었다. 짐은 모두 빠졌고, 몇몇 자리에 의자나 컴퓨터 본체 등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물품들만 남아있었다. 사무실 역시 바닥에 떨어진 각종 물건들로 난잡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저 멀리 유일하게 제대로 된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켜져 있는,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보였다. 안쪽 벽은 유리가 아닌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는 서버 컴퓨터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곳이 주 서버실인 듯했다. 말이 주 서버실이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소규모 서버실인 듯했다. 이런곳에 무슨 기밀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것인지.

우리는 서버실로 향했다. 산개하여 걸으며 사무실 구역을 훑어 확인했다. 바닥에 켈라이트가 떨어져 빛을 내고 있었다. 최근에 이곳에 무장 세력이 방

문했다는 것이다. 의뢰처에서는 이 회사 건물에 기밀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곳은 우리 밖에 없다고 했는데,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빗나가질 않는다. 모두 지나가며 켈라이트를 한 번씩 보고 갔다. 주위로 긴장감이 맴돌았다.

우리는 서버실 문 앞에 섰다.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서버실은 밝지는 않지만 조명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미리 확보해 온 키카드를 자동문 옆 인식기에 굽었다. 찰칵하는 소리가 나고 잠시 후 위잉 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문이 미끄러져 열렸다. 우리는 선두를 교대하고 서버실로 진입했다.

진입하자마자 입구 쪽 은엄폐로 쓸만한 구조물들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살폈다. 바닥에 핏방울 자국이 복도 안쪽 방향으로 주욱 나 있었다. 피의 양이 적은 것으로 보아 굽힌 상처거나, 운 좋게 총알이 어깨나 옆구리에 스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곳에 왔다 갔고 침입자 쪽이든 회사 쪽이든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유리한 싸움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길게 늘어선 서버 컴퓨터 사이로 전진하는 찰나, 바스락 소리가 났다. 서버실 맨 끝, 양갈래로 꺾인 T자 복도의 보이지 않는 안쪽.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총을 소리 방향으로 겨누고 전진, 산개하여 엄폐했다. 아무 기척도 없었다. 알렉산더가 소리쳤다.

“We are armed! Come out with your hands up now!” (우리는 무장했다! 당장 손을 들고 나와 협조해라!)

한 10초 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경비원 한 명이 서버실 안쪽 꺾어진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떠밀려 나오듯 빠르게 나

오더니, 복도가 교차되는 부분으로 나올수록 속도를 줄였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알렉산더와 스티브가 총구를 들어 경비원을 겨눴다. 경비원은 양손을 치켜들어 보이며 다급히 소리쳤다.

“Стойте! Не стреляйте! Послушайте меня!” (잠깐만! 쏘지 마세요! 제 말 좀 들어봐요!)

“Alex, Hands-Hands check. “ (알렉스, 양손 확인해.)

“Не, не туда! Там внутри, слушайте-” (아니, 저기! 안에, 제 말 좀-)

우리는 꺾인 복도 쪽을 경계했고 알렉산더와 스티브가 경비원 쪽으로 붙었다. 알렉산더가 경비원의 무릎을 꿇리고 케이블 타이를 묶는 동안 스티브가 라이트를 켜고 경비원의 머리를 겨누었다. 나는 주변을 더욱 철저히 살폈다. 너무 큰 소리를 낸 우리는 이제 발각되었다.

우리는 총을 단단히 들고 복도 입구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온 신경이 복도 입구로 집중되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떼어 전진했다. 내 총구 끝이 문가에서 미미하게 흔들렸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입구까지 다섯 발짝 정도 남은 그때, 탁 소리가 서버실 전체에 울려 퍼지더니 콘크리트 벽에 무거운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아차 싶었다. 몸이 뻗뻗이 굳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다. 순간 정신을 붙잡았다. 나는 위협을 소리쳐 알리며 벽으로부터 멀리 달아났다.

“Frag!” (수류탄!)

지척에서 짧고 강렬한 폭발음이 들리다가 멍멍해지며 끊겼다. 온몸의 살과 뼈가 폭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균형 감각을 잃은

나는 땅으로 엎어졌다. 이명과 함께 사방으로 튀는 파편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힘껏 밀어 몸을 뒤집었다. 팔을 힘겹게 움직여 몸 구석구석을 짚어 보았다. 다행히 뚫린 곳 없이 멀쩡했고, 떨어져 나간 것도 없었다. 고개를 들어 경비원 쪽을 보았다. 그를 보자마자 본 것을 후회하고 말았다. 유혈과 살덩이가 사방에 낭자했고, 그곳에 있던 세 명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엉망진창이 된 동료들의 시체 두 구와 바닥에 쏟아진 내장이었다. 아직 자욱하게 걷히지 않은 연기가 현실감을 앗아갔다. 하얀 벽에 붉은 피가 유화물감 튀듯 작렬해 있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서 눈을 떼 수 없었다. 어지러웠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몸을 뒤집어 일어서서 다시 엄폐물 쪽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발을 굴렀다.

내가 일어나서 등을 보이자 서버실 안쪽 복도에서 대기하던 적이 급히 총을 들어 내 쪽을 쏘는 모습이 눈에 스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머리로 들고 허리를 숙이며 콘크리트 벽 뒤로 넘어지듯 들어갔다. 적은 나를 죽이려 복도 끝에서 나오며 총을 쏘기 시작했다. 등골이 오싹하며 온몸에 저릿한 전율이 세계 올라왔다. 먼 복도에서 총성이 울려 머리를 흔들었다.

파편과 먼지가 마구 튀었다. 나는 자세를 숙였다. 총알들이 얇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와 뒤쪽 강화유리창에 박혔다. 강화유리는 곧 하얀 폭포 줄기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다. 서버실 유리 뒤 사무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칸막이가 황갈색 먼지를 뿜으며 넘어졌다. 머리 위로도 살벌한 소리를 내며 총알이 박히고 지나갔다.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때, 반대쪽 벽

에 있던 분대장이 라이트를 켜고 상체를 내밀어 복도 쪽으로 제압 사격을 가했다.

적은 대응 사격을 하며 복도 안쪽으로 후퇴했다. 분대장은 끝까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적에게 사격을 가했다. 복도에 총알이 도탄 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이때를 틈타 같이 복도를 사격하며 서버실 안쪽으로 들어갔다. 총을 복도 쪽에 겨누고 발을 최대한 빠르게 놀렸다. 지금 위치를 깊숙이 옮기지 않으면 이 총격전에 생존의 여지는 없다. 공격의 모멘텀을 잃으면 안 되었다. 나는 계속 복도 쪽으로 사격을 가했다. 내가 서버 컴퓨터 뒤편까지 들어가자, 분대장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계속 총을 쏘며 이동했다. 복도 벽에 총알이 박히며 먼지와 콘크리트 조각이 마구 튀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마침내 자리를 잡은 후 사격을 중지하고 입구를 겨누었다. 그곳에는 비상구 유도등에 비친 밝은 먼지 구름만이 자욱했다. 나는 긴장하고 그곳에 더욱 눈을 갖다 대었다. 그때, 복도 쪽 불이 꺼졌다. 당황스러웠다.

탁탁! 쨍그랑!

곧이어 소음기 총소리가 들리더니 서버실 한 쪽 구석 책상에 세워진 큰 램프가 깨졌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직감한 분대장과 나는 황급히 복도 안을 쏘며 다음 서버 컴퓨터 열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았다.

탁탁 탁탁탁!

잠시 후 적이 대응 사격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총만 내밀고 쏘는지 총알이 근처에 박힌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서버 컴퓨터 옆에 딱 붙어서 자세를 낮추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별빛이 내린 어느 중소기업의 서버실에는 음산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모든 감각을 적의 기척을 찾아내는 데에 집중했다. 잠시 후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타박, 타박, 타박, 툅. 부스럭... 터벅. 터벅. 땡그랑-

가벼운 쇳덩이들을 밟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분명 아까 복도 입구에서 적이 쏜 총알의 탄피이다! 적도 자신이 뭘 밟은 것인지를 알아챘는지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나는 판단을 내려, 조정간을 연사로 바꾼 뒤 몸을 내밀고 총에 달린 라이트를 복도 쪽으로 켜다. 아니나 다를까 밝게 비춰진 적이 보였다. 그는 주춤한 자세로 내 쪽을 휩 돌아보았다. 잠깐 그의 눈, 아니 그의 2안 야시경이 나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눈이 부신지 야시경을 가렸다. 나는 있는 힘껏 총 앞을 눌러 내리며 그에게 총알을 갈겼다. 요란한 총성이 사무실을 찌렁찌렁 울렸다. 적은 총을 들어 막무가내로 쏘더니 야시경을 올리고 내 쪽으로 총구를 들어 다시 난사를 가했다. 하지만 내가 선수를 쳤고, 그는 내 사격에 제대로 맞았다. 나는 적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광경을 그 짧은 시간에 선명하게 보았다.

처음 몇 발은 빗나갔는지 아무 표시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은 몸을 움찔하였다. 그러다가 그의 헬멧에 총이 맞았고 그의 고개가 위쪽으로 비스듬히 돌아갔다. 그는 팔을 반사적으로 올려 머리를 보호했다. 곧 방탄복에서 희뿌연 세라믹 파편이 튀더니 그의 몸이 숙여졌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을

옆으로 틀었다. 그의 플레이트 캐리어 옆의 보호되지 않은 공간이 보였다. 나는 방아쇠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로 힘겹게 그쪽으로 총구를 옮겼다. 옆구리와 허벅지에서 피와 연기가 튀어 올랐고 그의 몸이 총 맞은 쪽으로 틀어졌다. 피를 보자 긴장이 풀린 나는 반동을 잡던 손의 힘을 빼버렸다. 총구가 흔들렸고, 나는 다시 총구를 내려 잡고 몸을 개머리판으로 구겨 넣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내 총은 소리를 멈추었다. 그는 복도 바깥쪽 옆으로 봉제인형처럼 맥없이 쓰러졌다. 그의 멜빵줄에 걸린 총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벽에는 검붉은 피가 크게 튀어 있었고, 바닥에는 선혈이 웅덩이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인지 모를 느낌이 엄습하여 급히 서버 컴퓨터로 다시 몸을 넣었다. 분대장이 상체를 기울이고 라이트를 켜 적의 시체를 확인한 뒤 다시 엄폐물로 들어갔다. 나는 총을 눈앞으로 들었다. 핸드가드가 뜨거웠다. 총을 기울여보니 노리쇠가 후퇴고정 되어 있었다. 탄창 멈치를 눌러 다 쓴 탄창을 떨어뜨리고 파우치에서 새것을 뽑아 끼웠다. 그리고 다시 총을 기울여 작동부를 보며 노리쇠 멈치를 눌렀다. 총 안의 길쭉한 쇠덩이가 앞으로 가며 총알을 약실에 넣었다. 재장전을 하며 진정하려고 애썼다. 아까 전에 총을 연사로 든 것이 기억나서 조정간을 다시 단발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큰 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분대장이 건너편 서버에 기대고 조용한 목소리로 본부에 지원 요청 무전을 넣었다.

“TacComms, this is Saturn 6. we’ve encountered hostile forces and got friendly casualties, they are better armed than us. Requesting

backup.”(본부, 새턴 6이다. 적 병력과 조우했고 아군 사상자가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무장 수준이 높다. 지원을 요청한다.)

“Saturn 6, copy that. QRF inbound, but the route is congested. ETA 5 minutes, over.”(새턴 6, 알겠다. 신속 대응 부대가 출발했지만 경로가 정체됐다. 도착까지 5분. 오버.)

“Roger, Saturn 6 out.”(알겠다. 새턴 6 통신 종료.)

5분이나 야시경을 가진, 쪽수도 모르는 적들과 싸워 버텨야 하다니. 앞길이 막막했다. 속이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은 노릇. 등을 보이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먼치에서 잠깐 부스럭하는 소리가 났다.

II.

적이 야시경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니, 함부로 몸을 내밀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나는 적의 사격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에 납작 붙어 머리와 총구만 내밀고 복도 쪽으로 라이트를 쏘았다. 분대장은 나를 보더니 총구를 컴퓨터 끝에 견착하고 같이 그곳을 조준했다.

딸깍.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내가 누른 스위치 소리뿐, 완벽한 정적이었다. 라이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 고깔에 먼지가 밝게 비쳐 날아다녔다. 나는 더욱 시선을 총구 끝에 집중했다. 정적이 계속되었다. 얼마나 그 상태가 유지되었을까, 갑자기 적의 팔 일부가 총구와 함께 벽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 방아쇠를 살짝 누르며 움찔했다.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려는 손가락을 겨우 멈추었다. 적은 잽싸게 벽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다. 나는 검지 손가락에 힘을 천천히 풀었다. 방아쇠가 풀리며 딱 하는 소리가 작게 났다.

왜 그는 팔에 구멍이 날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내밀었을까?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반응이 너무 빨랐다. 적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머리를 쥐어짜내 생각하며 총끝을 바라보았다. 점점 한 곳에만 시선이 집중되며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강한 충격이 머리를 강타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내가 방아쇠를 당기거나 움찔하는 것을 유도한 것은 아닐까? 내

라이트가 움직이는 궤적을 보고 내 위치와 자세를 가늠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적절한 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에 급히 총구를 거둬 들이고 숨으려고 했다. 그런데 누워 있어서 그런지 쉽게 몸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나는 빨리 몸을 일으켜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다리를 서버 열 안쪽으로 놓았다. 상체를 서버 컴퓨터 뒤로 숨기려는 찰나, 적이 모습을 보였다. 그의 야시경 렌즈에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총구가 내 쪽으로 들렸다. 나는 몸을 서버 컴퓨터 뒤로 던졌다. 나는 그의 총구에서 화염이 번쩍하고 이는 것을 보았다. 그가 들고 있는 AK의 노리쇠가 뒤로 젖혀지는 것이 총구 화염에 비쳐 보였다. 어둠 속에서 반짝 빛난 탄피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을 검은색 암막을 치듯이 컴퓨터가 가로막았고, 내 몸은 땅에 떨어졌다.

파직!

그가 쓴 총알이 서버 컴퓨터를 뚫었다. 청백색 불꽃이 밝게 튀었고 파편과 조금의 연기가 엄폐물 뒤로 퍼졌다. 총알이 계속 이쪽 방향으로 날아와 쫓혔다.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분대장이 몸을 돌려 총구를 적에게 향하고 총알을 마구 퍼부었다. 그는 한쪽 다리에 무게를 지탱하고 계속 복도로 화력을 투사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소음기 총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분대장의 왼쪽 등에서 불꽃이 튀더니 분대장이 내 쪽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엎드린 자세에서 반 바퀴 굴러 분대장 쪽으로 몸을 뒹굴었다. 분대장의 바로 뒤에 또 다른 적이 있었다! 나는 재빨리 엄지로 조정간을 밀어 올렸다. 가볍게 딸깍하고 총이 연사로 바뀔과 동시에 총구를 적에게 갖다 대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꾸욱

눌렀다. 연발되는 총소리가 건물에 찌렁찌렁 울려 왕왕거리는 소리 이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적에게서 검은 세라믹 파편이 튀었다. 적은 몸을 뒤틀더니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계속 총을 쏘대었다. 다행히 총구가 위쪽으로 향해 있어서 누군가가 맞지는 않았다. 천장에서 불꽃이 튀고 석면 가루가 떨어졌다. 나는 분대장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몸을 움츠리고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의 상체가 서버 컴퓨터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분대장을 지키기 위해 몸 전체를 컴퓨터 바깥으로 내밀음과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다.

번쩍이는 총구화염 사이로 분대장을 쏘려고 몸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었던 적이 내 눈에 확 들어왔다. 나는 총구를 힘겹게 그에게로 돌렸다. 그의 가슴팍에서 새까만 연기와 파편이 튀어 올랐다. 나는 계속 방아쇠를 누르고 있었다. 그의 헬멧에서 불꽃이 튀더니, 그는 머리가 옆으로 돌아가고, 상체가 따라 돌며 벽 안쪽으로 쓰러졌다. 그가 서 있던 뒤쪽 벽에는 피가 조금 튀어 있었다. 다시 분대장 쪽으로 몸을 틀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금 총을 플레이트에 맞고 넘어졌던 녀석이 몸을 일으키고 총을 들어 세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총구에서 나온 회백색 연기가 광란스럽게 주변으로 퍼졌다. 그의 피가 뒤편의 강화유리에 마구 튀었다. 내 눈이 붉은빛을 따라 자연스럽게 유리창으로 갔다. 이미 유리에는 총알이 많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방아쇠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와장창창-

마침내 강화유리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튕구는 소리가 귀를 흔들었다. 유리 조각에 파묻힌 시체 한구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얼굴은 피에 젖은 채 까만 가루에 뒤덮여 끈적하니 알아볼 수 없었다. 몸은 군데군데 터져서 더 이상 본래의 모양이 아니었다.

나는 적의 시체에서 눈을 떼고 분대장을 바라보았다. 분대장은 시체를 한번 보더니 자세를 일으키고 복도 쪽을 다시 보았다. 잠잠했다. 나는 다시 복도 쪽을 조준했다. 분대장은 혹시 총알에 맞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플레이트 캐리어 밑을 더듬어 보고는 컴퓨터에 기대어 총을 재장전했다. 그가 재장전을 마치자, 나도 재장전을 하기 위해 총을 거뒀고 분대장이 대신 복도 쪽을 조준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총에 달린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어 천장에 커다란 하얀색 고깔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스위치를 눌러 라이트를 켜다. 순식간에 주변이 어두워졌다. 나는 파우치에서 새 탄창을 꺼내 다 쓴 탄창을 갈아 끼웠다.

우리는 적이 몇 명 더 남았는지 알 수 없어 이곳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특히 방금 전 복도 끝에서 플레이트에 맞고 쓰러진 녀석은 아마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적 한 명 한 명의 생존이 우리에게는 곧 죽음이었다. 본부에서 무전이 들어왔다.

“Saturn 6, report status.” (새턴 6, 보고하라.)

“Two hostiles down, we’re in bad condition, running out of ammo. Cannot estimate number of hostiles. QRF ETA?” (적 둘 사살, 우리 상태가 안 좋다. 탄약이 부족하다. 적군의 수를 알 수 없다. QRF 도착 소요 시간은?)

“2 mikes. Report BLUFOR casualties.” (2분. 아군 사상자 보고하라.)

“Two KIA, yet.” (두 명 사망, 아직은.)

“Copy, good luck.” (알겠다, 행운을 빈다.)

“Roger, holding position until QRF arrival. Out.” (확인, QRF 도착까지 위치를 사수한다. 교신 종료.)

짧은 무전은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 우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QRF가 도착할 것이라는 희망도 잠시, 전기가 번뜩이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텅 소리가 나더니 비상등을 제외한 모든 전기가 꺼졌다. 여러 빛깔로 빛나던 서버 컴퓨터들의 상태 표시등이 순식간에 나가버렸다. 완벽한 어둠 속 초록색 비상구 표시등만이 빛났다. 비상등은 제 혼자만 빛나 주변을 보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이 도깨비불 같기도 했다.

나는 청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까 내 총을 맞고 쓰러진 복도 쪽 적은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동이 없는 듯했다. 그놈은 죽은 걸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다.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

분대장이 손바닥을 보이고 앞으로 흔들어 전진하자는 손짓을 했다. 아까 적이 쓰러진 복도 입구에 적이 아직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우리는 컴퓨터 옆으로 재빨리 걸어 나와 앞 열에 있는 서버 컴퓨터 쪽으로 붙는 것을 반복하며 계속 적이 나왔던 복도의 입구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총구를 치켜들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총구가 눈앞에서 들쭉였다. 잠깐

고개를 돌려 분대장을 보았다. 분대장의 얼굴은 땀에 젖어 조금 빛났다. 그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그도 매우 긴장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아무런 반격도 받지 않고 복도 입구 앞까지 다다랐다. 그 근처에 가니 비로소 처음 수류탄이 날아들어왔던 그 통로가 보였다. 우리는 입구 양쪽 벽에 붙은 뒤, 썰기를 박듯이 총구를 안으로 찌르고 들어갔다. 조금 들어가자, 우리 앞에 벽이 있었고, 양쪽 옆으로 꺾어 지른 복도가 있었다. 우리를 그리도 궁지에 몰아넣은 T자 형 복도의 끝에 다다른 것이다. 바닥을 보니 아까 이쪽에서 쓰러진 적의 핏자국이 모퉁이를 돌아 왼쪽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이걸로 확실해졌다. 아까 그놈은 살아있다. 그놈은 용케도 소리를 내지 않고 안쪽으로 기어간 모양이다. 다만 이 자국을 따라가면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대장은 왼쪽 모퉁이 쪽 벽에 붙어 있었다. 나는 오른쪽 벽에 붙어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옆걸음질로 서서히 각을 열어 왼쪽 복도를 확보할 차례였다. 분대장은 이미 내 뒤편의 오른쪽 복도를 조준하고 있었다. 나는 분대장에게 내가 나서겠다고 총구로 신호했다. 분대장이 총을 접었다. 나는 왼쪽 복도를 바라보고 서서히 발을 떼어 한걸음 한걸음 움직였다. 모든 시선을 총구 끝, 아니 복도 끝에 집중했다. 그런데 너무도 깜깜했다. 라이트 스위치에 손을 올리고 한 발짝 더 떼려는 순간, 분대장이 내 옆으로 튀어나와 팔로 나를 막았다. 나는 놀라 총구를 내리고 옆걸음을 멈추었다.

그 즉시 소음기 총소리와 함께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살벌한 파열음이 귀를 스쳤다. 내 뒤쪽 벽 콘크리트에 연기와 콘크리트 조각이 마구 튀었다. 그

것들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파편과 먼지가 내 뒤통수에 맞았다. 나는 어렵
פות 보이는 분대장 뒤쪽으로 빠르게 후퇴했다. 분대장은 총만 내밀어 왼쪽
복도 안으로 총을 갈겼다.

타타타타탕-

탁탁! 탁탁탁...

총알이 벽에 박히는 소리와 도탄 되는 소리가 들렸다. 분대장의 짧은 연사
가 끝나자마자, 다시 적의 총소리가 들리며 오른쪽 벽에 또 한 번 살벌한 소
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분대장이 다시 내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숨은 바
로 그 벽에 총을 쏘댔다. 눈앞으로 먼지가 튀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벽에 금
이 가더니, 곧 더 큰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벽이 총알에 파이고
있는 것이다!

잠시 사격이 멈추었다. 그는 재장전 중일 것이다. 적의 발소리가 들렸다.
이미 정신줄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발소리를 제대로 들을 겨를이 없
었다. 상황이 꼬였다. 그들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내밀어 볼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결심이 서기가 무섭게 다시 총알이 날아왔다. 그들은 야시경
이 있다. 이미 우리가 총을 내밀 기회는 뺏기고, 공격의 차례는 그들에게 넘
어가 있었다. 그런데, 간헐적인 총소리 사이에 이질적으로 철컹하는 쇠소리
가 났다. 적은 두 명이며 이리로 접근하고 있었다. 한 명이 탄을 소진하자, 교
대하여 다른 적이 제압사를 계속했고, 그 사이에 재장전을 한 것이었다. 내
사고가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우리는 서둘
러 우리가 서 있는 죽음의 깔때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분명히 우

리가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충구를 복도 쪽으로 향하고 다시 서버 컴퓨터 열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숨이 아까보다 더욱 가빠왔다. 가뜩이나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시야는 더 좁아졌다. 땀이 속눈썹에 맺혔다가 떨어졌다. 분대장이 어디로 가는지는 볼 새도 없었다.

털벌.

발뒤꿈치에 무른 것이 차여 밟혔다. 설마 아까 수류탄에 맞은 동료의 잔해인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피가 타일 바닥에 치대어졌는지 걸음이 미끄러웠다. 다리에 힘이 풀리려고 했다. 여기서 넘어지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 뒤를 돌아보았다. 장애물은 없고 서버 컴퓨터는 얼마 머지않았다. 희망의 끈을 잡은 나는 더욱 빨리 걸음을 재촉하며 다시 앞을 보았다. 그런데, 저 멀리 무언가가 번뜩였다. 방금 그게 뭔가 싶었다. 마침내 그것이 야시경 렌즈였음을 깨달았을 참에, 나는 죽음의 선홍색 꽃이 번뜩이며 피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에는 나를 따라 잡는 것이 있다. 총알은 그 중 하나다. 총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숨이 턱 막혔다. 귀가 멍멍해지고 머리가 저려왔다. 나는 균형 감각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헬멧이 바닥에 부딪힌 충격이 그대로 머리에 전해졌다.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다리를 힘겹게 꿈틀거렸다. 일어나기 위해 무릎을 굽혔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지러웠다. 눈앞이 오류 난 화면처럼 캄캄하게 지지직 거리며 캄캄해졌다. 누나가 물었다.

“우린 왜 살까?”

나는 조금의 생각 끝에 골목 건너편 하수구 창살 끝자락에서 간신히 멈춘 자갈 덩어리 하나를 쳐다보며 고요하게 읊조린다. 아니, 이건 골목에 앉아 있는 어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둘을 허공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가, 말한다. 나는 새삼스럽게 또 한번 깨달았다.

“본능이니까.”

누나의 미소가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깊은 기침을 뱉었다. 눈이 번쩍 뜨이고 막혔던 호흡이 훑 들어왔다. 날카로운 이명만 들리던 귀가 확 열리더니 분대장의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상체를 가까스로 일으켰다. 어깨에 땀땀을 흘렸다. 총이 바닥에 드르륵 끌리는 소리가 났다. 그 근처를 더듬어 소총을 집어 들고 앞에다가 마구 갈겼다. 적의 응사가 들어왔고, 나는 더욱 격렬하게 총알을 퍼부었다.

총에서 총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나는 있는 힘껏 서버 컴퓨터 뒤로 달렸다. 적이 어디 있는지는 이제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나는 일단 살고 봐야 했다. 내 뒤로 총알이 날아왔다. 분대장의 총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적들이 분대장에게 맞을까 봐 나를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마침내 컴퓨터 뒤로 몸을 던졌다. 서둘러 재장전을 했다. 손이 떨려 탄창을 제대로 넣는데 오래 걸렸다. 상황을 살피기 위해 라이트를 켜고 복도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복도의 양쪽 벽에서 총구 화염이 일었고 총알이 나에게 날아와 쫓혔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몸을 집어넣었다. 방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것은 확실했다.

나는 분대장이 어딴는지 살폈다. 그는 서버 컴퓨터 맨 앞줄에서 자세를 웅크리고 사격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라이트를 계속 깜빡거리며 적들이 야시경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라이트를 점멸 모드로 켜고 총만 내민 후 갈졌다. 사격을 멈추지 않고 총구를 적 쪽으로 향하며 분대장에게로 달려갔다. 다시 분대장과 떨어진다면 내 생존, 아니, 서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터였다.

라이트 점멸이 멎었는지 나는 무사히 분대장에게로 도착했다. 오자마자 탄창멈치부터 눌렀다. 탄창이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다. 플레이트 캐리어에 손을 가져다 대었는데, 남은 탄창이 없었다. 잠시 당황했지만, 배운 대로 소총을 놓아 땔빵에 걸리게 해 두고, 권총을 뽑아 들었다. 잠시 후 분대장이 말했다.

“Reload!” (재장전!)

분대장은 총을 접고 안쪽으로 들어왔고, 내가 분대장의 자리로 갔다. 권총 라이트를 깜빡이며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방아쇠를 당겼다 놔다 했다. 적들은 내가 권총을 내민 것을 보고는 더욱 매섭게 사격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서버 컴퓨터에 꽂혔다. 우리 화력은 이제 적에게 비기지도 못했다. 분대장은 재장전을 마치자마자 내 어깨를 쳤다. 나는 그와 다시 교대했다. 분명히 그도 탄이 여유 있진 않을 터였다. QRF는 언제 오는지 아직 기척도 없었다.

그때, 딱 하는 소리와 쇠가 튕기는 핑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바닥에 무언가가 구르는 듯했다. 또 수류탄이라고 생각한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분대장도 총을 접고 자세를 낮췄다.

뻑-

갑자기 하얀 섬광이 철쭉 같던 건물에 번쩍 일더니 귀가 완전히 멍멍해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균형 감각을 잃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지만, 나는 옆드린 채로 땅으로 처박혔다. 머리를 들 수 없었다. 눈에는 그을음 자국이 가시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적들이 다가왔다. 나는 힘겹게 적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올려다 보기는 한 건가? 적은 눈을 가리고 자리에서 휘청거리는 분대장에게 총알을 박아 넣었다. 오직 총성의 진동과 분대장이 쓰러지는 충격만이 바닥을 통해 내 몸으로 전해졌다. 탄피가 눈앞에 떨어졌다. 분대장의 피가 내 얼굴에 튀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불행하게도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애써 죽은 척을 했다. 둔해진 상황 파악 능력 때문에, 죽은 척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분대장 발치에서 이미 많이 꿈틀거린 뒤였다. 적이 내 근처에 떨어져 있던 소총을 보고는 내 멜빵에 발등을 넣고 다리를 획재졌다. 총이 멜빵을 따라 멀리 날아가 딱딱한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렀다. 적은 내 머리를 겨눴다. 다른 녀석이 나타나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플레이트 캐리어 가운데가 동그랗게 해져 있었다. 이 놈이 내 총에 맞은 놈이었다. 나를 생포할 셈인가? 그때, 또 다른 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적들은 세 명이었다. 그는 팔에 피가 젖은 붕대를 묶고 있었다. 이 놈이 입구 핏자국의 주인이었다. 우리를 발각되게 만든 바로 그놈 말이다. 그는 내 몸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던 권총마저 차낸 뒤 말했다.

“Этот салага совсем зелёный. Тащите в штаб.” (이 자식은 애송이 같다. 본부로 데려간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Есть.” (알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러시아 말투가 섞인 영어로 말했다.

“You speak English?” (영어 하나?)

“...”

“I’m not fucking around. Answer. Do you speak English?” (두 번 안 물어본다. 대답해. 영어 할 줄 알아?)

봉대를 감은 녀석이 가장 상급자로 보이는 녀석에게 USB를 건넸다. 저게 데이터인 모양이다. 나는 회사 교육으로 배운 러시아어로 대답했다. 이렇게라도 하여 조금이라도 환심을 사야 했다. 나는 공포심에 정신이 흐릿하여 말을 더듬었다.

“Я, Я знаю по-русски.” (러, 러시아어 할 줄 압니다.)

그러자 그가 조금 고조됐지만 여전히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그의 목청 끝에서 나는 듯한 말소리가 귀에 유독 날카롭게 들어왔다.

“Хорошо. Будешь сотрудничать - всё нормально будет. Понял?” (좋아. 협조만 잘 하면 괜찮을 거다. 알겠나?)

그는 협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으나,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 같았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최대한 굴렸다. 아직 귀에 삐 하는 이명이 가시지 않고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방해했다. 그들도 내가 뭔가를 꾀하고 있

다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러시아 놈들 중 한 명이 숙이라는 듯 내 등을 누르더니, 아직 대답도 안 했는데 내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기 시작했다.

나는 꼼짝없이 뒤로 묶여서 머리에 총이 겨눠진 채로 밖으로 끌려 나가기 시작했다. 내 앞에 가는 두 놈이 총을 치켜세우고 전방과 측면을 경계했다. 훈련이 잘 된 인원들로 보였다. 이 정도로 훈련된 병력은 더 중요한 건에 보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나는 그 일을 완벽히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 탈출의 여지없이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도망칠지만 궁리하였다.

“Давай, быстрее иди.” (어이, 빨리 가.)

빠져나갈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발걸음이 느려졌다. 뒤에서 날 잡고 있던 놈이 빨리 가라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그를 불쌍한 눈빛으로 흘겨보고는 힘겹게 발걸음을 땀다. 창문 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 온다. 잔해로 뒤덮인 폐허 너머 연기가 피어오르는 먼 산을 보았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비친 밝은 바늘이 눈을 찔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QRF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마지막 불만이 싹트는 순간, 무전이 들려왔다.

“QRF Epsilon, inbound, AO.” (QRF 입실론이 작전 지역에 진입했다.)

일출의 빛에 붉게 비친 왼쪽 비상구 문이 벌컥 열렸다. 초면이지만 가장 반가운 사람들이 서버실 안으로 돌입하기 직전이었다.

III.

비상문 끝으로 소음기 총구 끝이 튀어나왔다. 짹 하고 박수 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그와 동시에 나를 붙잡고 있던 녀석의 머리가 들썹 흔들리더니 옆으로 비껴 쓰러졌다. 총알이 지나가며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른 러시아 요원이 즉시 소리쳤다.

“Контакт слева!” (왼쪽에 적!)

나는 재빨리 자세를 숙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맨 앞에 가던 녀석이 뒤를 확 돌아보고는 총구를 치켜들었다. 바닥에 넘어진 요원은 몸부림치며 사무실 칸막이 뒤로 자신을 밀었다. 문 밖에서 소음기 총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QRF 대원들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채광이 비치는 통유리가 빗발치는 총알에 와장창 무너져 내렸다. 나는 쏟아지는 유리파편을 목덜미로 받으며 필사적으로 사무실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책상, 대형 프린터, 칸막이, 유리창에 총알이 계속 박혔다. 양쪽의 총성이 격렬하게 울려퍼졌다.

러시아 요원들은 비상구 쪽으로 대응 사격을 하며 주변의 얽매물들로 산개하기 시작했다. 나를 뒤에서 밀고 가던 녀석은 내가 총을 쏘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고 쓰러진 녀석의 총을 발로 멀리 차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반응이 늦어져 우리 QRF의 총에 맞고 몸을 웅크리더니 바닥에 털썩 엎어졌다. 그는 몇 초간 미동이 없다가 총 맞은 부위를 꼭 누르고 화분이 세워진 기

등 쪽으로 기어가며 부르르 떨었다. 그는 쓰러져서도 총을 내밀어 옆 책상에 의탁한채로 쏘아댔다. 양쪽에서 날아 오가는 총알 때문에 사무실이 뿌영게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칸막이 건너편에서 그가 격렬히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나를 의식했지만 내가 죽을락 살락 누워있는 것을 보고 시선을 돌려 그의 적에게 사격하는데 집중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벽을 따라 기어서 아군 QRF 쪽으로 향했다.

격렬한 총성이 오가며 종이 조각과 나무 파편, 불꽃과 먼지 등이 마구 휘날렸다. 나는 천천히 기어가 일단 교전 사선에서 벗어났다. 다시 상황을 살피고 쏘그린 채로 허리를 숙여 아군 쪽으로 계속 움직였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계속 발을 굴렀다. 아군과 적군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다. 아군은 서버실 외곽으로 끌고 들어와 넓은 각에서 화력을 투사하고 있었다. 러시아 놈들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층 전체를 울렸다.

“끄아아아! Cyka-!!”

타타타타탁-

그 이후 마지막 발악인듯 한 연사하는 소음기 총 소리가 들리더니 곧 멎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계속되는 총성이 두개골을 뒤흔드는 듯했다. 최대한 발을 빨리 움직였다.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내딛을 때마다 땅의 진동이 후들거리는 발목에 전해졌다. 나는 불꽃과 파편을 내뿜는 서버 사이를 헤쳐 QRF가 진입한 비상구 쪽으로 달리며 소리쳤다.

“Friendly! Friendly!!” (아군이다! 아군!)

내가 들어가려는 비상구 주변으로 총알이 작렬하며 벽과 문틀에 마구 박혔다. 나는 뛰다가 말고 털썩 엎드렸다. 비상구를 끼고 사격하던 QRF 대원이 총구를 내리고 뒤로 빠져 엎페했다. 그는 나에게 손바닥을 보이고 천천히 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총구만 밖으로 내밀고 옆으로 비켜 주었다. 그 찰나를 노려 내달린 나는 어느새 햇빛이 조금씩 들어 차는 계단통으로 튕겨져 나왔다. 총알이 문틀에 몇 발 더 박혔고, QRF 대원은 자세를 낮추고 다시 몸을 내밀어 대응 사격하기 시작했다.

이쪽 계단통은 우리가 들어온 쪽보다 좀 더 넓었고 옆에 채광창이 길쭉하게 있었다. 계단에는 후방 경계를 하며 대기하던 대원이 두 명 더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내 어깨에 붙은 패치를 확인하고 나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홀스터에서 권총을 꺼내 약실을 확인하고는 나에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권총을 받았다. 그의 손은 꽤 작아서 총을 주다가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와 함께 주변을 경계하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층계참을 지나 한 번에 두 세 단 씩을 건넜다. 난간을 잡고 돌아 내려가며 먹먹하게 울리는 총성에 입술을 떨었다. 혹여나 적이 더 나타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방아쇠에 손을 걸고 좌우를 계속 살폈다. 폐허와 잔해로 깔린 거리는 쥐죽은듯이 조용했다. 음산한 바람이 귓가를 지났다. 우리 앞으로 내가 타고 온 것과 비슷하게 생긴 검은 승합차가 미끄러지며 멈춰섰고, 바로 문이 드르륵 열렸다. 안에는 큰 헤드셋을 쓴, 정보 요원으로 보이는 대원이 총을 밖으로 겨누며 경계하고 있었다. 나를 데리고 온 대원이 승합차에 올라 탄 뒤 내게 손을 건넸다. 나는 장갑 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나는 재

빨리 그의 손을 당겨 승합차에 오르려고 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내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그는 급히 허리를 뒤로 젖혀 나를 차 안으로 집어 넣었다. 승합차 문이 곧바로 닫혔고, 승합차가 출발했다. 이미 허리에 힘이 풀린 나는 그대로 좌석, 아니 그의 위로 엎어졌다.

“으, 야... 나와봐....”

나는 사과하며 무거운 몸을 서둘러 좌석 쿠션으로 밀어냈다. 그 역시 한국인이었다.

“죄, 죄송합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잠깐 보더니, 몸을 일으킨 후 복면을 풀고 가쁜 숨을 내쉬며 본부에 무전을 넣었다. 나는 그의 옆자리에 자세를 고쳐 잡고 앉아 마침내 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QRF Epsilon Six to TacComms, package secure.” (QRF 입실론 6이 본부에게, 목표 확보.)

웅얼거리는 소리로 무전기에서 답이 들렸다.

“Copy, good work. PID and report.” (확인, 잘 했다. 신원 확인 후 보고하라.)

“Roger, circling around the building until alpha team returns.” (알겠다, 알파 팀이 돌아오기 전까지 건물 주위를 돌겠다.)

그리고는 뺨 돌아보며 나에게 물었다.

“어, 너 누구야?”

“...네?”

아주 잠깐동안 정적이 흘렀다.

“...신원 보고 하라고.”

나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떨리는 입술로 힘겹게 입을 떼었다.

“아, 이-이번 작전에 새턴 3으로 파견되- 된 2부서 파울입니다.”

그는 조용히 코웃음하는 듯 하더니 되물었다.

“코드명이 파울?”

“예 그, 그렇습니다.”

“새턴 6는? 네 분대장.”

“...죽..죽었..”

“그럼 나머지는?”

나는 소리 없이 멍한 얼굴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도무지 진정이 안 되었다.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크게 꺾었다. 블록을 크게 돌아 움직이며 교전 팀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는 그는 다시 본부에 무전을 넣었다.

“Saturn 1 KIA. I repeat, Saturn 1 KIA. Secured personnel is Saturn 3, code name is Paul.” (새턴 1 전사. 반복한다, 새턴 1 작전 중 사망. 확보 인원은 새턴 3, 코드명 파울.)

본부는 다른 대원들의 생사는 궁금하지 않은 것인가? ‘목표 인원’은 또 뭐지? 내가 ‘목표 인원’인가?

“Copy, make EXFIL ASAP.” (알겠다, 신속히 탈출하라.)

“Wilco.” (알겠다.)

그는 채널을 바꾸어 다시 무전을 넣었다. 승합차가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꺾었다. 나는 문득 그를 살짝 돌아보았다. 그의 앉은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았다. 얼굴은 뭔가 차가운 면이 있었다. 건물 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공허해 보였다.

“Epsilon 3, you engaging yet?” (입실론 3, 아직 교전 중인가?)

“Affirmative, 1 hostile left.” (그렇다, 1명 남았다.)

“We need to leave ASAP.” (최대한 빨리 나가야 한다.)

“Roger, but the ROE should be follo-” (그래, 하지만 ROE는 지켜야-)

“Epsilon 3, come in?” (입실론 3, 들리나?)

“He’s down. We got him, ETA?” (사살 완료했다. 도착 시간은?)

“1 minute 30.” (1분 30초.)

“Copy, will leave after quick SE.” (확인, 빠른 SE 후 퇴출하겠다.)

적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말을 들으니 약간의 안도감이 몸을 저리게 했다. 승합차는 속도를 조금 늦춘 채로 앞의 교차로로 향했다. 나는 멍청하게 앞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었다. 오늘 새벽 동안 있었던 일이 벌써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다. 밤에 하얗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로 날던 나방들, 어디

선가 튀어나온 러시아 놈들, 그리고 피를 머금은 동료들의 시체. 분대장의 꺼져 가는 마지막 눈빛. 승합차가 마지막으로 모퉁이를 돌아 다시 건물로 돌아왔다. 건물 정문 밖으로 QRF 대원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총을 보니 정신이 다시 돌아온 나는 혹시 적이 더 올까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돌연 망상에서 깨어나 승합차 뒷창문을 보았다. 그때, 큰 폭발음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좌석으로 처박혔다.

과앙!

고개를 들어 폭발음이 들린 건물 쪽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뿜뿜하게 깨진 통유리 창문 밖으로 퍼져 나왔다. 불길이 솟아 오르고 있었다. 정문에서 전투 대원들이 나오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승합차 문이 열렸고, 대원들이 올라탔다. 승합차가 조금 아래로 내려 앉으며 서스펜션의 탄성이 좌석으로 전해졌다. 대원들이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들렸다. 승합차는 문이 채 닫히기 전에 출발하여 빠르게 작전 지역을 빠져나갔다. 정말로 끝이었다.

“TacComms, we are on the move from the AO. Out.” (본부, 작전 지역에서 이동하겠다. 교신 종료.)

“제대로 폭파했지?”

운전석에 앉은 대원이 전투 대원에게 물었다. 나를 데리고 온 대원을 포함해 전투 대원은 세 명은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동유럽 쪽 사람으로 보였다.

“응, 서버실이란 사무실 위주로. 적들 시체는 다 찍었고, 새턴 시체는 모두 처리 했어.”

“음, 개들은 누구야?”

나를 데리고 온 대원이 물었다.

“몰라, 5.45 AK이긴 하던데. 패치나 신분증 같은 건 없어.”

“으응... 애송이, 아는 거 있어?”

나를 데리고 온 대원은 내 긴장을 풀어 주려는지 나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고맙기는 하나 나는 오히려 부담스러움을 느꼈다. 겨우 입을 떼어 대답했다.

“..아-일단 러시아 놈들이긴 합니다. 러시아어...를 했습니다.”

“그럼 정부 쪽인가?”

“모르지, 군만 아니면 된 거지. 그나저나 달랑 한 명 남을 때까지 지원 요청
안치고 뭐한거냐?”

다른 대원이 통명스러운 말투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왔다.
우리는 계속 무전을 했는데, 자기들이 늦게 도착한 거면서.

“우리가 못 미더운가? 바로 옆 블록에서 돌고 있는데.”

잠깐, 뭐라고?

“하도 애송이들이라 무전 치는 방법도 모르나 보지.”

윤전수가 귀찮다는 듯이 한 마디 붙였다. 그럼 우리 무전은 닿지 않았다는
것인가?

“너무 그렇게 말하진 말고.”

“새턴 분대장 시신은?”

정보 요원이 물었다.

“끔찍하던데. 현장 사진은 다 찍어 왔어. 러시아 놈들이 갖고 있던 USB도...”

전투원 중 하나가 USB를 치켜들어 보였다.

“저기. 파울이라고?”

나를 데리고 나온 대원이 말을 걸었다. 나는 혼란스러워 여러 생각을 하다 말고 급히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칼리라고 불러. 조만간 또 만나게 될 거야.”

“예, 칼리.”

칼리는 살짝 웃어 보이더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금까지 나를 조롱하듯 떠들어던 대원은 말 없이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머지 대원들은 계속해서 주위를 살폈다. 나는 혼란으로 머리가 하얗게 번졌다. 도로 옆에는 붉은색 아치형 표지판이 지옥으로부터의 첫 탈출을 커다란 노란 글씨로 배웅했다.

ИРПИНЬ

짧은 시간 안에 너무도 많은 정보와 의문이 나를 흔들어 놓았다. 지평선 너머로 새빨간 태양이 떠올랐다. 우리 차는 시내 외곽으로 나가 오른쪽 방향으로 크게 틀었다. 이미 부서져 잿더미가 됐지만, 옛날엔 가정집과 소박한 아파트가 아름답게 서 있었을 것 같은 골목을 지나, 점차 집은 줄고 풀숲은 늘어

나는 길을 탔다. 아스팔트 길에 돌덩이가 쏠리는 소리가 났다. 불안할 정도로 좁은 길은 곧게만 앞으로 뻗어 나갔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본 것은 나무 밖에 없었다. 군데군데 새소리가 잠깐씩 칙칙한 분위기를 간질이는 듯했다.

이곳의 나무는 누렇게 새었지만 찰나의 녹음이 남아 있는 잎을 흔들어 전쟁에 삭아가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늦가을, 조금이라도 남은 푸른빛을 지켜 내려는 듯 이는 바람에 몸을 고통스럽게 흔들었다. 회색인지 푸른색인지 모를 아침 하늘에는 이슬 대신 어두운 연기 줄기들이 드리워 불길함을 번지게 하였다. 운전수가 말했다.

“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준비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몰랐다. 멀리서부터 외로운 파란색 표지판이 차로 다가오더니, 다시 시내가 나왔다.

← БУЧА БОРОДЯНКА ↗

승합차는 시내를 누비며 좌로 우로 방향을 꺾었다. 멀리에, 콘크리트가 다 까진 거대한 직육면체의 건물 뒤로 외롭게 서있는 타워 크레인이 보였다. 다시 셋길로 빠져 곧은 길을 갔다. 또 나무와 수풀만이 차에 스쳤다. 먼치에서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먹먹하게 났다. 긴장이 풀리자 졸음이 몰려왔다. 마침 칼리가 말했다.

“우린 폴란드로 가. 곧 비행기를 타고 국경으로 갈거야. 거기서 다시 본 팀 이랑 합류할거야.”

그 힘 빠진 목소리를 듣고 있자 긴장이 풀리며 잠이 쏟아졌다. 칼리의 목소리는 여리지만 어딘가 단단한 부분이 있다고 문득 생각했다. 닫히는 눈꺼풀

사이로 창밖을 보았다. 어느새 하늘은 연파란 색으로 물들어 귀국길은 순탄
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IV.

전망대

집에서 쫓겨났다. 나가라는 고함이 귓속뼈에 생생한 것 같았다. 늦은 밤공기가 차가웠다. 이제 쫓겨나는 건 일상이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미칠 것 같다. 자존심 싸움하듯 버티다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항상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내가 싫었다.

세상은 나에게만 박했다. 친구들, 미용실 할머니들, 슈퍼 앞에서 바둑장기 두는 아저씨들, 하다 못해 뉴스에 나오는 세상까지, 아무 걱정 없이 즐거워 보였다. 내 친구 놈들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웃고 떠들기를 그만 두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재수가 없는건지, 안 좋은 일만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책상 다리에 발가락 찢는 것 같은 사소한 일부터, 누명 써서 교무실에 불러간 것, 누군가 옆지르고 간 국물에 옷 적신 것. 수행평가도 답 밀려 써서 망치질 않나, 집에서는 이런저런 트집잡아 설 새 없이 혼나고 얻어 맞질 않나. 별거 아닌 일들도 한두 번이어야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지, 불운이 등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을 않는다.

나는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한다. 병신에 머저리라 뭘 하나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 학교 다닐 자격도 없다고 한다. 다른 애들은 의젓하고 건전한데 나는 왜 그러냐고 한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 알것도 같다. 굳이 탓을 하려면 누구 탓인지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을텐데.

내가 밥만 축내고 아무 쓸모 없다면 왜 데리고 있는건가? 친자에 대한 책임감? 위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랑?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닌 것 같다. 나는 가끔씩 개 짖는 소리와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큰 골목을 지나, 길을 따라 계속 걸어 올라갔다. 길이 점점 좁아졌다. 어떤 벽돌 집에서는 아기가 찢어지는 소리로 울었다. 어딘가에서 풀벌레가 꾸르륵거렸다. 나는 건물 사이로 난 계단을 올랐다. 시멘트로 씌워버린 회색 계단은 대충 만들었는지 높고 울퉁불퉁했다. 가로등불 주위로 날벌레들이 맴돌았다. 계단을 다 오르고 조금 트인 길을 걸었다.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을 때마다 가는 곳이 있었다. 거의 다 왔다. 아스팔트 길바닥에 일방통행이라고 표시된 페인트가 가로등불에 비쳤다. 오르막길 하나만 통과하면, 막다른 길에 난간만 대충 걸려 있는 좁은 공터가 나온다.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돌담벽 저 아래로 넓은 골목길이 지나간다. 여길 아는 친구들은 이곳을 전망대라고 불렀다.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자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달동네가 넓게 내려다보여서이다. 몇 년 전에 누군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뉴스에도 난 적이 있기 때문에 발길이 뜸한 곳이다.

나는 웬지 그곳에 올라 난간 아래 까마득한 골목을 내려다 보면 오싹하면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직접적인 위로는 되지 못하지만, 당장 멍청한 생각을 집어치우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도망가는 듯하다.

길을 오르고 올라 마침내 난간이 보이는 길목에 다다랐다. 마저 발길을 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다 녹슬어서 삭아가는 난간에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처녀 귀신인줄 알고 흠칫 놀랐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혈령한 면 셔츠 위에 교복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참으로 이질적인 차림이었다. 그는 계속 넘어질락 말락 휘청거리며 눈을 흘겼고, 앞머리가 눈물에 붙는 건지 자꾸 옆으로 쳐냈다. 꽤 오랫동안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던 그는 고개를 떨구어 아래쪽을 보더니 난간 위에 한쪽 다리를 걸치는 것이었다.

나는 항상 이곳에 죽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막상 난간 너머를 내려다 보면 다시 살 이유를 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 보고도 죽을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냥 보기에 도 연약하고 처량해 보였다. 근원 모를 동정심이 움텄다. 나는 잠깐동안 온갖 생각을 다 해 보았다. 달려가서 말려야 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무례하게 그의 삶에 참견하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혹시 다가가서 말렸더니 갑자기 칼을 맞는 것은 아닐지 하는 쓸데없는 망상을 하는 동안 그가 반대쪽 다리도 난간 너머로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을 멈추고 그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잠깐!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가 나를 휩 돌아봤다. 난간을 반쯤 넘어가다가 만 어정쩡한 자세로 동작을 멈춘 그는 잠시동안 멈칫했지만, 이내 급히 달려오는 나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어 보이며 말했다.

“...아, 경치가 좋아서요! 크흠...”

자기가 말하고도 어이가 없는지 그는 잠깐 고개를 돌리고 참지 못한 코웃음을 조용히 비쳤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자 붉은 눈시울에서 눈물이 주르륵 굴러나왔다. 나는 긴장이 풀린 것인지 어이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헛웃

음이 나왔다. 그는 손바닥으로 볼까지 내려온 눈물 방울을 닦아 내고는 크게 웃어댔다. 그가 웃으면서 몸을 흔드는데 뒤로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되었다.

“일단 위험하니까... 내려 오세요.”

“흐흐, 하아.... 뭐가 위험한데요?”

“거기 낭떠러진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내냐는 듯 작게 한숨 쉰 그는 매말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쪽도 죽으러 온 거 아니에요?”

“..네?”

나는 또 한 번 살기 위해 온 것인가, 아니면 죽기 위해 온 것인가? 그 전에, 서로 죽으러 온 상황에 농담이나 하고 있는 게 맞는건가? 그는 난간에서 폴짝 뛰어내려오며 말했다.

“전 죽으러 온 게 맞아요.”

“...저도 그건 알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다짜고짜 이름부터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왕 만난 거 좀 친해지자는 뜻인 듯했다. 나도 그의 인상이 나쁘지 않았기에 친하게 지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김...도준입니다.”

“되게 범생이? 같은 이름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려고 있으면 안 될텐데. 아, 몇 살?”

뭐 어쩌라는 거지. 일단 대답은 해 준다.

“열 일곱 살...”

“열 일곱이면 고1? 난 열 여덟 살인데! 반말 해도 되지? 말 놓는거다.”

“어? ㄴ..응....”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

왜 없겠나마는, 갑자기 자기 소개나 하고 있는 상황에 넌 왜 죽으러 왔나 같은 걸 물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너만 이름 알려주고 내꺼 모르는 건 억울하지 않아, 도.준.아?”

이름 물어보라는 소리였다.

“아, 음. 그, 이름은 뭐야?”

“강주은! 어... 누나라고 불러도 돼.”

“어, 응, ...누나.”

가만 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내게 틈을 주지 않았다.

“음, 너는 여기 왜 왔어?”

“...알잖아, 죽으려고 온 거 아니냐며.”

“그러니까.... 무슨 일로....”

“죽어버리면 슬퍼하긴 할까 싶어서? 막상 생각하려니까 이유가 없다.”

“너는, 음...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죽으려고 온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렇다. 그런데 나한테서 보이는 건가? 나는 어쩌면 올라오기 전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근처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봇대에 기대 앉아서 대화를 이어갔다. 조금 몽롱한 정신에 내 얘기를 풀어놓았다. 나는 내가 죽으러 온 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인정했다. 누나는 자기가 나를 껴뚫어 봤다고 좋아하더니, 내 얘기를 듣고 위로 비슷한 것도 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에 반응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누나 얘기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조금 놀라면서 정말 그런 거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나는 내내 그의 사연이 궁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잠시 하늘을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을 때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자체에 대한 얘기만 늘어놓았다. 그는 전망대 난간과 그 너머 야경이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앉고는 말했다.

“일로 와서 저기 먼 산이랑 도시를 봐봐. 평온하고 찬란해 보이지 않아? 그치만 우리 동네를 내려다 보면 구린내만 나거든.”

“응, 시내는 가보니까 실제로도 멋지고 평화로웠어.”

“살면서는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지만.... 우린 여기, 새까만 곳에만 잡혀 있어. 죽을 때 만이라도, 빛나는 도시의 불빛 같은 걸 꿈꾸면서 뛰어 내렸는데 달동네 구석에 머리가 처박혀서 죽을 생각을 하면..., 음. 여기서 죽긴 싫단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냥 아래를 내려다보면 죽기는 싫어지던데. 그냥 고소공포증인가?”

“네 말이 맞아. 고민해보니까 사실 다른 건 다 핑계였어. 안 아프게 죽고 싶은 거, 예쁘게 죽고 싶은 거, 죽으면 나도 편해질까, 찬란해질 수 있을까, 혹시 지옥이 더 무서운 거 아닐까 하는 거. 다 쓸 데 없는 생각이야. 그냥 죽는 게 무서운 거지.”

“그러면 안 죽으면 되잖아. 누나...는 왜 그렇게 죽고 싶다고 하는거야?”

“못 죽는 내가 죽이고 싶어서.”

“...근데, 그건 누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자 그는 내 머리에 손을 푹 얹더니 다른 손으로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똑똑하네.”

“뭐가?”

그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네 덕분에 오늘은 안 죽고 싶어졌어! ...너도 슬슬 가봐야하지 않아? 난 돌아갈 시간이 된 거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이런 거도 다 삶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처럼 느껴지네.”

“음, 나는 혼자 주저앉아 있을 시간을 누군가랑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도움이 됐는데.”

“나도 물론 그래..! 근데 현실로 돌아갔을 때, 이런 비관적인 말들이 나를 받쳐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는 크게 웃더니 나에게 물었다.

“아하하하, 그럼 이건 현실이 아닌거야?”

“아니, 물론 맞지만, 조금 꿈 같달까, 하하하. 내가 현실이라고 한 건...,
어.... 뭐 말인지 알지?”

“흐흐흠, 알지. 그래도 기분은 좀 좋아졌잖아.”

그렇다. 뿔 듯이 기쁘다거나, 후련한 기분은 아니다. 어딘가 풀 수 없는 무언가가 꽉 막혀서 가슴을 누르는 느낌이 남는다. 하지만 뭔가 고름을 조금이라도 뺀 것 같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응, 조금 살 거 같애.”

우리는 길을 걸어 내려가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종 서로를 한 번씩 돌아보고 다시 걸을 뿐이었다. 내가 좁은 시멘트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누나는 멈춰 서며 말했다.

“여기서 갈라지는구나. 잘 가, 조만간 또 만나게 될 거야.”

“어, 응. 잘 가.”

그는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계단 옆으로 난 작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조만간 또 만날 거라고? 나는 그가 맞고 지나간 붉은 가로등 빛을 잠깐 보다가 계단을 내려가 내가 있어야 할 구린내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Elevation

V.

이번이 처음 실전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삶의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지난 1년 간 주로 동유럽에서 조사나 감사, 프로젝트 팀 등과 동행하며 경호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었다. 때론 현금이나 귀중품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럴 때가 좀 더 위험했다. 하지만 정말로 죽을 뻔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늘 위협은 있었지만 실제로 총을 쏘야했던 상황은 손에 꼽는다. 그래서인지 점점 내가 받는 높은 연봉의 대가를 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어제, 나는 낯선 나라의 어느 회사 건물에서 그 대가를 지나치게도 확실히 실감했다. 운이 나빴더라면, 진입하는 순서가 달랐더라면, 찰나의 판단을 잘못 했더라면, 나는 다른 분대원들처럼 걸레짝처럼 남겨져 화염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한 편으로는 후회되지만 큰 위협에 따르는 막대한 보상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뒤늦게 노력해서 겨우 이뤄낸 것은 특전단 입대 뿐이었다. 짧은 경력이지만 꽤 힘든 훈련을 나는 모두 견뎌냈고,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었다. 경력이라고 할 것은 특전단 전역 밖에 없는 내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심지어 나를 받아준 회사는 WF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말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감수하는 것인지를 깨닫자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까지 총 잡는 일을 할 것인가?

나는 이곳의 다른 직원들보다 젊은 편이다. 전투원으로서의 비교적 빨리 군에서 나와서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돈을 좇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엇도 놓을 수 없다. 대개 고임금의 직업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야, 들어 와.”

칼리가 방 안에서 문 밖으로 머리만 내밀고 나를 불렀다. 어정쩡한 자세로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다. 에어컨 냄새가 어색했다. 방 안에는 간편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는 안락 의자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또 다른 유리 벽이 쳐져 있는 회의실이 있었다. 칼리가 회의실 문을 가리키며 그리로 향했다. 길고 윤이 나는 회의용 나무 탁상에는 탁자의 두께만큼이나 무거워 보이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 앉아 있었다. 칼리는 문을 열어주더니 따라 들어오지 않고 안쪽과 눈빛 교환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칼리를 돌아보았다. 그는 바깥에 있는 안락 의자에 풀썩 앉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며 고개를 가웃했다. 나는 칼리의 눈빛과 회의실 안의 무거운 분위기에 떠밀려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섰다. 들어가서 다시 돌아보니 칼리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Looks like you’ve gotten quite close already?” (벌써 꽤 가까워졌나 보군?)

흰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물었다. 신은 죽히 넘어 보였는데, 지나가면서 그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예사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역시 자리가 꽤 높았군. 나는 탁상 위에 놓인 그의 명패를 내려다 보았다. 본명은 없고 그의 코드네임만 적혀 있었다.

{ Jove }

아무리 가명이고 코드네임일 뿐이라도 그렇지 이름이 조브가 뭐야? 자기는 아주 젊어 보이고 개성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겠지. 아, 그런데 여기는 회의실이고 나는 취조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 차리고 대답부터 해야겠군.

“Sir? Ah, yes. I was shown some generous hospitality.” (예? 아, 네. 친절 한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Good, good... so you are the only survivor in this mission?” (그래, 그 래... 네가 이번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군?)

“Yes, sir.” (네, 그렇습니다.)

“Sit please.” (앉게.)

그는 손으로 하나 남은 빈 의자 가리키며 말했다. 미리 준비한 모양이다.

“I’m sorry for your loss. All Saturn elements were good men. Saturn 6 especially was invaluable...” (동료들 죽음은 유감이네. 새틴 분대원들은 훌륭한 부하였지. 특히 새틴 6는 귀중한 인재였는데...)

나는 동료들의 죽음에는 별 감정이 없다. 어차피 그 전날 작전을 준비하며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 그나마 경험이 많았던 분대장의 죽음에 놀랐을 뿐이

다. 같이 싸운 게 뭐라고 짧은 시간에 전우애가 생겼는지, 그의 죽음은 조금은 안타까웠다.

“We need your testimony. Unfortunately, Saturn 6’s action cam was hit, so we were unable to secure the engagement footage.” (네 증언이 필요하다. 하필이면 새턴 6의 액션캠이 피격되어서 교전 영상을 확보할 수가 없었네.)

결국은 분대장의 목숨보다 그가 남긴 영상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

“Describe the entire situation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would you.” (상황 전체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겠나?)

나는 코로 조용히, 그러나 큰 한숨을 내쉬고, 기억을 가다듬었다. 잠깐의 정적 후, 마침내 나는 생각하기도 싫은 잔인한 기억의 선율을 풀어 내놓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들어갈 때의 뭔가 이상했던 분위기, 야시경을 가진 러시아 국적의 적들, 동료 둘의 허무한 죽음과 분대장의 죽음, 내가 싸우고 살아 나온 방법까지 모두 얘기했다. 이야기를 하며 매끄럽게 마감된 거대한 호두나무 회의 탁자의 나뭇결을 보거나 각 참여자의 명패를 보았다. 이야기는 지루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살짝 메스꺼웠다. 흐리게 보안 처리가 된 창문으로 정오의 햇빛이 새어들어왔다. 나는 종종 잠시 말을 멈추고 그 햇빛을 마주 보기도 하였다.

마침내 이야기가 끝나자, 조브가 기대고 있던 허리를 펴고, 꼬고 있던 다리를 풀며 한숨을 쉬어 말했다.

“So, we have overlooked potential hostile contact, eh?” (우리가 잠재적인 적군 조우 가능성을 간과했군 그래?)

그러자 빨간 양복 자켓을 입은 프랑스 억양의 늙은 금발 여자가 말했다. 자기가 프랑스인인 것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듯 영어에 프랑스 억양을 섞어서 해댔다.

“The fact that the Russian contractors are involved? Not reassuring. They’re almost sûr, hired by the gouvernement..” (러시아 용병이 개입했다는 거? 그리 달갑지는 않네요. 거의 확실히, 정부 쪽에서 고용한 것 같네요.)

당연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네. 러시아 용병이고 뭐고 안전하다고 보고받은 바와 다른 상황에 나는 혼란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애써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따져 물었다.

“The ops briefing said we’re the only ones who know where the data was. Is our client trustworthy enough?” (작전 브리핑에서는 데이터의 위치를 아는 쪽은 우리밖에 없다고 했습시다만, 우리 클라이언트가 믿을만 한가요?)

흰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의 단발 여성이 나서서 대답했다.

“Paul, I’m sorry about the tragedy. But you know, the only intel we can rely on come from the client, sometimes. So, what happened to the data?” (파울, 비극적인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고객으로부터 오기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는 어떻게 됐나요?)

“Uhm... The Saturn elements couldn't obtain it, but the QRF might have. I'm not sure. You could ask them...?” (그게... 새턴 분대는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만, QRF가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나는 유리창 밖의 칼리와 그 옆의 일행을 고개와 어깨로 가리켰다. 칼리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랩탑 컴퓨터를 들여다보다가 자신에게 시선이 쏠렸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조브가 칼리에게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손짓을 해보이며 여자에게 말했다.

“Rachel, we'll talk about the data later.” (레이첼, 데이터 얘기는 따로 하도록 하지.)

레이첼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납득했다는 듯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Alright Paul, thanks for your cooperation, you are okay to go. We'll call you again.” (좋아 파울, 협조 고맙네. 나가도 좋다. 다시 부르도록 하지.)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때 조브가 나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Oh, Paul, you know you have to do the AAR, right?” (아, 파울, 사후 보고서 내야 하는거 알고 있겠지?)

“Yes, I'm on it, sir.” (네, 작성 중입니다.)

사후 보고서 따위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거짓말로 가볍게 넘긴 후, 나는 고개를 까딱 기울여 간단히 인사하고 유리문 밖으로 나왔다. 칼리가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들어가며 나에게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내가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보자 조브가 어서 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복도를 돌고 돌아 형광등 빛으로 가득 찬 여러 부서를 지나서 내 자리로 왔다.

나는 어제 여러 번 죽을 뻔 했고, 나머지 세 명은 죽을 뻔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죽어버렸는데, 자기들은 회의실에 둘러 앉아서 한 명씩 불러 가며 뻔하고 실 없는 소리나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못마땅했다. 나는 여러 부정적 감정을 곱씹으며 자리에 털썩 앉았다. 덜컥 하는 소리가 나며 의자가 뒤로 밀렸다. 나는 발뒤꿈치로 바닥을 밀어 내 의자를 책상 앞에 위치시키고 마우스를 획득 저어 컴퓨터를 깨웠다. 사후 보고서 양식을 연 뒤, 멍하게 커서를 본문 칸에 두고 작전 날짜를 넘패드로 쳐 넣었다. 그리고는 벌써 기억 나지 않는 작전 시작 시각을 확인하려고 손목 시계를 눈 앞으로 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진술은 다 들어놓고 사후 보고서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했다.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진술은 왜 들어봐? 물론 사후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했을 수도 있겠지. 그건 그렇다 치고, 당연히 써야 하는 AAR을 굳이 당부하는 이유는 또 뭘까? 내 말을 믿기 어려운가?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는 일단 쉬어야 했다. 의자에 등을 붙이고 허리를 뒤로 밀었다. 천장을 쳐다보고 있자니 어제의 일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도화지같은 머릿속의 가에서 가운데로 여러 생각이 멈추지 않고 솟아 오른다. 그것들에 대한 집중이 무너지고 점점 눈에 초점이 흐려질 즈음 배가 고팠다. 하지만 그보다는 졸린 것이 더 컸다. 꼬르륵 뒤틀리는 배는 무거운 피로에 눌러 침묵하는 듯했다....

그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툅 잡았다. 나는 벌떡 허리를 세우고, 의자를 뒤쪽으로 휙 돌렸다. 내 앞으로 청바지와 검은 후드 위에 방탄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얼굴 반쪽이 날아가 있었고 그 단면으로 체리 색 같이 붉은 피와 흰 뼈, 살점이 드문드문 보였다. 나는 놀라 자리에 얼어 붙었다. 그의 옷은 피투성이였다. 그는 왼손에 떨어져 나간 오른쪽 팔을 들고 나를 노려 보았다. 나는 그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내게로 한 발 더 다가온다. 내가 손을 뻗으며 다급히 말했다.

“알렉산더-”

그런데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알렉산더 옆에는 목 위부터 뼈가 갈라져 골수가 드러난 스티브가 있었다. 또 모자 챙으로 망가진 얼굴을 가린 경비원이 있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알렉산더는 들고 있던 팔을 스티브에게 건넌 뒤 짓이겨진 창자 줄기를 천천히 들어 보였다. 발굽을 들어보니 내 신발에 피가 묻어 있었다.

“아니, 이걸- 난 살아야 했어! 미안해...미안하단 말야.”

나는 휘청 쓰러졌다. 벽을 잡고 사무실 바닥을 기었다. 누군가가 문 밖에서 이리로 피하라고 손짓했다. 나는 안간 힘을 써 달려갔다. 몸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듯했다. 문 밖으로 계단통이 나 있다. 계단통에는 붉은 새벽 황혼 빛이 들어온다. 계단 끝에 칼리가 서 있다. 나는 칼리가 있는 층계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뒤에서 세 명이 걸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칼리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어 나에게 건넸다. 나는 서둘러 총을 낚아채 문을 향해 겨눴다. 그런

데 손에 총이 없었다. 나는 층계에 등을 베고 넘어져 있었다. 칼리가 계단 위에서 그의 흰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였다. 그리고 나에게 총을 겨누었다.

“칼리, 왜...”

총구의 미미한 광택이 노을에 빛난다. 그의 체격은 칼리가 아니었다. 그의 등으로 비치는 어두운 햇빛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코와 턱선이 드러났다. 그는 책상 밑에서 나를 노려본 러시아 놈이었다. 나는 두 손을 앞으로 들었다. 그가 내 앞으로 걸어 왔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나는 손바닥을 짚어 슬금슬금 뒤로 기었다. 돌담 벽에 등이 붙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야속한 벽을 보았다.

가을 바람이 쓸고 지나갔다. 건조하고 힘 없는 손이 내 볼을 만진다. 누나의 흰 긴 팔 셔츠에 주홍빛 노을이 비친다. 누나는 내 옆에 꿇어 앉은 채 왼팔로 내 어깨를 잡아 눌렀다. 내 등이 돌담 벽에 눌린다. 그가 얼굴을 내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스친다. 내가 두려워한 그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김도준...”

“누나..?”

그가 다시 내 옆에 앉아 있다. 그는 흐린 눈으로 나를 꿔뚫어 보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했잖아... 같이 죽어 준다며...”

“미안해. 몰랐어서, 미안해! 혼자 있게 해서-”

누나는 내 가슴팍에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타양-

나는 별떡 허리를 세우고, 눈을 떴다. 눈썹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입술까지 떨어졌다. 나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벌써 꿈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나를 보던 누나의 얼굴만이 내 초점을 싸고 돌았다. 하지만 누나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떠올릴 수 없었다. 명치가 세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컴퓨터 바탕화면만을 오랫동안 쳐다보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멍하게 앉아만 있었다.

—

“Oh, so everybody is here.” (오, 모두들 왔군.)

며칠 뒤 조브의 부름을 받고 간 회의실에는 이미 칼리와 다른 한국인이 하나 앉아 있었다. 나는 남은 자리 중 하나에 쭈뼛쭈뼛 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어색하게 쳐다보았다. 회의실은 작고 창문이 없었으며, 가운데 놓인 낮고 긴 유리 탁자 주위로 백화점 가구 코너에서 산 것 같은 알록달록한 색의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조브가 말했다.

“Say hello to your new team members. Paul and Kali, you know each other, so let me introduce Mikhail.” (자, 자네들은 이제 한 팀이다. 파울, 칼리, 서로는 잘 알테니 미하일을 소개하겠다.)

조브는 미하일을 슬쩍 보더니 우리를 보며 말했다.

“He is currently an intel analyst in TF 3-6, even though I don’t think you’d recognize him with his division.” (미하일은 현재 태스크포스 3-6에 있는 정보 분석가다. 소속을 알려주는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하일은 나에게 까딱 목례했다.

“Kali is involved in other operations, so Kali will only provide advice and support for the team.” (칼리는 다른 작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는 자문과 지원 정도만 맡기로 했다.)

칼리는 나와 미하일을 바라보며 ‘응, 그렇대’ 정도의 눈짓을 주었다.

“The rest members will be assigned differently for each operation. For now, you’re cooperating with them.” (나머지 인원은 작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배정될 것이다. 일단 이번에는 저들과 함께한다.)

조브는 늘어선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전투원들을 가리켰다. 저번에 회의실에 왔을 때 칼리와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목례했고, 그들 중 두세명이 고개를 끄덕하여 받아주었다. 확실히 칼리나 저 사람들은 나나 미하일보다는 위치가 꽤 높은 것 같았다.

조브가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I will message you soon, so watch your new phones.” (곧 문자할테니 새로 준 핸드폰이나 잘 보고 있도록.)

나와 미하일이 대답했다.

“Yes, sir.” (알겠습니다.)

“Oh, you should have a team name. How about Team Kimchi? Three Koreans in one team are rare in this field, you know.” (아, 팀 이름이 있어야지. 팀 김치는 어때? 한국인 3명이 한 팀에 있는 건 우리 업계에서는 드물잖아.)

정말 구수하고 시큼한 이름이군. 그렇게 재미있진 않은데, 외국인 입장에선 다르려나. 그때 미하일이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날 준비를 하며 말했다.

“Haha, I think its excellent!” (하하, 정말 좋은데요!)

나도 가만히 있기는 뭐해 격하게 동의하는 척 악센트 세계 넣어서 한 마디 붙였다.

“You’re right!” (그러게!)

문득 칼리를 보았다. 그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웃음짓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할 전투원들도 헛웃음을 비치며 하나 둘 일어나고 있었다.

“Alright, dismiss!” (좋아, 해산!)

조브는 딜킹 일어나 먼저 나갔다. 전투원들도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문을 나섰다. 나는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챙겼다. 미하일도 자기 물건을 챙겨 허리춤에 켜다. 그때 칼리가 우리를 불러세웠다.

“자, 모처럼 또 같이 일하게 됐는데 한 잔씩 해야겠지?”

조금 귀찮았지만 싫을 건 없었다. 미하일도 유쾌히 승낙했다.

“아이, 당연하죠, 금요일인데!”

“그럼 이따 7시에 회사 정문 앞에서 보자.”

칼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갔다. 나도 미하일에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미하일은 서둘러 따라 걸어왔지만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VI.

길을 가다 말고 주머니에 손을 뻗어 핸드폰을 켜 보았다. 시간은 오후 6시 50분, 노을이 서서히 죽어간다. 나는 붉은 햇빛이 드리우는 가로수 그림자 아래로 굳이 들어가서 걸었다. 내 그림자가 나뭇가지와 앞의 그림자에 가리는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나를 품어주던 그림자는 금방 스쳐지나가고 말았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뒤덮인 회사 건물의 회전문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문 앞 그늘에는 이미 미하일이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아스팔트 차도 위에 벽돌처럼 놓인 건널목을 따라 서둘러 길을 건너 그에게로 갔다. 미하일이 내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나는 되받아 흔들어 주고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걸어가면서 뭐라고 해야할지 잠깐의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미하일, 일찍 나왔네요?”

“아니요,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다행이군요?”

나는 짓궂은 농담을 했다는 듯 웃어 보였다. 미하일도 피식 웃더니 고개를 돌려 해를 보았다. 나도 해를 보았다. 점점 붉고 어두워져 가는 하늘을 보며 잠시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분위기가 좀 거북해서 일 얘기로 말을 걸었다.

“혹시 뭐 하다 오셨어요?”

“아, 저요? 집에서 쉬다 왔죠.”

“... 아, 아니, 원래 하던 업무가 뭐였냐는 거죠.”

“아하하, 죄송해요.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정보나 긁어모으다 왔죠. 대충 OSINT 파는 일 같은 거... 아시죠? 그런거...”

“저도 요즘 일거리가 없네요. 이제 좀 생기려나 봐요.”

“세상은 난리던데...”

“그러게요...”

찬 밤바람이 내 얼굴을 쓸고 지나갔다.

“헛, 다들 일찍 와 계시는구만!”

어디서 불쑥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칼리가 우리 뒤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내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사이 미하일이 먼저 인사했다.

“어! 안녕하세요?”

나도 서둘러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그렇게 깍듯이 안 해도 돼 ”

나는 미하일보다는 조금 더 오래 봤지만 그래도 만난 지 하루 이틀 된 상사에게 편하게 한다는 것은 좀 웃겼다. 아마도 우리가 한국인이라 편의를 봐 주

는 것 같았다. 나는 입가에 웃음만 살짝 띄고 칼리의 표정을 살폈다. 칼리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잠시동안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미하일이 먼저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하하, 네..”

“음..... 좋아! 그럼 갈까? 내가 가까운 데 알아봐 왔어. 열다섯 블럭 정도만 가면 돼.”

열다섯 블럭이면 1 마일 쯤인가? 꽤 먼 것 같은데. 나는 미하일의 눈치를 봤다. 미하일은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때 칼리가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에이,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자는 거지.”

그의 말과 눈이 나를 겨냥하는 것 같아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흠....”

그는 왼팔을 위로 뻗으며 말했다.

“그럼 출발!”

우리는 인도를 따라 관목을 스쳐가며 걷기 시작했다. 이제 해는 조금의 빛만 비추고, 길에 늘어선 가로등이 켜졌다. 난간 너머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우리에게로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나는 잠깐동안 서로 조금씩은 다른 차들을 보며 걸었다. 조금 젖은 것 같은 도로 위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잔잔하게 쉬익 소리가 났다. 칼리가 물었다.

“아까 둘이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나는 대답을 하기 위해 입을 열며 그를 돌아보다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순간 눈동자를 피했다. 칼리도 마찬가지로 눈동자를 깔아 내리는 것이 찰나에 보였다. 나는 원래 하려던 말을 했다.

“그냥, 서로 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 얘기....”

미하일이 말했다.

“아직 파울 씨 답변은 듣지 못했는데요.”

“아하... 내가 방해한 거구나.”

“아 그런건 아니구요,”

“오, 누구누구 씨 듣기 좋다. 호칭은 이걸로 통일?”

미하일이 먼저 대답했다.

“좋아요-.”

나도 따라서 대답했다.

“좋습니다.”

칼리가 목소리를 쭉 빼며 능청스레 물었다.

“그래, 우리 파울 씨는 뭐 하다 왔는가”

“음... 주로 로우 리스크 임무에서 경호원 겸, 전투원 겸, 정보 수집 겸... 뭐 그런 일 했죠. 요즘은 일이 없다가 갑자기 죽을 뻔 했어요.”

미하일이 놀란 듯 쳐다보았다.

“죽을 뻔...?”

칼리가 목소리를 푹 낮추고 설명했다.

“아, 조브가 너한테 안 알려줬구나. 있잖아, 새턴 팀 우크라이나에서 몰살당한 거.”

“네..?”

내가 대충 설명하려고 입을 뗐다. 하지만 뭐라고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아, 그-”

미하일은 못 알아듣는 눈치였다. 칼리가 계속 말했다.

“새턴 다 죽은 거 들어본 적 없어?”

“아! 소문 난 건 들어봤어요...”

“거기서 유일한 생존자가 애야.”

“어....”

그때의 상황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안 좋아졌지만 동시에 인정 받는다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다.

“그런거 막 말해도 되는 거예요?”

칼리가 기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발랄하게 말했다.

“뭐 어때, 어차피 이제 한 팀인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텐데.

“아, 그런가요?”

내가 되묻자 미하일이 조용히 웃었다.

죽을뻔한 일이 있었어도 타지에서 드문 한국인들 만나서 팀이라고 존대받고 내가 겪은 일도 동료들 입에 오르내리니 뭔가 신기하면서 위안이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돌아보니 주변 거리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발목에 피로한 조임이 조금씩 왔다. 힘들지는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이 은근히 즐거워서, 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잠깐 생각했다. 무언가 본능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과 있으면 직장 동료가 아니라 친구들과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느꼈던 듯하다. 얘기가 끊기자 칼리가 다른 주제를 제시했다.

“가서 술은 뭐 먹을거야?”

나는 사실 술을 잘 먹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저는 맥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칼리가 놀라는 척을 하며 비꼬았다.

“오호오... 바 가는데 맥주를 마시겠다!”

미하일이 놀라 물었다.

“네? 바요? 칵테일바??”

“제가 술집 찾아왔다고 말 하지 않았습니까아?”

이 양반이 벌써 건망증이 오시나... 나는 은근히 통명스럽게 한 마디 쏘았다.

“칵테일바라고는 안 했었는데요-.”

칼리가 별 상관 안 한다는듯 웃으며 받았다.

“아, 그래?”

...말 안 한 거 자기도 알고 있었구만.

미하일이 말했다.

“그러면 저는 다이키리나 한 잔 하겠습니까?”

“오..”

“새콤달콤한게 맛있더라구요. 칼리 씨는 뭐 좋아하세요?”

“난... 난 그냥 올드 패션드가 좋더라..”

갑자기 나만 모르는 말들이 귓가에서 돌아다녔다. 들뜬 기분 가운데 조금의 소외감이 들기 시작했다. 차고 습한 바람이 옷느라 일그러진 얼굴이 식혔다. 칼리가 내 얼굴을 슬쩍 봤다. 대충 내 상황을 눈치챘는지 미하일이 말을 걸었다.

“그리고보니 파울 씨는 뭐 드실거예요?”

“아, 마셔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술에 대해 잘 아세요?”

미하일은 살짝 미안하다는 말투로 말했다.

“어... 그러게요... 어찌다보니...?”

“그냥... 많이 마셨으니까....”

칼리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다시 입을 열었다.

“어! 여기야, 여기!”

우리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거대한 호텔 건물 앞이었다. 아마도 여기가 휴스턴 다운타운에서는 가장 큰 호텔일 듯 했다. 우리는 호텔 건물 1층에 붙어 있는 스타벅스 옆을 지나 정문 앞으로 왔다. 칼리는 보란듯이 회전문을 향해 직진했다. 우리 옆으로 짐을 내리는 차들과 검은 반팔을 입은 호텔리어들이 지나갔다. 나와 미하일은 얼떨결에 칼리를 따라갔다. 나는 누르고 있던 한 마디를 던졌다.

“저기요, 여기는 제가 상상한 술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칼리는 가볍게 무시하고 걸음을 땀다.

“자, 그럼 입장 ”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피부를 때렸다. 짙고 옅은 갈색의 대리석 바닥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갑자기 나를 감싸는 호화스러운 풍경에 압도되는 듯했다.

“여기에 로비 바가 있어.”

“근데 이런 데 막 와도 되는 거예요?”

“안 될거 뭐 있어? 물론 나도 처음 올 때는 좀- 뭐랄까... 압도...됐지만?”

나는 커다란 화분 옆에서 있는 쇠 표지판을 흘끔 쳐다보았다.

Hilton HONORS

미하일은 4성 호텔의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호화로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없는 것 같았다.

“술만 좋으면 됐죠, 뭐.”

힐튼 호텔과 관련된 잡생각이 막 떠오르려고 하는 찰나, 칼리가 나를 돌아 보며 말했다.

“그래, 우리 너무 촌티난다, 그치?”

“저는 서울 촌놈이라...”

“...나도...”

우리는 그를 따라 로비 바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눈길을 끈 것은 형형색색의 수많은 술병이 놓인 바와 그 뒤의 벽에 판 박힌 거대한 황금색 세계지도였다. 지도의 바다는 고흐의 어떤 그림처럼 빙글빙글 소용돌이치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수많은 술병이 올려져 있는 카운터를 지나, 바 안으로 깊숙히 들어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흰 대리석 계단 아래로 가서 동그란 기둥 옆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칼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가 아늑하고 분위기 있네.”

미하일 역시 주변을 보며 맞장구쳤다.

“그러게요,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나는 허리를 등받이에 대고 잠시 천장을 쳐다보았다. 다른 자리 사람들이 간간히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났다. 문득 우리 머리 위로 비스듬히 지나가는 흰

대리석 계단이 보였다. 나는 분위기도 어색하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한 마디 하기로 했다.

“갑자기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조건 죽겠는데요?”

칼리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아, 깔려 죽는 건 좀 슬픈가?”

이걸 받아줄 필요는 없는데. 나는 당황스러워서 짧게 웃었고 미하일도 뒤늦어 어색하게 따라 웃었다. 내가 말했다.

“웨이터 오기 전에 술이나 정하시죠...”

미하일이 웃으며 뭔가 분위기를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칼리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위기를 오히려 이상하게 만든 건 미하일이라고 생각했다.

“하하하! 그래야죠, 음... 그러면 저는 아까 정한대로 다이키리로...”

칼리는 양 손등으로 턱을 괴고 테이블 위에 세워진 메뉴 안내판을 쳐다보다가 미하일의 말이 끝나자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는 사실 칵테일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릴 말을 찾았다.

“...음... 그냥 칼리 씨랑 같은 걸로 할게요.”

“어허. 아까부터 자꾸?”

칼리는 양 손을 가슴 아래로 모으고 어절에 맞춰 말했다.

“음. 자, 우리 파울 씨에게 맥일 술 정하기, 시작!”

메뉴판에 최면이라도 걸렸나, 갑자기 사람이 분위기가 달라졌네. 미하일로 지금만큼은 반응하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하하하...”

칼리는 냅킨 휴지를 말아 쥐어 마이크를 잡은 시늉을 하고 미하일에게 겨눴다.

“미하일 씨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 음..... 그 혹시 파울 씨 술이 처음이신가요?”

“음.. 완전 처음은 아니고 가끔 맥주정도 마셨습니다.”

“맨날 맥주야?”

“아뇨 그건 아니고... 바에 온게 처음이라...”

“그렇다면 코스모폴리탄 어때요?”

“...음! 괜찮다!”

“그..그게 뭐죠..? 전 우주인 하기 싫은데요....”

“하하하, 파울 진짜 이런데 안 와봤구나?”

“하긴, 파울 씨가 안 놀러 다닐 인상이긴 하죠.”

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와 비슷했지만, 막상 두 명이 달라붙어서 나한테만 말을 거니 이것도 좀 머쓱하고 부담스러웠다. 일단 다들 웃으니까 나도 웃었다.

“일부러 안 온 건 아니데요....”

“앞으로 자주 오면 되지! 내가 한, 음... 세 번 줌?은 사줄게! ㅎㅎ...”

“아이고, 그러면 감사히 마셔야죠-”

메뉴판을 들여다 보던 미하일이 내게 물었다.

“파울 ...씨, 단 거, 탄산 든 거 못 드시거나 그러진 않죠?”

“어.. 뭐 네, 딱히 없어요.”

“그러면 바로 주문해도 될 것 같네요. 칼리 씨는 아까 그걸로 하실래요?”

“응, 고마워.”

미하일이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거꾸로 걸린 와인잔을 정리하던 웨이터 쪽을 바라보았다. 웨이터가 정리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미하일의 시선을 느끼고 이쪽을 돌아보았다. 미하일이 용건이 있다는 눈빛을 보내자 웨이터가 이리로 걸어왔다.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미하일이 대답했다.

“Oh, I would like to order.” (아, 주문하겠습니다.)

“Yes sir,” (말씀하세요.)

“I'd like a Cosmopolitan, a Daiquiri, and an Old Fashioned please. For our table.” (이 자리에 코스모폴리탄 하나, 다йки리 하나, 올드 패션드 하나 주세요.)

“A Cosmopolitan, a Daiquiri and an Old Fashioned.” (코스모폴리탄 하나, 다이키리 하나, 올드 패션드 하나요.)

“Yes, that’s correct.” (네, 맞습니다.)

“Would you like them to be served at once?” (한 번에 가져다 드릴까요?)

“Yes, pleas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하더니 받아적은 주문서를 가지고 갔다.

“오, 영어 잘 하는데?”

영어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새삼스럽게 칭찬하는 칼리가 웃겨서 미하일과 나는 꽤 크게 웃었다. 칼리도 자기가 말하고도 웃긴지 같이 웃었다. 웃음이 가라앉자 우리는 서로 슬쩍 무슨 말을 할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미하일이 말을 꺼냈다.

“아, 그래서 저희 업무는 뭔가요?”

칼리가 반갑다는 듯이 대답했다.

“음! 아마도 이번 새턴 일의 연장선이 될 것 같아.”

내가 물었다.

“그럼 또 동유럽 쪽으로 가나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 근데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 언제가 될지는 나도 아직 잘 모르겠네.”

“.....”

칼리가 내 어깨를 짊 치며 웃었다.

“에이 걱정 마, 거긴 다시 안 가.”

이 양반아, 높은 확률로 죽을 수 있다는 게 문제지, 거기를 다시 가고 말고
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하, 걱정 마. 죽게는 안 놔둬.”

미하일은 우리 말이 끝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웃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칼
리의 말이 가볍게 던진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실 없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따라 웃지 못했다. 잠깐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가볍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음음! 다들 경험은 있어?”

미하일이 대답했다.

“좀 위험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총을 쏘 일이 있던 적은 없어요.”

내 경험은 말 안 해도 다들 알 것 같아 웃고만 있었다.

“그럼 미하일 씨가 썰 좀 풀어봐”

미하일은 잠시 생각하다가 무언가 하나 떠올린 듯했다.

“음.... 아! 좀 된 일인데요, 아프리카 얘기에요.”

나는 아프리카나 중동 쪽이 열악하다고 들어서 그 쪽으로는 일부러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살짝 궁금하기도 했다. 그것보다도, 칼리가 자꾸 내 눈치를 살피길래 나도 반응을 안할 수가 없었다.

“오, 재미있겠는데요?”

미하일은 우간다에 정보 분석 업무로 갔다가 민병대 간 내전에 휘말려 팀과 흩어진 얘기를 했다. 그도 나처럼 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소련제 7.62탄이 머리 옆으로 날아갈 때 내는 묵직한 채찍소리가 인상 깊었던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난리를 부렸다. 그는 잠시 총격이 멈춘 틈을 타 아무 차나 얹어 타고 도망갔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새서 꼬박 이틀을 걷고 현지에서 동차를 히치하이킹해 겨우 HQ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 한 번은 수단으로 갔는데, 현지 인력과 조율이 안 돼서 차와 총도 제공받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자기도 했다고 하며 울분을 토했다.

물론 맨날 저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역시 적도 아래로 안 내려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나와 마찬가지로 외딴 곳에서 구르고 다닌 미하일과 조금의 동질감이 들기 시작했다. 칼리는 뭐가 그렇게 웃긴지 입을 가리고 계속 웃어댔다.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웃고 한 마디씩 반응해 주며 이야기를 들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그때 웨이터가 음료 세 잔을 들고 왔고, 미하일이 어서 한 잔씩 받아 우리에게 전했다.

“Oh,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나는 레몬이 배배 꼬인 채로 술에 발만 담그고 있는 차가운 잔을 받아 탁자에 놓았다. 잔에는 몽환적으로 연한 선홍색 음료가 들어 있었다. 나는 슬쩍 다른 잔들도 보았다. 미하일 것은 아주 연하게 노랑고 라임이 곱혀 있었고 칼리 건 그냥 갈색 위스키 색이었다.

“Do you need anything else?” (혹시 다른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No, I’m fine, thank you.”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잘 하는데- 푸흠...”

“그거 아까 써먹었잖아요.”

별로 재미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았다. 우리는 또 서로 숨죽여 한참 웃었다. 미하일이 아직 웃음기가 가시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파울 씨, 우주의 맛이 어떻게 한 번 마셔 보세요.”

“아, 네, 하하.. 그럼, 먼저...”

“어! 어- 마셔 마셔.”

나는 차가운 잔의 다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감싸 올려 입으로 가져다 댔다. 입술에 시원한 느낌이 저릿하게 왔다. 맛은 은근 기대했던 것처럼 새콤달콤하지는 않았다. 청량하고 향긋하면서도 조금 씹쓸한 샘물을 마시는 기분이었다. 술이라는 맛도 냄새도 심하지 않아서 좋았다.

“이거 괜찮은데요.”

칼리가 웃어 보이며 말했다.

“다행이네.”

미하일은 우쭐한 척 엄지를 자기를 향해 치켜세웠다.

“하하하, 제 축이 어떻습니까!”

칼리가 치켜세우며 받아줬다.

“좀 많이 마셔 봤나본데?”

“각테일이 취미라서요.”

미하일은 웃으며 대답을 마치고 자기 잔을 한 모금 기울였다. 이제 내게 질문이 올 차례라는 것을 알아채고 입에다가 술을 넣어 질문을 피하려는 순간 칼리가 물었다. 조금 더 빨리 판단할걸 그랬다.

“괜찮네. 그럼 파울 씨는 취미가 뭐야?”

굳이 말하자면 글 쓰는 것, 영화 보는 것 정도가 있었다. 나는 그 중 무얼 말할까 고민하다가, 나에 대한 얘기로 화제가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대충 둘러대기로 했다.

“저는 딱히 없어요... 그냥 침대에서 뒹굴면서 아무 것도 안하면 그게 여가죠.”

“오... 나도...! 사실 따로 뭘 하기가 피곤해.”

미하일은 술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맞장구를 쳤다.

“저도 평소에는 그래요. 놀려고 해도 힘이 나야죠, 하하.”

무언가 대화를 계속 진행시키려고 어색하게 노력하는 분위기가 오갔지만, 그러면서도 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낼 수 있었다. 슬슬 아이스브레이킹은 끝나가는 듯했다.

나는 대화를 계속하며 두 사람이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관찰했다. 미하일은 말 하는 중간중간 한 모금씩 마셔서 잔을 비교적 빨리 비웠다. 칼리는 처음에 한두 모금 마시고는 다시 잔을 드는 모습을 못 본 것 같다. 나도 내 술 맛이 나쁘지 않아서 꽤 자주 잔을 들었다. 내 것은 맛은 맑고 술 냄새도 별로 안 나서 순한 줄 알았는데 한 잔 마시니 슬슬 취기라고 할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하일이 떠들고 칼리가 이렇게 저렇게 분위기를 만들자 나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어 결국 한 잔을 더 시키게 되었다.

칼리는 내가 술을 잘 하는가보다며 치켜 세웠다. 미하일은 다음으로 ‘잭 로즈’를 추천했다. 나는 그저 받아들였다. 미하일은 자기가 뭔가를 보여준다면 무슨 아이스티를 시켰다. 술집에서도 아이스티를 파는지는 처음 알았다. 칼리는 술 안 먹고 아이스티나 시키냐고 미하일을 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하일의 간이 센가보다고 놀라워했다.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몇 분 전부터 참고 있던 소변을 보러 잠시 화장실에 갔다. 들뜬 것이 잠시 가라앉으며 온몸에 약간의 찌릿함이 뻗어 나갔다. 미하일과 칼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은근히 호감이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문득 궁금해져 거울을 한번 스쳐 보고는, 몽롱한 몸을 이끌고 자리로 돌아갔다.

슬슬 늦저녁이 되며 사람들이 로비 바에 하나 둘 들어와 곧 붐비기 시작했고, 우리도 그 웅성웅성하면서 잔잔한 공기에 따라 무르익은 분위기를 타고

조금 편히 얘기를 하는 듯 했다. 나도 이제 그냥 웃고 즐기고 넘어가기로 했다. 미하일이 추가로 시킨 건 아이스티가 아니라 또 다른 술이었다. 그가 내게 추천해 준 잭 로즈인가 하는 두 번째 술도 마찬가지로 술 냄새나 맛이 세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레몬인지 라임인지 새콤달콤한 맛이 좀 더 있었다. 나는 오히려 이런 게 좋아서 좀 열심히 마셨던 것 같다. 내가 평소에 술을 많이 안 한 것 뿐이지 나도 마시면 잘 마시는 것 같—.

VII.

여느 때처럼 누나는 해가 지는 초저녁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아 낙엽, 전신주, 아스팔트 바닥, 그리고 그를 천천히 번갈아가며 봤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듯했다. 나는 나쁘지 않았지만, 은근히 드는 생각은, 누나도 이 상황을 좋아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화제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말을 건네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라고 말할지 정한 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입은 열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려는 찰나 누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행복은 뭘까?”

누나는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본다.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우리도 좀 평범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건 나도 궁금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싫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을 깨달았다. 범위를 좁히기 위해 행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 행복이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끝 없이 돌아왔다. 누나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행복은 찾는 걸까? 내가 행복을 찾을 줄 몰라서 행복하지 않은 걸까?”

나는 누나가 비판해주길 원했는지, 평소 귀 아프게 들던 말을 서슴 없이 꺼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라는데...”

생각해 보니 뭔가 말이 되지 않았다. 매일을 불우하게 사는 대륙 건너편 사람들이 불행한가? 몸 아픈 사람만 불행한가? 그들보다 내가 사정이 낫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 또, 나는 몸에 별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들의 불행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다. 무엇을 하던간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그저 복에 겨운 소리인가? 내가 호소할 수 있는 바도 조금은 있는건가?

누나는 내 말을 듣고 또 한 번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단 말야.”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있지, 행복한지 모르는 게 가장 불행한 거래.”

누나 입에서도 이제 뻐한 소리가 나오는가 싶어서 잠깐 실망했다. 하지만 그는 땀을 들였다가 연성을 조금 올려 신나는 일이라도 있는 듯 말했다.

“근데 나는 안 행복한걸! 그치?”

“맞아.....”

“그래, 그 말 그대로 하자면 사실 행복한 줄 모르는 것과 불행한 건 구별할 수 없는거야.”

나는 살짝 놀랐다. 이 뻐한 소리에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걸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누나는 말을 계속하여 이 참신하고도 잔인하며 이기적인 생각이 옳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각인시켰다.

“남이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상관 없어. 남의 처지가 어떻든 난 상관 없다 구...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는데,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나는 확실히 설득되었다. 우리 둘이 담벼락 구석에 기대 앉아 있는 장면을 허공에서 내려다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시절에는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살면서 별 생각이란 게 생긴 지금도 저 주장은 반박할 수 없다. 생각은 자유니까.

내가 수긍한다.

“으음..”

그리고 누나는 다시 썰기를 박으며, 나를 위로하는 듯 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처지에서 불행하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

그는 그 특유의 부드러운 웃음을 짓고 길바닥을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불행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불행한걸.”

나는 문득 불행이란 것을 떨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물었다.

“그럼 행복해질 방법은 없는 거야?”

누나는 나에게 힘 빠진 눈동자만을 향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함을 넘어서 다음 말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느리게 한 마디씩 뱉었다.

“우리는 불행한 한 행복해질 수 없어... 불행을 만드는 것들은 너무 크고 만연해서, 아니면 마치 미리 정해져 있던 것처럼 단단해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거든... 세상은 바뀌지 않아. 내가 바뀌어야 해. 하지만 나는 바뀌지 않아. 바꿀 수 없어. 오늘도, 내일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고, 실제로도 그럴 거야...”

그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예외는 없을지 싶어,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행복을 찾아갈 수는 없을까? 찾은 사람도 있다던데. 내일부터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잖아.”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바닥을 보며 말했다.

“행복을 원한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음, 어떻게 행복하게 될 수는 있어도 내가 행복을 찾아나서 얻을 수는 없는 거네. 행복은 수동적인 건가? 그럼 차라리 불행을 삶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걸로 보고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네.”

“응, 그런 편이 낫지...”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나는 누나가 한 말들을 곱씹어 보았고, 누나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 먼 산등성이 밑으로 꺼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자 누나가 무릎을 꿇고 일어나 교복 치마를 털며 밝게 말했다.

“해가 졌네! 난 이제 들어가 볼게-.”

나는 금방 떠올라 하려고 했던 질문을 할 타이밍을 놓쳤다. 누나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냐는 질문이었다. 설마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아 본 적은 없겠지.

누나는 대부분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나와서 하늘이 어두워지면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늦은 저녁에 나와서 밤이 썰 때까지 들어가지 않다가 해가 뜰 때서야 돌아가기도 했다. 나는 나와서 그와 함께 얘기할 때도 있었고, 그냥 멀리서 지켜볼 때도 있었다. 그가 나와 있었지만 내가 몰랐던 적도 꽤나 많을 것이다.

나는 누나가 간 뒤에도 한참동안 담벼락에 앉아 있었다.

—

하얀색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눈뚜경을 열었다. 뒤통수만 들고 잠시 동안 흐릿한 주변을 굵뜨게 둘러 보았다. 눈을 뜨자마자 졸음이 몰려와서 좀 더 자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누워 있는 곳이 집이 아니었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뒹굴었다. 침대 밑으로는 회색 양탄자 바닥이 있었다. 건너편 벽에 붙어있는 거울에 어제 입고 있던 캐주얼 카고 바지와 셔츠를 그대로 걸치고 있는 내가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통유리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작은 호텔 방 안에 있었다.

졸음은 모두 달아난 채 벌떡 일어나 침대 밑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을 신고 의자 등받이에 걸쳐 있는 겹옷과 거울 앞 책상에 놓인 핸드폰을 챙긴 뒤 문간의 키카드를 뽑아 급하게 방을 나섰다. 카펫이 깔려 있는 복도는 아침의 습기

로 눅눅하면서도 아늑한 냄새가 났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켜 보았다. 시그널에 칼리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WF_Kali | 뭐 안 했으니까 체크아웃 하고 잘 들어가 ㅎㅎ WF_Kali | 돈은 내 봤어

젠장. 분명 어제 좋다고 술을 퍼마시다가 그대로 엎어진게 분명하다.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적잖이 쪽팔린 꼴이 아니다. 근데 출근하면 두 사람 얼굴 어떻게 보지? 아, 칼리는 처음 만난 건 아니구나. 명청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려보려고 노력했다. 내가 미하일의 부축을 받고 로비 바 밖으로 나오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어제 바에서 내가 뭘 했는가 생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랫배 속에서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이제 내가 내 민폐를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있는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도 헛갈리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제 갔던 로비 바가 왼쪽에 흘끔 보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휴스턴의 아침 햇살이 화사했다. 먼저 칼리와 미하일에게 어제 미안했다고, 덕분에 잘 들어갔다고 문자를 넣었다. 칼리에게 뭐라고 더 쓸까 하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핸드폰의 전원 버튼을 죽이듯이 짹 누른 후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 나는 걸음을 옮기는 내 다리를 내려다 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머릿속을 비워 내려고 노력했다. 비운 머릿속에는 언젠가 누나와 있었던 날들의 기억이 도화지에 떨어진 물감처럼 강렬하게 번져나갔다. 머리 위로 검은 새가 유난히 긴 꼬리를 치며

날았다. 나는 새를 눈으로 쫓다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전에 중천에 가시 돋친 해를 잠시동안 쳐다보았다.

—

월요일 아침. 우리는 다시 조브의 회의실에 모였다. 어제 저녁 화상 회의로 간단하게 우리가 수행할 작전 개요를 했고, 오늘 여기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돼 있었다. 나는 미하일 옆에 앉았고, 내 옆으로 전에 봤던 전투원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친한지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대화를 나눴다. 칼리는 책상 건너편, 조브 쪽에 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아 주변에 속속 들어오는 사람들을 훑어보다가 칼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또 알 수 없는 눈짓을 했다. 나는 당황해서 그냥 웃으며 받았다. 벌써 술 마시고 뺨은지 일주일이나 됐는데도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가 있는 작은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열댓 명으로 많지 않았다. 어제 듣기로는 이 중 현장에 갈 사람은 나를 포함해 일곱 명 밖에 되지 않았다. 조브가 우리를 한 번 쓱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다.

“Alright, listen up! Everyone’s here, so let’s get straight into the point.” (자, 집중! 모두들 왔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그러자 웅성웅성하던 주변이 조용해 졌다. 조브가 자기 노트북의 트랙패드를 조작하자 슬라이드 쇼가 열렸다.

“Let’s start with a brief overview. Since we covered this yesterday, I’ll keep it short.” (일단 간단한 개요부터 하고 넘어가지. 어제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다.)

“This is a targeted termination assignment. The operation is designated as “Crimson 2520”. Your target to eliminate is Yevgeny Alexeyevich Mironov, born 1979 in SPB. He was a former external contractor for the FSB’s SZI division—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in the 2010s. Since 2018, he worked on encrypted communication modules for the joint FSB-GRU modernization program.” (이번 작전은 요인 제거 작전으로, 작전명은 “크림슨 2520”이다. 암살할 목표는 예브게니 알렉세예비치 미로노프, 1979년 에스페베 출신으로, 2010년대에 FSB 산하 SZI 외부 채용직으로 일한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FSB, GRU 공동 암호 통신 현대화 사업에서 암호화 통신 모듈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조브가 스페이스 바를 탁 누르자 미로노프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계란형 얼굴에 조금 각진 턱과 불쌍하게 보이는 눈이 인상적이었다. 슬라이드에는 그의 대략적 정보 개괄이 사진 옆에 나타나 있었다. 나는 내가 아는 정보가 맞는지 대조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눈으로 빠르게 훑었다.

“But! shortly after signs of unauthorized data access were detected, he disappeared. Russian internal audits flagged activity suggesting deliberate compromise of system integrity—namely, an embedded backdoor. This gave him away. His intent appears to have been to escalate the ongoing conflict using the compromised infrastructure. Moscow caught wind of it before execution, prompting him to go into hiding before any significant data could be extracted.” (하지만! 내부 시스템에서 비인가 접근 흔적이 나타난 후 그는 사라졌다. 러시아 내부 감사는 시스템 무결성을 고의적으로 손

상시킨 백도어 삽입 정황을 발견했고, 이게 그가 들리게 된 원인이다. 그는 기밀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해 전쟁을 확산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정부가 본격적인 정보 유출 이전에 이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가 피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때 전투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Who put him up to it? No way he planned this alone.” (그가 혼자서 계획했을리 없으니, 그에게 그리 하도록 사주한 건 누구니까?)

“At this point, we assess that certain elements within the Russian apparatus may have had an interest in pushing the conflict further. Whether they were using Mironov as a tool or a proxy remains unclear.” (현재로서는 러시아 정부 내부에 확전을 원하는 세력이 있는 듯하다는 추측밖에는 하지 못한다. 그들이 미로노프를 도구로 썼는지, 대리인으로 썼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조브는 대답을 마치고 구글 어스 창을 띄웠다. 그는 위성 사진을 확대하고 설명을 계속했다.

“He is currently hiding in a dacha near Kuguki, about 15 kilometers outside Ussuriysk. The property is registered to his parents. He is believed to be under the delusion that he may be attempted to be detained for questioning—not termination. The info was planted by a cooperating local PMC. He’s not expecting a kill team, nor the Russians.” (그는 현재 우수리스크 외곽 15km 지점 쿠구키의 다차에 은거 중이다. 집은 부모 소유

로 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조사를 위해 체포될 수 있지만 제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협력 중인 지역 PMC에서 심어 놓은 것이다. 그와 러시아 당국 모두 암살자가 오는줄은 모를 것이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고 계속 설명했다. 슬슬 어제 들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말을 할동안 핸드폰을 잠깐 켜서 시간, 뉴스 등을 확인하고, 미하일과 칼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 회의탁에 놓인 문서들을 훑어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칼리가 내 시선을 의식해 눈이 또 마주쳤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눈을 피했다. 그도 마찬가지로 눈을 피했다가 내가 고개를 돌릴 참에 다시 나를 잠깐 보았다.

“According to internal sources, Mironov stands a high chance of actually being apprehended. Our job is to ensure that doesn’t happen. We remove him before they arrest him, and stage the scene as a suicide. For this, Emil, our cleaner, will accompany you. He’s preparing the post-op scene setup and necessary props.” (러시아 당국 내부 정보에 의하면 실제로 미로노프가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는 그가 체포되기 전에 그를 제거하고 철저하게 자살로 위장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청소부인 에밀이 동행한다. 그가 암살 후 현장을 꾸미기 위한 계획과 소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브는 에밀을 가리켰고, 에밀이 나머지 사람들을 돌아 보며 눈인사를 나눴다.

“Mironov appears to have hired at least one bodyguard—confirmed to be an ex-OMON riot police officer. So, Thomas, Lukas, and Peter will join team Kimchi on-site. Oh—and also, Kali’s handover is complete, and will

participate in the mission as well. You will enter Russia as two separate teams: Team Kimchi as consultants for Huixin Data—a Chinese IT company if you didn’t know—and the others posing as European logistics and tech support personnel...” (미로노프는 경호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신원이 확인된 한 명은 OMON 전투 경찰 출신이다. 그래서 김치 팀과 함께 토마스, 루카스, 페터가 참여한다. 아, 그리고 칼리가 원래 하던 일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이번 작전에 함께하기로 했다. 일행은 김치 팀과 나머지 네 명으로 나뉘어 각각 중국 IT 기업인 헤신 데이터를 위한 컨설턴트와 유럽계 화물운송 중개업체 파견 기술 지원요원으로 위장하여 입국한다...)

우리 일곱 명은 서로를 보며 눈빛과 웃음 따위를 나누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간단한 무언의 인사를 나눴다. 모습들을 얼핏 보니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도 셋 다 정신은 똑바로 박힌 사람들 같았다. 그 뒤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었고, 나는 가지고 있는 자료와 어제 화상 회의에서 수첩에 적어둔 것들을 보며 나름의 계획을 세웠다. 미로노프란 인간도 어차피 도구처럼 쓰이다가 버려질텐데 괜한 일에 가담해서 팔자가 불쌍해졌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미하일, 칼리, 그리고 나는 한국인 얼굴을 이용해 위장할 것이므로, 미국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인천을 경유해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예정이다. 아마도 입국 전 계획 조율 등을 위해 적어도 출국 이틀 전엔 한국에 도착해야 할 것이다.

“Alright, that covers the essentials. I’ll send the exact execution time, coordinates, surrounding maps, IDs, and cover dossiers over later.” (좋아,

중요한 것들은 모두 전달했고, 정확한 시행 일시, 별장 좌표와 주변 사진, 경호원 신분, 위장 신분 등에 대한 것들은 따로 보내도록 하지..)

이미 시행 일시, 위장 신분 등 꽤 많은 정보는 어제 화상 회의나 서류를 통해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들 자기 물건을 챙겨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회의실에서 나가기 전에 서로 악수를 한 번씩 나누고 서로 자신을 간단히 소개한 뒤 상투적인 인사말을 나누었다. 전투원 3명과 청소부는 물론, 현장에서 우리 뒤를 봐 줄 정보 요원과 작전 통제 요원 등과도 잠깐 대화를 했다. 그 다음 미하일이 다가와서 나에게 장난스레 악수를 청했다.

“파울 씨,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칼리도 빠지지 못하겠다는 듯 와서 능청스레 두 손 씩이나 내밀었다.

“흠, 파울 씨! 영광입니다아”

왜 자꾸 날 당황시키는지 모르겠다. 나도 두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은 뒤 당황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왜 이러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칼리가 재밌다는 듯 웃고는 미하일과도 악수했다.

“아하하, 우리 미하일 씨도 잘...”

“아유, 네...”

갑자기 왜 이런 장난을 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재미있어서 우리는 잠깐동안 서로 웃었다. 칼리는 어느새 전투원과 청소부 일행 쪽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미하일과 나도 그 쪽으로 갔다. 전투원들끼리는 원래 친한 모양이었고, 그들은 청소부와도 미리 안면을 터 둔 듯했다. 칼리는 그들과 입국 날짜가 이틀 차이 나도록 조율했고 작전 사흘 전과 당일 접선할 위치도 대충 합의했다. 자세한 것은 추가 조사 후 메신저로 교환하기로 하고, 언젠가 가질 술자리를 기약한 뒤 그들과 헤어졌다.

우리 셋은 회사 앞 거리까지 함께 걸어 나갔다. 칼리가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서서 말했다.

“이따 자세하게 보낼 거지만, 한국엔 따로따로 들어갈 거야. 출국 이틀 전 이니까, 9월 14일에 공항 근처 숙소를 잡자. 뭐 원하는 데 있으면 알려줘. 나 먼저 간다!”

“네, 들어가세요 ”

나와 미하일은 칼리를 배웅하고 공원 벤치 앞에서 헤어졌다.

“그럼, 인천에서 봅시다.”

“네, 그때 뵈요!”

—

나는 여행 가방을 펼쳐 두고 짐을 하나 둘씩 챙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여권을 확인했다. 여권 가운데장에 엄지를 끼워서 펼쳐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던 5년 전의 내가 나에게 해맑게 웃어 보이고 있었다. 나는 잠깐동안 내 증명 사진을 멍하게 보다가, 옆에 써 있는 주요 정보를 한 번 씩 확인하고는 두

꺼운 겹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헤신 컨설턴트 위장 신분을 위한 여권은 한국에서 받을 것이고, 인천까지는 실제 신분으로 갈 것이다. 비자는 비즈니스 비자로 회사에서 준비해 준다고 했다. 겹옷에 위장 여권을 넣을 다른 주머니가 있는지 더듬어 확인해 보았다. 끝자락에 깊숙하고 잘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주머니가 있었다. 나는 손을 한 번 넣어 보고는 다른 짐으로 눈을 옮겼다.

회사에서 준비해 준 입국 비자, 호텔 예약 영수증, 보험 증서는 지갑의 안쪽 칸에 클립으로 끼워 두었다. 노트북, 업무용 스마트폰과 블랙베리, 버튼을 누르면 다른 종류의 전기 플러그가 튀어나오는 어댑터, 외장 SSD, 현금, 속옷, 방한복, 세면도구 등을 차곡차곡 넣어서 손가방 하나와 캐리어 하나로 모두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안 챙긴 짐이 있는지, 특히 의료 키트가 제대로 챙겨져 있는지를 여러 번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캐리어 지퍼를 잠글 수 있었다. 저무는 햇빛을 맞으며 캐리어에 누렇게 빛나는 자물쇠를 걸었다.

캐리어를 거실 한 가운데에 밀어다 놓고 소파 방석에 뒤통수를 기댔다. 노을 빛을 맞으며 하얀 천장에 달려 있는 꺼진 전등을 보고 있자니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캐리어 위에 오른다리를 올리고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QRF가 왜 5분 내로 금방 오겠다는 무전과 달리 그렇게 늦게 왔는지, 왜 자기들은 빨리 왔는데 이상하다고 했는지 등등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구출되자마자 칼리가 본부에 넣은 무전에서도 그렇고, 조브가 나를 청문하려고 불렀을 때도 그렇고, 구출 목표가 분대장 뿐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작전의 목표는 데이터였음에도 조브는 그 레이첼이라는 아줌마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점도 이상했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것, 몰라도 되는 것, 몰라야 하

는 것이 존재했다. 나는 죽을뻔한 대가로, 언젠가 이 모든 걸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심 같은 것이 들었다. 칼리는 나에게 친절한 편이니 그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꺼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가 나를 감시할 목적으로 동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갑자기 내가 맡는 일의 종류가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법을 당연하다는 듯 어기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엇그제까지 여기저기서 브리핑 듣고 작전 계획할 때는 몰랐지만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니 이제 얼마나 미친 짓인지 새삼 깨달았다. 남의 나라에 남의 이름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나라 정부의 기술자를 죽이고 오라니. 더 이상한 것은, 경험 많은 칼리랑 다른 팀원들은 그렇다 치고 미하일은 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거지? 이런 생각을 하며 핸드폰을 들어 작전 계획을 정리한 노트를 쳐보았다.

- 목표: 전 FSB SZI 계약직 미로노프 암살, 사인은 권총 자살로 위장
- 입국: 알래스카 IAH - SEA (9.13) → 아시아나 SEA-ICN (9.14) → 중국남방 ICN-YNJ-VVO (9.16)
- 신분: Huixin Data 慧信数据 한국인 컨설턴트 박시우, 은성전자 DX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연구개발실 HW개발팀 사원
- 현지 PMC에서 위장 에스코트 리무진, 안가, 장비 등 제공 예정
- 작전 당일 9.23 오전 2:30 경, OMON 전경 출신 경호원 1명 확인됨. 추가 인원 12명 추정.

경호원까지 읽었을 때 나는 핸드폰을 힘 없이 머리 너머로 던졌다. 소파 좌석에 핸드폰이 튕기는 충격이 내 뒤통수로 전해졌다. 작전 계획은 이미 백 번도

넘게 본 듯하다. 나는 쪽창으로 지평선 너머로만 붉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해와 고층건물을 보았다. 창틀 끝으로 잔해처럼 서 있는 IT 회사 건물이 신기루 같이 지나갔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깊이 잠들고 싶었다.

나를 죽게 놔두지 않겠다는 칼리의 말은 진심일까? 사실일까? 어떻게든지 내가 죽지 않을 거란 보장이 필요한 듯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생각인가? 죽으러 가는 일을 하면서 죽지 않기를 바라다니. 잠깐동안 자조했다.

그렇게나 많이 죽을 뻔 하고도 나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그 회사 건물을 떠올리고 있다. 어쩌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죽을만한 일을 겪고도 살아남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단 한 번의 강렬한 경험만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의 아찔한 쾌감에 매몰된 걸지도 모른다.

누나와 꽤 친해졌을 때, 그에게 물어 보았다. 죽는게 두려워서 못 죽는 거라면, 왜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누나는 ‘네가 그런 생각도 할 줄 아냐’라는 듯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때의 대화 내용은 아직도 기억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해도, 결국 내가 기억하는 것은 누나가 주던 어떤 느낌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막 떠오를 것 같다가도, 기억해 내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흐릿하게 흩어져버렸다. 어디선가 그리움이 나타나 거실을 에워쌌다.

내 질문에 대한 누나의 답은, 간단하고 사뭇 뻔했다. 죽음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 두려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쥐어 짜낸 끝에 도출한 명분이다.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직면하기 전에는 못 다한 쾌락이 남은 세상과 채우지 못한 채 버려질 삶에 대한 미

련이고, 죽음을 직면한 뒤에는 생존 본능일 뿐이다. 나는 이런 것은 뭔가 납득이 되는 설명이 아니라고 느껴서 사실로 받아들이에 거부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누나는 인간이 잘 생각해 보면 모든 면에서 다 그런 식이라고 했다. 치밀한 논리와 논증, 사색과 탐구로 이루어낸 문명과 이에 대한 자각은 인간이 자신들을 스스로 영리하다고 느끼게 하지만, 사실 인간 논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리 치밀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수백번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랬던 누나는 그 난간 앞에 서서, 죽음 그 자체를 직면하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넘고.

언젠가 그가 내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누나가 자기 얘기를 한 적은 몇 번 없다.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삶과 죽음이 하나일 때는 죽을만큼 무서우면서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특히 아무도 없이, 고요한 노을 빛 아래서는 날 미치게 하던 모든 잡음이 사라지고, 나와 하늘, 딱 둘이서만 있는 거 같았어. 다른 뭘 하더라도 그거보다 기분 좋을 순 없을거야.”

“그럼 그때는 행복한거야?”

“...아니, 절대 행복하다곤 할 수 없을걸? 음, 지금?이 좀 더 행복한 거 같아.”

그리고 그는 나를 보며 웃어 주었었다. 그의 웃음이 그림다.

어느새 풋잠이 들었다가 깼다. 물을 한 모금 들이킨 후 소파에 누워 다시 멍하게 앉아 있었다. 고개를 힘 없이 떨궜더니 소파 바깥쪽으로 목이 돌아갔다. 난 눈앞을 초점 없이 쳐다보았다. 건너편 벽에 텅 빈 TV 화면이 있었다. 평소라면 이런 시간에는 이런 자세로 책을 읽거나 TV로 영화나 뉴스를 봤겠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현실을 망각하는 쪽이 맘이 편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럴 수 없었다.

쪽창에서 스며 들어와 검은 화면에 반사되는 외로운 빛을 보며 나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았다. 언제 이 결심이 변할지 모르지만. 그 누구에게도 위로나 안내 따위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해야 할 일이다. 당장 발이 빠져 가라앉아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진창이지만 분명 내가 걷고 있는 길이다.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는 나에게, 이 길은 오랫동안 내가 갈 곳을 따라 나 있을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허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또 한 번 자신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말았다.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을 보니 난 여전히 삶에 매여 있구나. 바닥을 바라보다가 끼니를 떼우러 주방으로 갔다. 어느새 불 꺼진 집안이 어두컴컴할 정도로 날이 저물었다. 불은 그냥 꺼놓기로 했다. 막상 주방에 와 보니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었다. 캐비닛을 차례대로 열고, 먹기 싫은 것만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닫기를 반복했다. 결국 큰 그릇에 시리얼과 우유를 부은 뒤 숟가락을 꽂아서 거실로 들고 왔다. 시리얼을 탁자에 올려 놓고 TV를 켰다.

14번인 CNN 채널이 켜졌다. T-72나 T-90으로 보이는 러시아군 탱크에 무언가 빠르게 날아가 폭발하는 영상이 나왔다. 헤드라인 자막으로 눈이 먼져 갔다.

UKRAINIAN DRONE TAKES OUT RUSSIAN TANK NEAR KHARKIV (하르키우 인근서 우크라 드론, 러 탱크 무력화)

화면에서 눈을 떴고 시리얼 숟가락을 들었다. UKR 까지만 읽었는데도 오금이 잠깐동안 저러오는 것은 왜일까. 가슴이 떨어지는 기분을 애써 억눌렀다. 널 뉴스가 얼마나 없으면 맨날 똑같은 우크라이나 드론 영상을 보여주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불과 일주일 전에 이제는 전선 지역도 아닌 키이우에 다녀왔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러시아 PMC가 활개친다는 것이었다.

“Ukraine’s military says dozens of Russian vehicles have been destroyed in similar operations over the past week, as Kyiv’s forces continue to push back against Russian advances in the east...” (우크라이나 군은 여러 러시아군 차량이 지난 주 비슷한 작전들에서 제거되었으며, 키이우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부터의 러시아군 진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고 또 재생되는 똑같은 드론 영상, 격양되어있지만 귓가에 먹먹하게 뻗도는 앵커의 목소리, 시리얼 그릇과 우유 표면에 비치는 CNN 헤드라인의 붉은 빛. 나는 채널을 두 세 개 돌리고는 시리얼을 한 숟가락 더 떴다.

“—crude has swung sharply in recent weeks, and some importers are struggling to secure stable supplies...” (—원유 가격이 크게 요동쳤고, 일부 수입 업체는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눈으로 쓱 훑었다. 중국 시장이 최근 저조해졌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빨리 그릇을 비우고 내일 출국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손가락질을 좀 더 빨리 했다.

“Emily, how are global markets reacting?” (에밀리, 글로벌 시장은 어떤 반응입니까?)

TV는 틀어놓고 진짜로 볼 때도 많다. 하지만 그것 보다는, 특히 밤에, 꼭 보지 않더라도 무슨 소리가 계속 나야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더 크다.

“...volatility across major indices. Investors are closely watching China’s next policy moves, but so far, there’s little sign of a quick turnaround. The uncertainty here is rippling through everything from shipping costs to stock prices in New York and London...” (...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다음 정책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뉴욕과 런던의 선적 비용부터 주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릇 바닥에 남은 우유를 들이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은 TV 화면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주방은 캄캄했다. 나는 싱크대에 그릇을 넣은 뒤 수돗물로 행구고 마려다가, 내일이 출국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대충 설거지를 했다. 그릇과 손가락을 털어 건조대에 올려놓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엉덩이에 아까 전에 던져둔 핸드폰이 채였다. 나는 핸드폰을 켜 보았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WF_Kali | 별 일들 없지? 준비 잘 하고 한국에서 보자! Y. Mikhail |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형식적인 인사인데도 어딘가 위로가 되었다. 나도 잘들 주무시라는 대답을 남겼다. 나는 캐리어, 배낭 등 짐들을 현관 앞에 모아두고는 침실로 들어가 누웠다. 한 건 앉아서 멍 때리고 TV 본 것밖에 없는데도 고된 하루였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블룸버그가 S&P 500과 나스닥의 주가 하락, 암호화폐 규제에 따위의 뻔한 내용을 떠들어대고 있었다. 5시에 알람을 맞추고 핸드폰을 램프가 올려진 탁자에 둔 뒤 침대에 처박혔다. 러시아에서 일어날 불길한 일들에 대한 걱정을 애써 머리에서 빼내며 서서히 잠에 들었다.

VIII.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가자 청록색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좌석 앞 화면에는 비행기가 서해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로 지도가 똑똑 끊어져서 나왔다. 창 밖을 내다 보았다. 날개 끝에 색동 도색이 눈에 들어왔다.

비행기는 높은 하늘에서 순식간에 땅 근처로 접근했다. 좌석 앞 탁자를 모두 올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잠시 뒤 쿵 하는 충격이 전해지며 날개에 달린 플랩이 들려 올라갔다. 착륙할 때 귀가 멍멍해지는 느낌과 몸 전체가 진동하는 느낌은 아무리 비행기를 많이 타 보아도 적응되지 않는다.

“손님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벨트를 계속 착용하시고, 비행기가 멈춘 후 선반을 여실 때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나는 사람들이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며 창 밖의 다른 비행기들을 보다가, 긴 시간 비행으로 빠근한 몸을 일으켰다. 머리 위 선반에서 잔뜩 무거운 배낭을 꺼냈다. 주변에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한 뒤 비행기 밖으로 나왔다. 승무원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는데 무시하기 미안해서 목례로 답했다. 안내판에 한국어가 보이자 비로소 한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공항은 여행객과 출장객으로 미어 터질듯 붐볐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의 관광 산업이 이정도로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은 뒤, 환전, 간단한 끼니, 화장실 등 일을 모두 보고 공항을 나섰다. 결국 숙소는 공항과 가까운 곳으로 정해졌기에, 1터미널 앞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넓은 지붕, 삭막한 기둥과 건물 사이로는 회색 하늘과 그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비행기 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내로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한국은 내가 떠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1년 남짓의 시간동안 사람들은 더 차가워졌고,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웃고 떠드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이었다. 한국인들은 혼자이던, 가족이나 일행과 함께이던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거나, 서로 귀찮은 대화를 조곤조곤 이어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호텔까지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둡게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살면서 가장 즐거워야 할 때 중 하나인 여행길에서의 모습이 이렇다니.

호텔에 도착해 앞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로비 층으로 올라가 체크인을 했다. 체크인을 마치자 프런트 직원이 안내차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여기는 이스트 타워이고 내 객실은 웨스트 타워이니 그쪽으로 가셔야 한다고 했다. 칼리가 문자로 보내준 영수증을 열어 봤더니, 거기에도 내 객실은 웨스트 타워라고 써 있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뒀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프런트 직원에게 인사하고 서쪽으로 가기 위해 다시 정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회전문으로 들어오는 칼리와 마주쳤다.

“오, 타이밍 좋게 만났네?”

“하하, 안녕하세요?”

“영,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객실이 어디십니까?”

“왜, 알아야겠어?”

칼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씨익 웃어 보였다. 만날 때마다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아,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흐흐흐, 무슨 일인데?”

“혹시 객실이 이스트 타워에 있는지, 웨스트 타워에 있는지... 제가 방금 타워 잘못 찾아왔다고 빠꾸 먹었거든요.”

“...어? 그런게 있었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주섬주섬 꺼내 자기 영수증을 확인했다.

“어, 난 웨스트 타워네.”

“그럼 여기가 아니에요. 저도 웨스트 타워인데..”

“아? 나도 헛갈렸네. 전부터 교집합이 좀 있다?”

교집합? 아, 공통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 서울춘놈? 취미?

“하하하, 그러게요. 체크인 하고 같이 가실래요?”

“...아 미안, 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먼저 가 있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칼리는 화장실이 있는 로비 구석 기둥 뒤편 복도로 사라졌다. 다들 왜 이렇게 태연하게 다니는지 의문이었다. 여전히 고위험 작전을 하러 가는 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인지 그런 마음을 달래주거나 잠시나마 잊게 해 줄 말동무가 필요하다고 느꼈나 보다. 칼리를 기다려서 같이 갈까 고민하다가, 전부터 그가 나에게 묘한 기운을 풍기는 것이 걸려서 그냥 먼저 가기로 했다.

웨스트 타워까지는 걸어가기에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다. 캐리어랑 배낭이 무거워서 멀게 느껴졌던 걸지도 모른다. 두 타워는 사이에 공원 같은 공간을 두고 조금 떨어져 있었고, 오면서 보니 길고 두꺼운 유리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웨스트 타워에 와 보니, 저쪽보다는 더 새로 지은 느낌이 났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9층을 누른 뒤, 객실 키카드를 꺼내서 내 방 호수를 다시 확인했다. 918호였다.

전체적으로 갈색을 띄는 복도는 쿼퀴하면서도 아늑한 냄새를 풍겼다. 캐리어 바퀴가 폭신한 카펫 바닥에 눌러 구르는 느낌이 좋았다. 918호에 다다라 키를 대고 들어갔다. 통창에 깨끗한 침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가격대가 주변에 비해 낮은 편인데도 객실 상태는 매우 좋아서,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만족했다.

필요한 짐만 풀기 시작했다. 노트북은 TV 및 탁자 위에 대충 올려두고 세면도구는 화장실에, 당장 입을 옷은 안락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캐리어 뚜껑을 발로 밀어서 닫은 뒤 침대에 누워서 창 밖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진동했다. 나는 확인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쯤 중요한 연락이 올 시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팔을 뻗어 나이트스탠드에 올려둔 핸드폰을 집었다. 아니나 다를까 칼리의 연락이 와 있었다.

WF_Kali | 4시까지 919호로 모여 WF_Kali | 아 16시

Y. Mikhail | ㅎㅎ 알겠습니다!

객실 컨트롤의 시계를 보았다. 4시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WF_Paul | 네, 알겠습니다

나도 답장하고 핸드폰을 배개 옆에 올려둔 뒤 리모콘을 집어 TV를 켰다. 한국 채널 좀 보려고 켜는데, 공항 옆 호텔이라 그런지 앞 번호 채널들은 여전히 CNN, BBC 따위의 외국 채널들이었다. 채널을 계속 넘기니 어릴적 기억이 묻어있는 프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예능 하나 켜놓고 보려고 했더니 이번 부가 끝나서 광고를 20분 동안이나 봐야 했다. 채널을 계속 돌리다 보니 한국 뉴스 채널이 나왔다. 나는 정신을 잃은 것처럼 뚫어져라 화면을 보았다.

“...10 km 밖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도 일찌감치 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3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일한 대응 수단이었던 K9 자주포는—”

TV 화면에 음소거 표시가 뜨더니 아나운서의 말소리가 사라졌다. 갑자기 방에는 저 멀리 큰 길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 그리고 끔찍한 숨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방에 과자를 왜 숨겨 놔? 어? 이런 쓰레기같은 음식 사서 몰래 먹으라고 용돈 주는 줄 알아?”

방 안에 성난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뜨겁게 달아오른 온 몸 중에서도 어깨와 허벅지가 얼얼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울음을 계속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눈꺼풀 밖으로 터져 나왔다. 나는 소리 내서 울고 말았다.

“뭘 잘했다고 울어? 네가 억울해? 안 되겠어, 더 맞아야지.”

머리와 옆구리와 배로 충격이 왔고 나는 바닥에 처박혔다. 눈앞이 까맣고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일어 나. 일어 나!”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그의 앞에 섰다.

“차렷 해. 차렷! 그거 맞는다고 안 죽어!”

아까 맞은 허벅지가 저려서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다. 나는 발꿈치를 들고 몸의 수평을 맞추려고 애썼다. 얼굴 보기가 무서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아직도 엄살 부릴 정신이 있어? 이 새끼를 어떻게 하지? 안 되겠어.”

벽 구석에서 뭔가 굽히는 소리가 났다. 목검이었다. 밀도 높아 보이는 묵직한 작대기는 그것으로 맞는 상상을 굳이 안 해도 무서웠다. 나는 벽으로 뒷걸음질쳤다.

“뒤 돌아!”

나는 떨면서 천천히 뒤로 돌아왔다.

“네가 뭘 잘못한지 알아? ...몇 대 맞아야겠어?”

방에 과자 놔둔 게 그렇게 잘못된건가?

“대답해!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퍽 소리가 나더니 엉덩이가 옥싯 아파왔다. 단단한 불덩이가 엉덩이 살을 뭉게고 뼈에 맞는 듯했다. 밀려오는 고통에 자리에 주저앉았다.

“일어나! 안 일어나면 대가리 깨진다!”

내가 쉽사리 일어나지 않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목검이 어깨에 날아들었다. 나는 팔을 들어 막고자 했으나 한 발 늦었다. 어깨에 감각이 혼미해졌고, 그대로 들던 팔을 떨구었다.

“이 새끼가 감히 막으려고 해? 막으면 팔 부서진다! 다시 일어서서 뒤로 서.”

뭘 하든 맞는 건 똑같으니 맞을 거 빨리 맞고 끝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 힘을 다해 일어나서 뒤로 돌아 벽에 손을 짚었다. 날카롭고 묵직한 고통이 엉덩이와 허벅지와 등과 옆구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쑤셨다. 흥분한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눈앞을 가리는 눈물 너머로 TV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화면에는 국방력 증진을 보도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코브라 헬기가 제자리에서 비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감시 · 정찰 능력도 대폭 강화

나는 뉴스의 내용에 집중하여 아픔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당연히 그런 게 될 리가 없었다. 음소거되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 TV는 부질없이 빛을 뿔 어냈다. 나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소음으로만 가득 찬 외딴 방에서 TV 화면만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썼다.

“...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10일 대대적인 포격 및 상륙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중국은...”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기억 중에서도 이게 떠오르는 것인지 모르겠다. 10년도 더 된 그 때 무슨 뉴스를 하고 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났다. 연평도라. 그때 내가 몇 살이었던가? 깜깜하지만 그리운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참동안 뉴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인지도 알지 못하고 멍하게 앞만 쳐다 보았다. 갑자기 기분이 확 안 좋아졌기 때문인지, 잠이나 자고 싶어졌다. TV를 끄고 리모컨을 침대 옆에 있는 카우치에 던져 놓았다. 시원하고 폭신한 침구에 사지를 파묻고 의미 없이 멍을 때리며 시간을 보냈다. 하얀 천장과 창 밖의 밝은 하늘을 보았다. 시계가 3시 50분을 가리켰다. 나는 냉장고에서 컴플리멘터리 생수병을 따서 마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바로 옆방인 919호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핸드폰으로 잠깐 시간을 확인했다.

03:52 오후

뭐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니었다. 나는 숨을 한 번 내쉬고 초인종 버튼을 달각 눌렀다.

핑-동.

문이 벌컥 열리더니 칼리의 얼굴이 튀어나왔다. 나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하하, 놀랐구나! 일찍 왔네?”

“약속 시간 5분 전은 기본이죠.”

그렇게 둘러대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미하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 음, 저기 카우치 편한 데 앉아.”

지금 QRF 건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 다짜고짜 물으면 누가 봐도 의심하는 티가 날테니 일단 러시아 가는 일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계획을 해 보았다. 내가 카우치를 조심스럽게 빼서 앉자 칼리는 침대에 풀썩 앉아서 셔츠 맨 위 단추를 여미며 농담을 걸었다.

“아 미하일은 눈치 있게 일찍일찍 올 것이지, 벌써 빠져가지고오- 흠흠!”

나도 같이 뒷담한 것처럼 되어 버렸잖아.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지금 문 밖에 있어서 들으면 어떡해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칼리는 목소리를 높여 문에다가 말했다.

“미하일 씨! 장난인 거 알지?”

“...”

“흐하하하하! 괜찮아, 아직 안 왔어.”

“.....”

이 사람은 포라이인가?

“내가 볼 땐, 재는 딱 3분 전에 올 거야.”

“하하... 그렇군요.”

나는 잠시동안 틈을 들여 칼리가 다른 할 말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 말을 꺼냈다.

“근데...”

“응?”

“저번에 로비 바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칼리의 표정에 조금 불안하다는 기색이 올라왔다. 나는 일단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렇게 위험하고, 뭐랄까...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러 가는데 다들 괜찮아 보여서....”

칼리의 표정이 다시 풀렸다. 겨우 그런 거였냐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런가? 두고 봐요. QRF 얘기는 대답하기 힘들걸?

“음—”

칼리가 잠깐 고민하고 입을 떼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나에게 아쉬워서 어찌냐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서 튕겨나와 문으로 걸어갔다.

좀만 늦게 오지. 칼리는 문을 열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웃어주며 말했다.

“죽게는 안 놔둔다고 했잖아 ”

이번에도 완전히 진심으로 하는 소리도, 지나가는 소리도 아닌듯한 그런 말이었다. 아, 애초에 우리의 관계가 그런건가? 그냥 사적으로 조금 친해진 비즈니스 관계. 진심으로 여길 관계도 아니지만 대충대충 넘길 관계도 아닌 그런 관계. 순간 칼리가 야속하고 가식적으로 보이면서도 조금은 존경스러웠다.

“자, 현재 시간 3시 57분. 모두 잘 와 주셨습니다. 파울 씨, 내 말이 맞지?”

나는 방금 칼리의 말에 대해 생각하다가 미하일이 진짜로 3분 전에 오자 어떻게 반응할지도 몰라서 어색하게 웃고 말았다.

“네? 뭐가요?”

미하일이 궁금한듯 물었다.

“응, 있어 ”

“에이....”

“하하. 다들 옆방이지? 17호 18호.”

“네, 맞아요.”

“응, 되도록이면 블라인드 내리고 있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며 칼리는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내렸다. 내 방도 블라인드 내리고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다. 칼리가 말했다.

“그럼 이제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 하하...”

일부러 전 것인지 하다가 머쓱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하일이 반응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웃음이 피식 나왔다. 잠시동안 다 같이 웃은 뒤 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다들 위장 신분 알고 있지? 다들 확인 차 한 번씩 공유해 보자. 모두 은성 전자 DX 부문 VD부 소속 사원일거고, 나는 R&D HW개발팀 책임이야. 이름은 이채운. WF에서도 어쨌든 내가 상급자니까 아무래도 서로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

그러자 미하일이 먼저 자게 신분을 소개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네요. 저는 하드웨어 개발팀 사원 류승현으로 받았어요. 이름만 보면 애는 뭔가 계단식으로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어허, 엄연히 실제 사원 이름이라고.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 뿐이야.”

칼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무라듯 능청을 떨었지만 사실 우리 중 아무도 신경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돈 잘 벌고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을 능력 있고 잘난 사람한테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를 존중해주고 싶진 않았다.

“...뭐, 사실 상관 없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어쩔건데! 흐흐.”

역시 생각하는 건 칼리가 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때 칼리가 나를 돌아보았다. 괜히 움찔했다.

“그럼 파울 씨도?”

“ㄴ-네, 저도 HW개발팀 사원이고, 이름은 박시우라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들 신분으로 멋대로 갔다가 들킬 수도 있지 않나요..?”

“음... 안 들키면 되지! 아하하! 다 퇴사 예정인 사람들이거나 휴가 간 사람들이라 우리가 엄청 큰 사고만 안 치면 괜찮을 거야. 작전 할 때는 또 그 신분이 아닌 척 할 수 있거든.”

칼리의 말이 끝나자 미하일이 내가 묻고 싶었던 것을 대신 물었다.

“아, 혹시 만에 하나 그 사고 를 치면 어떡하죠?”

칼리는 미하일을 보다가 나를 한 번 힐끔 보고는 말했다.

“...짜리는 거지 뭐어. 그러니까 사고 안 치게 조심하라구.”

우리는 이미 사고를 쳐놓은 듯한 기분으로 대답했다.

“하하, 네....”

“그럼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숙소는 롯데호텔 블라디보스톡으로 정해졌어. 작전 지역하고도 가깝고 우리 신분이랑도 잘 맞는 거 같아.”

그러자 미하일이 신난다고 감탄했다.

“그리고 뭇보다 만리타국에 한국 호텔이 있다는게 어딘가요!”

나도 그냥 반가운 척 입만 뻗었다. 사실 실제로도 조금 반갑긴 했다.

“하하, 그러게요.”

“그리고 혜신 쪽이랑 얘기가 돼서, 우리 이름을 방명록에 써주고 두 시간 동안 접견실을 내주기로 했다. 우리는 가서 우리 신분 알려주고 앉아 있다가 오면 돼. 당연한 거지만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혜신 접견실이 보안 좋은 안가는 아니니까... 알지? 가서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오는거야.”

미하일이 물었다.

“그런데, 저희 비행기 일정이 혜신에 하루만 다녀오기에는 꽤 넉넉하거든요.”

“응,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회의 진행이 순조롭구만? 작전은 출국 전날에 할거고, 그 전에는 루스키 섬 쪽으로 놀러 다니려고. 작전날에는 호텔에 지인 집에 하룻밤 초대 받았다고 하고 우수리스크 쪽으로 갈거야.”

미하일이 물었다.

“실제로는 퍼실리테이터가 제공하는 안가에 가 있는거죠?”

“응, 거기서 마지막으로 정비하고 낮에 행인인 척 미로노프 집 주변을 조사할 거야...”

그 뒤로도 우리는 한 시간 정도 작전 얘기를 주고 받았다. 까먹었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칼리는 까먹을 뻔 했다고 우리에게 위장 여권과 사원증 등 신분 위장용 물품들을 나눠 주었다. 나는 어제 봐둔 겔옷 주머니 칸에 그것들을 넣고 지퍼를 올렸다. 혹시 흘리면 큰 낭패다. 칼리도 위장 신분 관련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혹시나 누군가 주워서 당국에 넘어가면 수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 최고 대기업의 사원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밖에서는 그 인물 자체가 되어야 했다.

우리는 작전 얘기가 끝난 후 루스키 섬 관광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다. 거긴 러시아답지 않게 다채롭다는 말을 믿기 어려웠다. 특히,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졌던 러시아, 그 중에서도 개발이 늦게 됐다는 극동에 한국 호텔이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다. 그래서 대화도 환기할 겸 그 말을 꺼냈다. 그러자

칼리는 러시아에 한국 과자, 음료, 라면 등등 군것질거리도 많다고 했다. 미하일은 진영만 다르지 않았다면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좋은 협력 관계가 되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동유럽을 휘젓고 다니면서도 여태까지 러시아에 대해서는 소련 뒤에 남은 독재 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면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 돌아와야 다른 얘기를 할 것 아닌가.

—

우리는 늦은 저녁, 파라다이스 시티 근처의 들어본 적도 없는 체인 치킨집에서 저녁을 배불리 먹었다. 미하일이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모 연예인이 만든 브랜드라고 했다. 우리는 간간이 한 마디씩 하며 호텔로 걸어 돌아와 객실 앞에서 헤어졌다. 나는 현관 앞 카펫 바닥 어딘가에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선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터벅터벅 방을 가로질러 카우치에 앉았다. 약간 주황빛이 도는 원목 탁자에 노란 전등 빛이 따뜻하게 비쳤다. 핸드폰으로 구글 지도를 켜 미로노프가 사는 집을 위성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둘러보았다. 따로 로드뷰가 없었기에 조브 쪽에서 집 주변을 찍은 사진을 같이 보내주었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다.

쿠구키 자체가 작은 마을이긴 하고 미로노프의 집도 그 마을 가장 변두리에 떨어져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유롭게 돌아다니기엔 여전히 보는 눈이 너무 많을 것 같았다. 집 근처로는 길이 크게 두 갈래가 보였는데, 하나는 정문으로 이어져 있고 하나는 숲을 건너야 나오는 곳이었다. 도망가기 좋아 보여서 이리로 온 모양인데, 우리가 몰래 쳐들어가서 죽이고 도망 나오기에도 좋아 보였다.

여태까지 정리한 작전 계획 및 숙지 사항을 또 한 번 읽었다. 언제는 안 그랬나마는, 작전 얘기를 읽으니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TV로 영화를 보기로 했다. 언젠가부터 액션이나 첩보물은 보기 싫어져서, 고전 명화 채널을 틀어 놓았다. 그런데 흥미를 끌 리는 없었지만.

“Mama... always... said dyin’ was a part of life..... I sure wish it wasn’t...” (엄마는... 늘...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하셨어..... 정말 아니었다면 좋겠어...)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머리에 목소리가 울렸다.

‘죽는 건 삶의 한 장면 같은 게 아니야. 사람은 죽기 위해 사는 거야.’

나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하지만 본능은 다르게 외치는 걸. 화면 속, 누구보다도 바보같지만 나보다는 훨씬 현명하고 성숙한 남자가 쓸쓸히 나무와 묘비를 등지고 걸어오는 것을 멍하게 지켜 보았다. 누나. 왜 제일 필요할 때만 없어지는 거야? 어디서라도 좋으니 나타나서 무슨 말이라도 해 봐. 아니, 해 줘. 제발.

핸드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알림이었다. 메신저를 열어보니 칼리의 메시지가 김치 팀 방이 아닌 DM 채널에 와 있었다.

WF_Kali | 이따 볼래? 11시에 이스트 타워 로비로 와

갑자기? 당황스러웠다. 일방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다니. 아까 회의 전에 맺지 못한 대화가 있다는 걸 눈치 채고 부른 것인가 추측해 보았다. 일단 안 갈 수는 없으니 알겠다고 답장하고, 시간을 확인했다.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다.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QRF 출동의 이상한 점이라던가, 우리가 수

행하는 작전들의 본질이라던가, 그가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지 등 칼리에게 물어볼 것들을 미리 정리해 놓기로 했다.

깃털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고, 벤치에 앉은 남자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배웅하였다.

—

로비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서양인과 아랍인 등 외국인이 많았다. 한 쪽 구석 소파에 앉아 있는 칼리가 보였다. 나는 그리로 걸어갔다. 대리석 바닥에 전등 빛이 흐릿하게 비쳤다.

“오, 빨리 왔네? 일찍일찍 다니는 편이구나.”

칼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나도 금방 왔어. 진짜야..!”

“아, 다행이네요....”

“굳이 늦은 시간에 불러내서 미안해... 아까 낮에, 그거 좀 중요한 말인 것 같던데. 아 물론, 내가 할 말도 좀 있고.”

“아, 음. 꽤 중요한 내용이었죠, 하하.”

“그래, 궁금하네! 뭐 좀 마시면서 하자.”

우리는 위층이 훤히 보이는 구조의 넓은 통로를 따라 걸었다. 밝은 갈색의 나무 색과 살짝 노란빛의 조명이 잘 어울렸다. 좀 더 들어가자 목적지로 보이는 곳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Vy Bar & Karaoke

입구만 보아도 호텔 내 시설이라 비싸 보였다. 또 술 얻어 마시기가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또 헛소리하다가 엎어질까 그것도 걱정이었다. 칼리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 안으로 쑥 들어갔다. 나도 옷을 점검하며 쫓아 들어갔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탁 트인 자리에 앉은 외국인 일행 세 명과 한국인 일행 네 명 외에 바에 사람은 없었다. 나는 칼리를 따라 구석 쪽에 칸막이를 친 테이블에 앉았다. 그가 스프링노트 같이 생긴 메뉴판을 펼친 뒤, 나도 볼 수 있도록 옆으로 밀어 놓았다.

“뭐 마실거야?”

“음... 칼리 씨...가 하시는 걸로..?”

“어허어, 또 이러시네!”

“제가 잘 몰라서...”

“일 잘 하는거엔 술자리도 포함! 물론 지금이 그럴 자리는 아니지만, 술 잘 고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 성격을 술 취향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필 또는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하.”

“좋아, 일단 가장 무난한 픽은... 올드 패션드! 맛도 괜찮고 점잖아 보이잖아.”

“아, 그걸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었군요.”

저번에는 미하일에게 은근히 술자리 예절을 지키라고 눈치를 준 거였나?
아니면 정말로 올드패션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걸까?

“응, 그리고 그게 좀 심심하면 맨해튼도 괜찮아. 그런데 이게 좀 췌척..?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겸손한 픽으로는 진 토닉도 있어.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신호로 보기도 하고.”

얼핏, 이런건 아무한테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전 진 토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난 올드 패션드로. 어, 근데 메뉴판에 없네....”

“그럼 못 먹는 건가요? 아쉽네요. 다른 건 다 요란한 것밖에 없는 거 같은데...”

“흠, 공부 좀 했군! 근데 이런 곳은 메뉴판에 없어도 부탁하면 만들어 줘.”

그럼 왜 당황한 척 한 거야!

“그,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흐하하, 그래! 근데 이런 데 와서는 시그니처로 시키는 것도 괜찮아.”

나이가 있어 보이는 바텐더는, 이 바에는 온갖 술이 다 있다면서 올드 패션드 요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칼리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해맑게 감사인사를 했다. 일주일 내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뻔히 알면서 말이다. 그와 술자리 예절 얘기를 좀 더 했다. 칼리는 이걸로 내 긴장을 풀어 주려는 것 같았다. 술이 나오자 슬슬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건배할까?”

“아, 네!”

나는 내 짧은 술 교양을 조금이라도 어필하기 위해 내 잔을 칼리의 것 아래로 부딪히고 한 번 마신 다음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냥 이런 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내가 잠깐 내 술을 쳐다보고 있는 찰나, 그가 조용하게 말을 꺼냈다.

“그...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야.”

“네?”

“아, 죽는 게 안 무섭냐는 거. 나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거지.”

“아...”

“처음엔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시작해. 나도 죽을 뻔 한 적이 있었고... 미하일도 담담하게 말했지만 우간다?에서 머리에 총 맞을 뻔 했다고 했지.”

“아, 네. 기억 납니다.”

“그래서, 우린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 매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한거야. 사실 좀 뻔한 소린가..?”

나는 잠자코 듣다가 그가 자기 말을 후회하는 듯 하자 급히 대답했다.

“아, 아하하... 아닙니다.”

미하일도 속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해냈다는건가? 나도 받아들이기로 하긴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걸 어떻게 하겠는가?

“너는 동유럽에서 일하다 왔으면 돈 만지는 일을 도왔을텐데, 좀 덜 위험한.”

나는 적잖이 놀랐다. PMC가 동유럽에서 돈 돌리는 일만 하는 건 아닐텐데.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아는 방법이 있지요? 히히. 죽을 뻔 한 거 이번이 처음이지?”

“...신고식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응... 내가 좀 해보니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무감해지는 방법밖엔 없는 거 같애.”

“.....”

다른 테이블에서 식기가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내가 집에서 내린 결론이 옳다는 걸 재확인시켜줄 뿐이었다. 나는 은근히 다른 말을 듣기를 기대했는데.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이 궁금하지. 작전의 목적. 데이터의 정제, 그리고 우리가 늦게 온 이유.”

나는 기회만 온다면 그에게 우크라이나 일에 대해 탐문할 오만가지 계획을 세워 두었었다. 그런데 막상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니 뭐라고 밀어붙일 수가 없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

“지금은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게, 아니면 억울하게도 느껴지겠지만, 곧 알 수 있을거야. 그땐 다 말해 줄 수 있을거야.”

“.....”

“너무 알고 싶어도, 지금은 안 돼... 너를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미하일을 위해서도...”

그는 내가 여태 본 것 중 가장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이 사람은 연기를 잘 하는거야, 아니면 진짜로 슬픈거야? 진짜로 슬픈거면 그럴 이유가 어딴지? 내가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도 눈 앞에 그가 갑자기 그런 분위기로 날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 같이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내 애긴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믿기 어렵겠지 만..., 그래도 한 번만 믿어 줘. 그럼, 그럼... 죽지는 않게 해 줄게. 꼭.”

그는 나를 젖은 눈으로 바라보며 애써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 표정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무리 헛소리일지라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헛소리가 아니라고. 그는 내 편이라고.

죽게 놔두지 않는다는 말이 나를 진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딘가 가슴 빈 구석이 채워지는 듯했다. 나는 또 한 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도 용기 내서 한 말일텐데 뭐라도 반응을 더 해 줘야 할 것 같아 일단 아무 말이나 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내 얼떨떨한 반응에 어색하게 입꼬리만 올려 줄 뿐이었다. 우리는 말 없이 술을 마시며 서로의 눈치만 봤다. 우크라이나 일이나 작전에 대한 얘기

는 다음 기회에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있던 칼리는 고개를 들어 걸 눈길로 어깨 너머를 확인하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고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럼, 시간도 늦었고... 갈까?”

“네, 가시죠...”

어느새 바에는 우리 둘과 바텐더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칼리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바를 나서며 바텐더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도 괜히 따라서 했다. 그때 바텐더가 사람 좋은 웃음을 하며 말했다.

“두 분 잘 어울리세요.”

나는 칼리를 옆에, 바텐더를 앞에 두고, 어찌할지 몰라 당황해서 나오는 말을 뱉었다.

“저희 그런 스—”

“감사합니다!!!”

칼리는 내 말을 가로채고는 내 손목을 덥석 잡아 바 밖으로 황급히 끌고 갔다. 나는 끌려 나오는 순간에 바텐더가 실수했나 싶어 고개를 떨구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죄, 죄송해요...”

“아, 아니야! 네 잘못 아냐. 너도 당황했을텐데...”

그 뒤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걷기만 했다. 칼리는 뻗뻗하고 급하게 걸었다. 그는 걷는 동안 나에게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자정을 넘은 하늘은 새까맣고, 그 어두움은 건물 안까지도 스민 듯했다. 나는 그를 따라 2층

에 나 있는 구름다리를 통해 우리 방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분명 더 짧은 통로로 왔음에도,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칼리가 입을 열었다.

“그럼, 잘 자...”

그는 문고리를 힘 없이 당겼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잠시 멈췄던 뒤 벌컥 밀어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인사를 최대한 안 어색하게 받으려고 노력했다.

“아... 안녕히 주무세요.”

칼리는 머쓱한 듯 나를 슬쩍 돌아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딱 숙이고는 문을 꽁 닫았다. 면전에 숫자 919가 부딪히는 듯했다. 술을 마셔서인지 아까 일이 부끄러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찰나에 칼리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이 조금 귀엽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잔뜩 땀에 젖어 찢찢한 신발을 보이지 않는 선에 벗어 두고 키카드를 슬롯에 꽂았다. 삭막하게 어둡고 카펫 냄새 나는 방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양말과 옷을 대충 벗어 의자에 걸쳐 놓은 뒤 침대에 몸을 던졌다. 아까 꺼놓고 가지 않았던 TV가 전력이 공급되자 번쩍 켜지며 고전 명화 채널을 보여주었다. 오늘 칼리와의 술자리가 꿈이라던가 내 망상일 뿐인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술로 달아오른 내 불과,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을 보인 그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무엇보다 늘 쓰고 있던 철판이 벗겨진

듯한 칼리의 얼굴이 내 눈동자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그게 현실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증명했다.

(여기에 짐 뒤지고 노트북 쳐다봤다가 황급히 떠난 흔적 묘사 추가)

초점 없이 TV 아래로 나 있는 길쭉한 탁자를 내려다 보았다. 비어 있는 탁자에 전등빛이 허전하게 비쳤다. ...비어 있는 탁자? 아까 노트북을 꺼내놔있던 것 같은데, 어디 간 거지? 술이 확 깨는 듯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엉성하게 닫혀있는 캐리어를 열어제꼈다. 내가 항상 노트북을 넣어두는 뚜껑 부분 파우치에 노트북은 없었다. 누가 가져간 건가?

그때 안락의자 앞의 동그란 테이블에 놓여 있는 노트북이 보였다. 일단 긴장은 풀어졌으나 분명히 나는 노트북을 TV 밑 탁자에 놔두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안락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 보았다. WF 로고가 뜨면서 컴퓨터가 부팅되기 시작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노트북을 다시 덮었다. 누군가 급히 보다가 떠나지는 않은 것이다. 어쩌면 내가 생각 없이 여기 올려놓은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생각을 좀 더 해 보았다. 내가 칼리에게 불려갔을 때 여유롭게 노트북을 열어봤을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미하일 짓인가?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다. 아니면 칼리가 나를 일부러 불려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보고 갔나? 혹은 미로노프 쪽 요원이 보고 간 것인가?

아직 미로노프 집으로 쳐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나는 작전을 수행 중이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함을 느꼈다. 혹시 칼리 또는 미하일이 한 짓일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에둘러서라도 말해야 할지 고민했으나, 일단 나만 알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IX.

칼의 무게

언젠가, 점심만 먹고 학교가 끝나는 날이었다. 나는 미리 친구들과 4시까지 놀 계획을 세워 두었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느라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3명이서 분식집에 몰려가서 쟁반에 담긴 오천원짜리 떡볶이를 시켜놓고 가위바위보로 한 명한테 계산 몰아주는 내기를 하고, 뽑기 기계에서 손가락만한 درا구노프 저격총을 뽑으려고 번갈아가며 500원씩 넣고 그것도 못뽑나며 서로를 놀리기도 했었다. 시내로 나가서 관람가 나이도 다 채운 김에 영화를 보기로 했다. 평소에는 아버지 때문에 먹지 못하던 콜라와 팝콘 등을 싹껏 먹을 기회이기도 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독립 운동을 다루었지만 역시 통쾌한 액션 영화에 가까웠다.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친일파가 법정에서 처벌되지 않고 독립운동가에게 따로 단죄되는 장면은 인상 깊게 본 것 같다. 친구들은 통쾌하다고 했으나, 나는 그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계속 고위 공직자로 남아 있는 결말이 관객에게 고구마도 좀 먹일 겸 영화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었다. 그것과 별개로, 뒷골목에서 독립운동가에게 총을 여러 발 맞고도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휘청거리던 악역의 모습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내용의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들과 학교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영화 얘기를 하다가 다 같이 교문 앞에서 헤

어졌다. 붕 뜬 기분으로 버스에 탔다가, 몇 정류장 안 가서 내려 집이 있는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영화 때문인지 유독 그날 삶과 죽음의 무게를 망각했는지 모른다. 누가 액션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할 수도 있겠나만, 나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붉은 햇빛이 내리쬐는 길 위에서, 나는 구석 샛길 전봇대 뒤로 튀어나온 치마자락을 보았다. 이 부근에서 저런 데에 있을 사람은 누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반가운 마음으로 전봇대 쪽으로 걸음을 재촉해 다가갔다. 그곳에는 여느 때처럼 쪼그려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누나는 없었다. 그는 뒤를 돌고 쪼그려 앉아 자기 손을 보고 있었다. 구름이 지나가며 햇빛이 내리쬐어 그의 머리카락을 주홍빛으로 물들였다. 그의 손이 반짝 빛났다. 아니, 반짝인 것은 그의 손목 위에 대어진 쇠붙이었다. 뜨겁고 마른 바람이 세게 불고 지나갔다.

“누나!”

나는 온 힘을 다해 외쳤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가고 말았다. 발이 아스팔트에 구르는 충격이 전해졌다. 그와의 거리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칼자루를 쥐고 고개를 떨군 채 팔을 부들부들 떨었다. 나는 명치가 짓이겨지는 듯한 느낌을 참아내며, 내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목청껏 다시 한 번 소리쳤다.

“강주은!!!”

누나는 뒤를 확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돼 있었다. 나는 전봇대 앞에서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잔뜩 붉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채로 날 바라보았다. 나는 다시 그에게로 뛰어가 아직 식칼을 쥐고 있는 손목을 꼭 잡아 본능적으로 전봇대에 대고 눌렀다. 그의 손목 한가운데에서 연한 피가 스며 나왔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뭐 하는 거야....”

그러자 그는 죄라도 지은듯한 표정을 지었다.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어 누나의 절박한 눈빛을 피했다. 나는 칼등을 잡아 칼을 뺏어 내었다. 그는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는 이유로 신음하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손에 힘을 풀었다. 나는 뺏은 칼을 전봇대 구석에 난 잡초 쪽으로 던졌다. 그가 팔을 움찔거렸다. 그제서야 내가 아직도 그의 팔을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안도와 근심이 담긴 한숨을 천천히 내쉬며 그를 풀어 주었다.

“누나...”

그는 갑자기 내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나를 꼭 안았다. 누나가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안겼던 적이 없어서 당황했다. 하지만 그가 울부짖는 소리가 내 옷 밖으로 먹먹하게 들리자 나는 그의 등을 내 팔로 둘러 안아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

“...”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그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무슨 용기에서인지 그에게 과감히 말했었다. 내가 이 말을 두고 계속 후회할 줄은, 이때는 몰랐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같이 죽자. 누나가 죽을 거라면 나도 따라갈거야... 하지만 그 전에는 안 돼. 우리, 같이 어른이 되자.”

그러자 누나는 귀를 대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게 중얼거렸다.

“안 돼...”

“뭐가..?”

“.....정말... 그래 주는 거야?”

정말로 그래줄 수 있을지 따위의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음. 기꺼이. 그걸로써 강주은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누나는 천천히 내 무릎에 머리를 뺐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그러나 만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해가 저물 때까지 그대로. 저물어가는 태양과 붉은 노을을 하염없이 보았다. 나는 우울에서인지 충격에서인지 저녁 추위 때문인지 계속해서 떨고 있는 누나의 어깨를 왼팔로 감싸 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더운 저녁 바람만 맞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던 그 때, 잠결에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렸다.

“있지.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웬지 네가 올 것만 같았어.... 나도 참 이상하지?”

누나는 조용히 코웃음했다. 자조한걸까? 종아리가 간지러웠다. 그가 머리를 살짝 고쳐 배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자는 척 가만히 들었다. 뭐라고 대답해 주기가 어려웠다.

“칼을 손목에 눌렀다가 떼는 것만 얼마나 했는지 몰라. 갑자기 난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단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번엔 정말 해버리기로 했지. 힘줄에 칼을 대면서, 잠깐동안... 죽어있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봤어. 막상 하려니까 별 생각이 안 들더라.“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여전히 건조했다. 좀 전에 자신을 죽일 뻔했던 사람이라기에 감정은 무서울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계속 듣기만 했다. 누나가 나한테 말하는건지 자기한테 말하는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딱... 네가 온거야. 아하하, 날 얼마나 괴롭히려고? 넌 나한테 죽음이 닥쳐와야 겨우 허용되는건가봐.... 음, 그래도 다행이야.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는 그렇게 맥 없이 웃으며 말하고는 고개를 기울여 다시 하늘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를 눈동자로만 훑듯 내려보았다. 그의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렸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

‘하하, 파울. 코스모폴리탄은 우주인이 아니라 세계인이라는 뜻이야.... 코스모폴리탄이 되기 싫다고. 너도 이 세상이 싫은 거구나. ...아닌 거 알지만, 넌 충분히 그래 보여.’

Discovery

X.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계단을 통해 수하물 찾는 곳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타고 온 항공편은 CZ5087, 나는 그 번호를 찾아 공항을 누비며 걸었다. 착륙 후 급히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느라 일행과 잠깐 떨어졌기 때문에 걸음을 서둘렀다. 눈부신 하얀 바닥 위로 돋보이는 파란색 타일을 따라 컨베이어 벨트로 향했다. 주변은 사람들 목소리, 캐리어와 수레 끄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 등으로 시끌시끌했다. 수하물 찾는 곳에는 칼리와 미하일이 먼저 와서 자기 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하일은 내가 온 것을 알아챘고, 칼리는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뒷태만 봐도 인천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뺏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와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내가 다가가자 미하일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 오셨네요, 시우... 씨?”

러시아 입국도 위장 신분으로 했다. 나는 이제부터 한 주간 김도준이나 파울이 아니다. 은성전자 사원 박시우란 말이다. 위장 신분 입국은 처음이 아니지만, 누군가를 몰래 죽이러 간다는 것 때문인지 입국 심사할 때에도 떨렸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았다.

“화장실 좀 다녀왔습니다, 승현 씨. 근데 좀 어색하네요.”

그러자 미하일이 입고리를 씹 올리며 찔렀다.

“아, 이름으로 부르는거요?”

나는 당했다는 목소리로 받아줬다.

“하하, 네에—.”

그때 칼리가 말했다.

“나도 화장실 가야되는데. 친구들, 내 가방 어케 생겼는지 알지?”

내가 칼리와 어색한 분위기를 풀겸 하던 농담 이어서 하는 겸 대답했다. 막상 보니까 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다.

“...아. 네, 책임님!”

그도 자기를 부르는 느낌이 좀 이상했는지 잠시 말을 절었다.

“...그래! 그럼 다녀올게.”

칼리가 화장실 쪽으로 멀리 걸어간 뒤, 미하일과 친분도 쌓고 내 궁금증도 해소하기 위해 그의 어깨만치로 다가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물어봤다.

“승현 씨.”

“네?”

“혹시... 좀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요?”

나는 혹시 도청 장치라도 있을까 싶어 회삿일 얘기처럼 들리도록 단어 선택을 했다.

“우리... 어... 작업이요.”

항상 올라가 있던 미하일의 입꼬리가 잠깐 내려갔다.

“아... 물론, 정말... 무섭네요.”

“그런데... 태연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막연하게 긴장?되긴 하는데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어떻게 떠날지.”

“저는 아무리 그래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 아마 표-, 시우 씨는 진짜로 겪어 보셔서 그런 걸수도 있겠네요.”

그렇구나. 죽음을 마주해 보지 않은 사람과 한 번 죽었더 깨어나 본 사람의 차이는 참으로 크구나. 나도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거다. 그랬다면 나는 죽음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떠오르는 건 누나였다. 하지만 미하일 앞에서는 무슨 티를 내면 곤란하다. 아, 이미 낸 건가? 일단 뜬을 들였으니 사과했다. 이렇게 하면 PTSD 때문인가보다 하고 넘길지도 모른다.

“아,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괜히 이상한 소릴 해서...”

“하하, 아닙니다. 승현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저도 좀 무섭거든요. 안 겪어봐서 그런지 더...”

“그래도 작...업이 그런데 실패해도 크게 잘못될 일은 없겠죠..? 해봤자... 쫓겨나는거 말고 더 있겠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응, 그럴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움찔했다. 칼리는 어느새 우리 등 뒤에 붙어서 우리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 놀라는 것도 잠시, 미하일이 바로 칼리에게도 안 무섭냐고 물어보았다.

“책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칼리는 나를 숙 보고 ‘넌 알지?’ 하는 눈치를 주더니 웃으며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나도 무섭지! 많이 해 봤으니까 좀 덜 무서운 거 같기도 한데.”

“그렇군요...”

그때 칼리가 컨베이어 벨트로 기어나오는 자기 캐리어를 가리켰다.

“어, 내꺼 나왔다!”

우리도 칼리를 따라 컨베이어 벨트로 바짝 다가갔다. 칼리는 자기 짐을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꺼내다가 팔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했다. 바로 옆에 있던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캐리어를 잡았다.

“아! 미안...”

칼리는 당황해서 캐리어를 주섬주섬 자기 옆구리 밑으로 놓고 구겨진 옷 소매를 정리했다. 계속 잡담을 하며 기다리자 곧 나와 미하일의 짐도 나왔다. 세관을 지나 로비로 나오자 인파가 우리를 에워싸는 듯했다. 우리는 헤신 측 의전, 아니 그걸 사칭한 사람을 찾아 대합실을 둘러보았다. 미하일이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 사람인 것 같은데요?”

나와 칼리도 미하일이 가리킨 방향을 보았다. 그곳에는 팻말을 들고 정장을 입은 금발 여자가 돋보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 속에 묻혀서 쾡한 표정을 하고 서 있었다. 난 팻말에 세련된 고딕체로 적힌 것을 읽어 보았다.

Eunsung DX 헤신데이터 컨설턴트

우리는 걸음을 재촉해 그리로 향했다. 그가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고 팻말을 내린 뒤 손을 들어 보였다. 칼리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충분히 가까워지자 그가 말했다.

“Eunsung electronics, digital experience department?” (헤신 데이터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부서?)

이 여자도 러시아 억양이 강한 편인것 같았다. 칼리가 대답했다.

“Yes, that’s correct.” (네, 맞습니다.)

“Badges, please.” (사원증 좀 봅시다.)

나는 겔옷 안주머니에 손을 더듬어 사원증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여자는 우리의 사원증을 하나씩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We go this way, please.”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구석진 곳을 따라 도로가 있는 공항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직된 분위기가 싫었는지 미하일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Hey, sorry if we kept you waiting too long.” (저기, 저희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I’m fine, it’s part of job anyway. Wasn’t too long.” (괜찮습니다. 이것도 제 일이라. 오래도 아니었어요.)

그는 나름 정중하게 받으면서도 뒷말이 이어질 여지를 모두 잘라버리는 듯했다. 문을 나서 도로 변으로 그를 따라가니 도요타 캠리로 보이는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량 번호판을 슬쩍 확인했다.

C378YB | 125 RUS

서늘한 가을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여자는 뒷자리 문을 열어주었다. 어차피 진짜 의전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 셋이 뒷자리에 끼겨서 가라고? 차를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닌 적은 많았지만 뭔가 은성 직원이라고 하니까 대접받아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칼리와 미하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차로 들어가자 나도 괜한 기대 했다고 생각하고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다. 내 옆에 앉게 된 미하일이 자리를 좀 당겨 앉아 주었다. 여자는 조수석에 탔다. 그가 문을 닫는 소리가 쿵 하고 먹먹하게 난 뒤 차가 출발했다.

차는 공항을 한 바퀴 돌아 빠르게 빠져나갔다. 운전수는 우리를 돌아보고 웃으며 목례한 뒤 다시 운전석에 집중했다. 나는 창문 밖을 내다 보았다.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디자인의 퍼런색 공항 간판에 먼저 눈이 갔다.

—Владивосток—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길은 바로 탁 트인 직선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하늘은 인천의 하늘보다도 짙은 잿빛이었다. 미하일은 긴장하고 있는지 손가락들 끝으로 좌석 쿠션을 두들겼다. 칼리는 겹눈질로 그의 손짓을 지켜보았지만 별 말을 하지는 않았다. 잠시동안 차 안에는 차가 매끈한 포장도로를 달리는 소리와

미하일이 좌석을 두들기는 소리만이 올랐다. 어느정도 안정한 길에 올랐다고 판단했는지, 여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We are now going to Lotte Hotel, as you know.” (아시는 것처럼, 지금 롯데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Ah, yep!” (아, 네!)

내가 안나의 말에 대답하려고 입을 벌렸을 때, 미하일이 먼저 대답했다. 칼리도 나와 마찬가지였는지 조금 내밀었던 고개를 다시 등받이에 기댔다. 여자는 살짝 코웃음을 치면서 할 말을 계속했다. 미하일의 어병한 반응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Yes, we received your schedule, and first we will come back to pick you up on... Thursday, 18th, from hotel to Huixin. Also... phone numbers? Let's add each other.” (네, 그쪽 스케줄은 받았고, 혜신에 가야 하니... 일단 9월 18일, 목요일에 호텔로 픽업 가겠습니다. 아, 전화번호는? 교환할까요?)


우리는 시그널로 연락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연락처를 추가하고 보니, 여자의 이름은 안나인 모양이다. 칼리가 연락처를 교환하고 무언가를 하느라 조용히 있는 안나에게 말했다.

“Okay, nice to meet you, Anna.” (만나서 반가워요, 안나.)

우리도 만나서 반갑다고 한 마디씩 했다. 안나가 대답했다.

“Oh, yes, nice to meet you. Please wait a second...” (아, 네, 반가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외로운 도로 표지판이 저 멀리서 불안한 최후처럼 위태롭게 다가왔다. 괜히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눈으로 훑었다.

↑ НАХОДКА 144 НАКНОДКА ВЛАДИВОСТОК 22 
VLADIVOSTOK

사실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곳은 우리가 향하는 남쪽이 아니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공항보다도 북쪽이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다시 핸드폰을 보았다.

잠시 기다리니 짧은 메시지가 왔다. 이 작전에서 운전수와 안나의 스케줄과 안전가옥의 위치, 미로노프의 집 위치 등을 간략히 재확인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내용을 복사한 뒤 내 노트를 켜다. 내용을 끼워넣을 적절한 위치를 찾는데 미하일이 말했다.

“어, 시우 씨. 혜신 데이터 한자 틀리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수(數) 자 번체로 쓰셨는데... 혹시 몰라서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하하...”

처음 노트 정리할 때 컴퓨터로 ‘혜신수거’를 입력한 뒤 한자 변환 키 누르게 화근이었다. 나는 안나의 메시지를 붙여넣은 뒤, 내 노트에서 ‘慧信數據’가 적혀있던 부분을 찾아 數를 数로 바꾸었다. 이게 문제가 될 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미하일이 내 화면을 엿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좀 불쾌했다. 말을 좀 더 붙이고 싶어서 그런걸까? 칼리는 우리 쪽을 잠깐 돌아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안나의 픽업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안나는 우리가 혜신에 방문하는 18일, 호텔에서 안전 가옥으로가는 21일, 그리고 작전 당일인 22일에 우리를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다. 대략적인 일정은 잡혀 있었고, 작전 후 구체적인 퇴출 계획은 21일과 당일에 상황을 보고 세우기로 했다.

계속해서 여태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읽어 보는데, 운전수가 오른쪽 창 밖에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쳐다 보았다. 거대한 회색 창고 건물에 뜬금 없이 묵직하게 생긴 현대 로고가 박혀 있었다. 우리는 운전수의 재치에 보답하기 위해 가볍게 놀라는 반응을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놀란 척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조금 놀랐다. 러시아에 우리나라 산업이 진출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도로는 정말 오랫동안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한 10분 가면 한 번 꺾는 식이었다. 우리가 가는 길 주위로는 초원, 마른 평야, 마을 등 다양한 풍경이 지나갔다. 조금 더 가자 본격적으로 큰 동네들이 모습을 보였다. 이동 시간이 긴 것이, 블라디보스톡은 반도임에도 땅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체감되었다. 미하일은 이 근처에서 어디 전자 회사 컨설턴트가 머물만한 괜찮은 호텔은 다 블라디보스톡 반도 쪽에 모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멀리 가야한다고 했다.

미하일과 칼리는 안나와 조용히 있던 운전수에게 한 마디씩 붙였다. 곧 다섯 명이서 러시아와 한국이 공유하는 문화, 한러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안나와 운전수는 현재 전쟁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나는 서방이 러시아를 다른 세상처럼 보이도록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온갖 수를 쓰고 있다고 했다. 운전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소위 ‘전쟁’은 사실

전쟁이 아니라 네오나치즘에 물든 일부 세력을 진압하는 일종의 군사 작전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서방이 그 나라를 망쳐냈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전쟁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걸러들을 필요가 있었지만 그들의 견해는 전에는 접하지 못한 꽤나 새로운 것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작전 얘기와 이어졌다.

운전수가 말했다. 그는 영어가 꽤 능숙한 편이었다.

“So, we were told that your operation is to remove a figure who was feeding escalation of war.” (그래서 말인데, 이번 작전이 확전을 원하는 세력의 인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달 받았습시다만.)

칼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혹시 우리가 괜한 정보를 누설할까 싶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That’s correct, you’ve got the outline. But honestly, we also don’t know more specifics.”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저희도 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운전수는 자기가 실수했다고 느꼈는지, 일종의 변명을 했다.

“Of course we don’t want war right next to us—if things turn bad, the front can move inward.”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싫거든요. 일이 잘못되면 전선이 러시아 내부로 밀려 들어올 수도 있고.)

칼리는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Then why hasn’t the Russian side acted? If we’re being sent to neutralize him, doesn’t that mean it couldn’t be resolved internally?” (그런데 러시아 당국은 왜 행동하지 않는 걸까요? 저희가 제거하러 간다는 것은 그쪽 선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Ah, the government is already running detention operations on some people. Mironov, hmm... I don’t know. Maybe he’s not on the arrest list, yet there’s still a reason to remove him, so American company gets involved, yes? I thought the West wanted escalation, if you’re actually preventing it, that’s a little surprising.” (아, 이미 정부 쪽에서도 일부 인사에 대해 체포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미로노프는, 음... 글썄요. 체포 대상이 아닌데 제거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 미국 회사에서 관여하는 거겠죠? 저는 전쟁 확전을 원하는 쪽이 서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막고 있다니 좀 놀랍군요.)

칼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Because we just do what we are told to, nothing more.” (저희도 시키는 일만 할 뿐이니까요.)

칼리는 화제도 돌릴겸 팀도 얻을겸 우리가 혜신 방문 일정 외 시간에 다닐 관광지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실제 회사 직원들이 출장 오면 일정 없는 날에 놀러 다니듯 우리도 그렇게 해서 위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진짜 놀러 가려는 의도도 없진 않고. 뭐, 우리도 회사 직원이긴 하다.

한 시간 정도 잡담을 하며 우리는 꽤나 친해졌다.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이 느껴지는 길을 오랫동안 달린 끝에, 드디어 A370 국도를 빠져나와 꼬불꼬불한 시내길로 들어갔다. 시내에는 매끈한 돌로 된 건물, 고풍스러운 건물, 통유리가 있는 세련된 건물 등이 다양하게 섞여 있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 풍경은 좀 이질적이었다. 큰 터도 없이, 다른 일반적인 건물 사이에 커다란 석재 건물이 우뚝 서 있는 것이었다. 사실 호텔 자체도 주변 건물에 비해 거대한 것 이외에 겉모습으로는 일반적인 한국 상가 건물같은 인상을 주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운전수는 우리가 자기들 말을 부정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아있다가 좀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면 감탄하는 추임새 정도만 넣었을 뿐인데 말이다. 목요일에 보자는 작별을 끝으로 차는 떠나갔고, 우리는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 내부는 미국 5성 호텔들처럼 호화롭고 반짝거리진 않았지만, 아늑한 디자인에 갇출 건 다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이번 여정에서만 몇번째인지 모를 체크인을 마치고 6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갔다. 벌써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짐을 풀고 한 시간 뒤에 아래층에 있는 한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

방은 충분히 좋았다. 차에 앉아있던 시간이 꽤 피곤했는지, 새하얀 침대를 보자마자 캐리어와 배낭을 내팽개치고 그 위로 얹어졌다. 일단 약속은 지켜야하니 40분 뒤로 알람을 맞추고 누워서 멍하게 눈만 뜨고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커다란 강 위로 높다란 현수교 기둥들이 잿빛 하늘에 노을을 맞으며 외롭게 서 있었다. 다리 건너에는 높고 세련된 건물 몇 개가 삐죽삐죽 서 있었

다. 멀리 크고 작은 배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막상 누우니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강물에 비친 황혼이 오늘따라 맥 없이 희멀겑다. 내가 희멀겑게 된 것인지 러시아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30분만에 쪽잠 잘 것도 아니니 자는 건 포기하기로 하고 노트 앱을 켰다.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작전 계획을 다시 한 번 읽었다. 내일은 윤전수와 안나가 추천해준 것과 미리 알아본 근처 관광지를 돌아다닐 것이다. 모레는 목요일로, 다시 그들을 만나 혜신에 잠깐 있다 가면 된다. 혜신이 협조했다고 분명히 했으니 큰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19일부터는 다른 팀원들과 합류해 장비를 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22일 월요일 새벽에 미로노프를 암살하고 도망나와야 한다. 우리가 움직일 시간대에는 안전이 보장된 것이 맞나? 러시아 쪽에서 미로노프 체포를 하는 것은 아직일까? 브리핑에서도, 차에서도 체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저번 같은 일이 또 생기면 곤란하다.

‘저번 같은 일’이라. 결국 칼리에게 우크라이나 작전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잠시 지금 일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된 이유, 러시아 PMC가 먼저 와 있었던 이유, QRF가 늦게 온 이유, 그리고 자기들은 부르자마자 왔다고 한 이유. 칼리가 QRF 팀 리더인 것 같았는데. 입실론 팀이었던가. 이유를 가장 알만한 사람이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를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그가 답지 않은 그런 표정과 말투로 호소했다고 해도?

나는 핸드폰을 덮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벗지도 않은 옷을 고쳐 입고 벽걸이 TV 밑에 처박아뒀던 짐을 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또 움직일 것이기도 하

고, 특히 두고 가는 물건이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꺼 내놓고 나머지는 캐리어 안에서 최대한 해결하기로 했다. 손에 가장 먼저 집힌 칫솔과 치약을 캐리어 밖으로 뽑아 냈다. 그때 아까 맞춰둔 알람이 울렸다. 일단 나가야 하니 세수랑 양치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칫솔에 치약을 짜며 거울을 보았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지만, 그건 좋은 말일 뿐이다. 사람의 첫인상과 그가 주는 느낌은 적게 쳐줘도 반 이상은 그의 외모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울 속에 있는 놈은 정말 머저리같이도 생겼구나. 나와는 다르게, 내가 아는 사람들은 멀쩡하게만 생겼다. 당장 이 김치 팀만 해도.

미하일은 엄청은 아니지만, 분명히 뚜렷하고 잘 생겼다. 볼수록 어디 도련님 같으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다. 볼 때마다 금발 염색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패션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내 멍청한 착각일 수도 있고. 그의 사교성이라고 해야하나? 그러한 능력만큼이나 그의 외모는 준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눈빛은 날카롭지는 않지만 확실히 뚜렷해서 또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한 녀석이다.

칼리는, 잘 모르겠다. 그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아니, 사실 좀 예뻐 보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쓰는 ‘예쁘다’, ‘잘 생겼다’, ‘점잖아 보인다’와 같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듯하다. 그는 철벽처럼 강해보이면서도 당장 깨질듯이 연약해보였다. 눈은 초점이 없어보이지만 항상 어딘가를 보고 있고, 그게 나를 향할 때는 은근히 견디기 어려운 전율 같은 걸 준다.

재밋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먼저 봤으면서 눈이 마주치면 아래로 깔아 버린다는 것이다. 나도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면 그렇게 될 때가 있다. 미하일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내가 미하일의 얼굴을 볼 때도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맨정신으로 이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은 처음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칼리와 미하일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 이마 옆으로 빠져나온 머리를 가다듬다가 자괴감이 몰려와서 눈을 감아버리고 입에다가 칫솔을 콕 쑤서넣었다.

—

호텔 1층 실내, 우리가 모이기로 한 식당 앞으로 왔다. 벽에 금색으로 붙어 있는 궁서체 간판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인사한 뒤 들어갔다.

해금강

HAEKEUMKANG KOREAN RESTAURANT

화요일 늦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안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칼리가 보였다. 나는 표정을 펴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어, 시우 씨 왔어?”

칼리가 반갑게 말했다. 내가 혹시 위장을 까먹었을까봐 먼저 일러준 것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칼리 앞자리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아, 네. 항상 먼저 와 계시네요. 제가 기다려야 하는건데.”

그러자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아,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먼저 나오는 건데. 그 나저나, 내가 거짓말했네.”

갑자기?

“네? 뭘요?”

칼리가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말했다.

“승현 씨 말야. 너만 그런게 아니라 이번 일에 대해서 개도 준비 안 돼 있더라고.”

칼리가 인천에서 나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미하일도 공항에서 미하일이 나에게 아무래도 빈말한 것인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개도 우리랑 헤어지면 표정 싹 굳어버려! 그때 얼굴은 살짝 무섭기도 한 거 같고?”

미하일이 웃고 있지 않은 상상을 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런 날카로운 얼굴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 얘기가 나오자 아까 화장실에서 한 생각이 떠올라 칼리가 갑자기 더 의식되었다.

“잘 모르지만 승현 씨도 힘든 모양이네요.”

“응, 티를 안 내는거 뿐이지. 재도 맨날 웃기 힘들걸.”

‘당신은요?’ 하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할 수가 없었다. 칼리는 정말 수동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분위기를 잡아 놓는 능력이 있었다. 나는 그

가 밝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에게 친근한 인상을 줌과 동시에 비즈니스 관계라고 선을 긋는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나에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기에 그러한 인식이 깨져버렸다. 그래놓고 다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를 술술 풀어 넘기고 있다. 그의 속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다.

나는 쓸데없는 말로 턱을 그에게 넘겼다. 생각할 순간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웃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음, 웃어야 사랑받지. 오, 승현 씨 왔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는 칼리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미하일이 온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 오셨어요?”

“제가 맨날 늦네요, 하하.”

“아니야, 승현 씨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구나. 나는 뭔가 빨리빨리 안 와 있음 불안해서 말이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돌려서 꼬집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게 한 마디 붙였다.

“그 왜, 빌 게이츠도 항상 약속에 뛰어간다고 했잖아요.”

칼리가 나를 돌아보는 게 느껴졌다. 말하자마자 괜히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입 닫고 웃고만 있을걸.

“하하하! 전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일 보느라 늦었습니다! 제가 변비라.”

“흐흐흥, 그렇구나.”

나도 칼리를 따라 조금만 웃었다.

“앞으로는 저도 미리미리 다니겠습니다!”

“그래그래! 밥이나 골라.”

“아, 넵!”

우리는 다 같이 웃었다. 어찌저찌 잘 넘어간건가? 아니면 애초에 내가 생각하던 그런 건 없었나? 잘 모르겠다.

밥을 먹으면서는 일과 관련이 하나도 없는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하일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입에 떠넣고 말했다.

“이야, 인천에서도 못 먹어본 한식을 여기서 먹어보네요.”

나는 방금 전 일때문에 애써 미하일에게 말을 붙였다.

“승현 씨는 한식 좋아하세요?”

“아, 네! 어릴 때 집에서 먹던 맛 때문에 추억이죠. ...특히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었는데, 돌아가신 뒤로는 뭘 먹어도 같은 맛이 나질 않네요.”

할머니라. 나는 할머니는 커녕 내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내 김치 치즈볶음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하,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나도. 한국에선 너무 힘들었거든. 맨날 쌀밥이나 라면 같은 거나 입에다가 쑤셔넣고... 아하하하! 그래도 지금 여기서 먹어 보니까 또 옛날 생각 나고... 좋네!”

“하하, 저도 마냥 싫지는 않네요.”

칼리가 웬일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길래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긴 반찬도 맛있네요.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그래요? 저는 많이 안 먹어봐서 그냥 들어가는대로 먹고 있는데.”

“에이, 그래도 한식은 추억 생각하면서 먹는거죠.”

추억? 추억이라.

“제일 추억인건 컵라면인데! 난 육개장이랑 도시락만 먹었었어.”

칼리의 말에 미하일이 물었다.

“신라면이나 참깨라면 같은 거 안 좋아하세요?”

“응? 아, 안 먹어 봤어.”

“아.... 좋아하시는게 그런건가요?”

“아, 아니, 그... 짜짱아.... 흐흠....”

묘하게 공감되네. 옛날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나씩 사먹을 때 나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적이 많았다. 개들이 형편이 더 여유로워서 그랬던건지 내가 특출나게 돈이 없었던건지, 아니면 내 성격이 그랬던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돈돈돈 한 결과 난 여기서 이러고 있다.

잠시동안 추억의 음식에 대한 대화가 오갔지만 미하일과 칼리, 나의 말이 너무 달라서 대화가 버벅거렸다. 나는 미하일의 풍요롭고 행복했을 어린 시절에 대한 부러움과 박탈감 같은 것이 들어 그가 신나게 이야기하는게 좀 재수없어 보이기도 했다. 점점 나와 칼리가 서로의 어두웠던 유년기에 대해 공감점을 찾는동안 미하일은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산 듯한 양상으로 대화가 흘러갔다. 그러자 미하일은 또 한 번 대화가 식은 틈을 타 슬쩍 화제를 돌렸다.

“저희 내일 놀러 가는 건 변동 없나요?”

“아, 응. 일단 원래 가기로 한 곳은 정해져 있고... 이따 안나가 추천해준 거 몇 개 합쳐서 스케줄 짜봐야지.”

나도 한 마디 끼웠다.

“지금 추천받은 거 몇 개 추려서 어디 갈지는 정해들까요?”

미하일이 먼저 대답했다.

“그거 좋네요!”

“그래, 그러자!”

“음, 그럼 일단 저는 이 독수리 전망대라는 곳부터 가보고 싶은데 말이죠...”

XI.

지난 나흘 간, 작전 날이 다가온다는 근심을 품고는 잘도 놀러 다녔다. 특히 입국 다음날인 수요일에는 블라디보스톡과 루스키 섬 주변을 관광하며 위장 명의로 된 카드를 적당히 긁고 다녔다. 셋이서 정말로 러시아에 여행 온 것 같이 하루를 보낸 것 같아 기분이 묘했다. 내가 빈말로 가고 싶다고 했던 독수리 요새 전망대를 포함해 한국 기업의 투자로 조성했다고 하는 아르바트 거리, 혁명 전시 광장, 그리고 무슨 보드카 상점에 갔다. 미하일은 보드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여기에 뭐하러 온건지 까먹은 모양인가 싶었다. 그는 끝내 ‘울트라 한정판’이라고 하는 보드카 한 병을 사들었다. 우리가 이곳 저곳 돌아다닐동안 칼리는 한 발짝 뒤에서 선생님이 애들 노는 모습 지켜보듯 서 있다가 이따금 한마디씩 덧붙일 뿐이었다.

그 다음날에는 헤신 데이터 우수리스크 지부에 방문했다. 우수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톡 공항보다도 훨씬 북쪽에 있었다. 땅덩어리가 넓으면 차를 오래 타야 한다. 미국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이 어디인가. 긴 이동시간 덕분에 운전수의 수다를 잔뜩 들을 수 있었다. 운전수와 안나는 생각보다 작전에 대해 아는 게 많았다. 협력 인원이니 든든해 보여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실은 상당히 오싹했다. 칼리는 그래서인지 대화에 한눈을 파는 척 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모두 기억하려고 하는 듯했다. 그가 그런다면, 나도 그들을 과하게 신뢰할 이유는 없다.

헤신 쪽에서 꽤 높아 보이는 사람이 우리를 마중나와 방명록에 기재한 뒤, 별도 접객실에서 최대 세 시간까지 머물게 해 주었다. 우리는 은성에서 헤신으로 기술 자문을 나왔다는 위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시간동안 사내에서 회의 및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헤신은 어떤 기업이 갈래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일에 협조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미지수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언제 죽는지도 모른채로 일해야 하는 것일까.

헤신에 다녀온 뒤 나머지 시간은 호텔에서 혼자 무력하게 보냈다. 칼리는 자기가 인천에서 나에게 못 보여줄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는지 둘이서만 있을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일단 같이 있을 때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표면적으로라도 친근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여기서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금요일에는 헤신 근처를 관광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우수리스크 쪽으로 올라갔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기념 시설, 공원, 마트 등 주변으로 몇 군데 둘러 다니다가, 미로노프의 집을 정찰하러 갔다. 물론 정찰이 본 목적이었다. 미하일은 이것을 ‘염탐질’이라고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운전수는 우리를 큰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내려주었고, 우리는 비포장 도로를 걷고 낮은 수풀을 헤집어 미로노프 집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집 주변 환경은 회사에서 미리 받았던 사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수풀이 좀 더 자라 있었다. 집 외관을 살펴보고 있는데, 펌프액션 산탄총을 든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쫄쫄거리며 나와서 벽에 기대고 담배를 피웠다. 저게 미로노프일 리는 없으니 경호원인 듯했다. 미하일은 핸드폰으로 그의 사진을 찍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AK 같이 생긴 걸 들고 나와서 산탄총을 든 남자 옆에 섰다. 둘은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경호원은 확실히 두 명 이상이었다. 우리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집은 복층 구조였고,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현관이었다. 현관문은 측면에 붙어있어서 좁았다.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다만 2층 침실 창문 아래 커다란 상자 모양의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창문은 밀어서 열고 닫는 구조인 것으로 보였다. 미하일은 집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모두 사진으로 남겼다.

토요일이었던 어제는 종일 칼리의 방에서만 있었던 같다. 나는 그와 이상하게 서먹해진 것이 신경 쓰여서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꽤 일찍 그의 방으로 갔지만 그는 “어, 왔어?” 하는 인사 이외에는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것 말고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직접 모은 정보와 WF에서 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 완료 후 퇴출 계획을 세웠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작전은 비전으로 다가왔고,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더 자주 들었지만, 계획이 세워지니 진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히려 안정이 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지난 며칠동안 미하일과 잡담을 하며 부쩍 친해졌다. 우리는 정말 공통점도 적고 유년기도 괴리가 큰 듯했지만, 미하일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편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내게 동유럽 정세, 한러관계, 술에 대한 잡지식 등을 알려주었다. 그는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 줄 뿐이었다.

마침내 칼리가 다시 나를 적극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일에 대해서는 어찌 되던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도 편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그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그는 별 어색한 내색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아침에 호텔 조기 체크아웃을 하며 컨시어지에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마지막 하루는 거기서 자겠다고 말해 두었다. 운전수는 호텔에 캠리가 아닌 은색 SUV를 몰고 왔다.

차가 광활한 바다 위를 달려나가자 블라디보스톡 반도의 땅이 떨어져 갔다. 운전수는 우리가 건너는 다리의 길이만 4km가 된다고 했다. 신기하지 않은 사실은 아니었으나 온갖 반응은 미하일이 다 해줘서 내가 입 델 곳은 별로 없었다.

안나가 확인차 계획을 재진술했다.

“So we come to pick you up later.. or, actually tomorrow, one forty. We arrive after about twenty minutes later. We wait for you there until four. You have about one hour and half, after that we cannot wait anymore.”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니 내일 1시 40분에 여러분을 픽업하러 올거예요. 20 분쯤 뒤에 도착할거고, 4시까지 근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가 주어졌네요. 그 뒤로는 우리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운전수가 한 마디 붙였다.

“Don't worry, you'll make it.” (걱정하지 마세요, 해낼 겁니다.)

나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 속으로 엄습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뒤늦게 미하일이 말했다.

“Uh, yeah, thank you.”

운전수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화제를 바꾸었다.

“So, how much do you know about Mironov?”

(혹시 미로노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는지요?)

칼리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는 대답했다.

“Only the basic personal details and his background.” (인적사항과 이력 정도만 전달받았습니다.)

“Anna mentioned she’d actually met him once.” (사실 안나가 그를 만나 본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미하일이 정말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것처럼 말했다.

“I’m a bit curious what kind of person he was.”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궁금한데요.)

목표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안나가 말했다.

“Well, as you saw in the photo, he’s quite young. When he worked for the security service, he seemed cheerful and, somewhat diligent. I heard he took part in the escalation attempt. He is not an important person, though—I’m not sure why they want him dead. Oh, maybe that’s not for me to question.” (사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젊은 편이고 보안국에서 일할 때

는 밝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확전 시도에 가담했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리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이걸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닌가요.)

나만 너무 말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대답했다.

“No, it’s fine. We’re just following orders too.”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지시만 받은 거라.)

칼리는 왜인지 나를 돌아보고 살짝 웃음을 비쳤다. 미하일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I heard he’d been suffering from depression for a few months before he disappeared. Maybe someone was threatening him... just a thought.” (건너 듣기로는 잠적하기 몇 달 전부터 우울증도 앓았다고 하던데요. 아마도 누구한테 협박받은 건 아닐지....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칼리가 말했다.

“That’s how it usually goes in this line of work.” (이쪽 업계에서는 다 그렇죠 뭐.)

미하일이 한 마디 붙였다.

“Yeah, we might as well be dead by tomorrow ourselves.” (네, 우리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운전수가 말했다.

“You shouldn’t trust us either. I might just pull out a pistol on you, hah.” (저희도 믿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우리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낼지도 모르죠, 하하.)

그러자 안나가 조용히 신경질을 내며 운전수를 나무라는 소리를 했다.

“Эй, не говори такое.” (야, 그런 말은 하지 마.)

우리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웃어줬다. 미하일이 말했다.

“Sad thing is, that might not even be a joke.”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슬프네요.)

—

“Aaaaand, we are finally here. Two hours for a hundred kilometers is quite slow though.” (마아아침내 도착했습니다. 100km에 두 시간이면 그리 빠르진 않네요.)

운전수가 수다도 떨고 운전도 해서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하일이 가장 먼저 인사했다.

“Yeah, but the ride was fun, thanks to you.” (네, 그치만 덕분에 차에서 지루하진 않았네요.)

칼리는 별다른 감정을 신지 않고 간단히 인사했다.

“Thank you very much, see you soon.” (감사합니다, 곧 뵈요.)

나도 간단히 인사하고 그들의 회답을 받은 후 빠른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다. 운전수의 은색 SUV는 좁은 국도를 따라 떠나갔고, 우리는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 집이 들판에 서있는 마을로 올라갔다.

주변은 우리나라 시골 어딘가에도 있을법한 모습이면서도 어딘가 이국적이었다. 허리 높이까지 오는 풀들이 수북이 자라고 있었고 흙은 콘크리트와 섞여서 밝은 황토색이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한 번 꺾이는 곳에서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좀 더 걸었다. 그러자 마침내 브리핑 사진에서 보았던, 작고 평범해 보이는 녹색 지붕 집이 나왔다. 칼리가 안가로 다가가 도어락을 확인하고는 잠긴 문에 대고 노크를 했다. 토마스, 루카스, 페터와 에밀리라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해서 작전 시 지원 계획 준비 등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칼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말했다.

“친구들, 혹시 모르니까 내 뒤로 숨어 있어.”

우리는 시키는대로 했다. 안에 사람들 신경이 얼마나 곤두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얼굴이 튀어나오면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문이 벌럭 열리고 금발의 남자가 상체를 내밀었다. 칼리가 인사했다. 그들은 구면인듯했다.

“Hey, Peter.” (안녕, 페터.)

아마 그의 코드는 “피터”가 아니라 꼭 “페터”라고 해야하는 모양이다. 생각해보니 내 것도 그렇다.

“Yeah Kali, right on time. Your call?” (어 칼리, 시간 맞춰 왔군. 콜사인은?)

“Konstantin? Six.” (콘스탄틴? 6.)

“For what?” (K는 무슨 뜻이지?)

“Kimchi, I really don't like this name.” (김치. 이런 이름 싫은데.)

“Indeed, come in.” (그래, 들어와.)

페터가 나와 미하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숙여주며 들어갔다. 안가 내부 벽은 생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칙칙했지만 일단 튼튼해보이긴 했다. 벽에는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림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강철로 된 금고가 있었다. 열쇠가 꼽혀 열려 있는 금고 속에 머리를 처박고 있던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인사했다.

“Nice to meet you again!” (다시 보니 좋네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 루카스다.

“Nice to meet you too, Lukas.”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루카스.)

나도 대답했다. 미하일도 그에게 인사했다. 칼리는 깊게 목례하는걸 보아 루카스와는 그리 친하지 않은 것 같았다. 루카스도 칼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 넓은 나무 탁자 앞에 앉아있던 다른 남자가 말했다.

“Hey look, the K-POP guys are here.” (이것봐, 케이팝 친구들이 왔어.)

그러자 페터가 그를 보고 씩 웃으며 말했다.

“Yeah, please shut up, Tom.” (그래, 좀 다물어, 톰.)

그러자 칼리가 말했다.

“Thanks for that.” (고맙네.)

세 명은 뭐가 재밌는지 같이 웃었다. 루카스와 미하일도 따라 웃었다. 반면에 나는 안전가옥에 들어온 순간부터 슬슬 두려움에 명치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Oh, right. I am Thomas, if you don't remember.” (아, 참. 기억이 안 난다면 난 토마스다.)

이 붉은 머리카락의 남자는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친하기도 하고, 미하일 정도 빼고는 다 나보다는 높은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편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나있는 작은 방에서 위장 소품을 제작하던 에밀을 불러서 우리와 인사시켰다. 젊은 에밀은 자기 직업과는 다르게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의 성격이 유해서 그런지, 그도 우리와 지위가 비슷해서 그런지, 에밀은 나와도 미하일과도 금방 친해졌다. 잠깐 웃고 떠들고 짐을 풀 뒤 토마스가 던져준 초코바도 먹은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먼저 에밀이 계획을 설명했다.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으나 미로노프는 정식 등록하지 않은 PM 권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의 부모가 소련 시절 영향력 있던 사람인 점도 있고 그가 전에 FSB에서 근무했던 점도 있으니 여지는 많다. 그래서 현장은 권총 자살로 위장할 것이다. 에밀은 권총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회사 측에서 PM 한 정을 미리 구해놓았다면서 권총을 포장된 탄약 상자와 함께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총알도 민수용

바르나올 94그레인 FMJ로 맞춰서 구해 놓았다고 우쭐해했다. 우리는 장난스럽게 야유했다.

다만 이걸로 미로노프를 사살한 후,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PM을 찾아서 그의 손에 쥐어놓아야 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총번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총을 쏜 후 총 안에 남는 화약 찌꺼기 같은 것들도 다 위장해야 하는 등의 자살한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그냥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하기로 했다. 미로노프도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 권총을 손 닿는 데에 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니 권총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소란이 빚어져 미로노프가 권총을 들고 저항한다면 이미 총은 그의 손에 있으니 더 좋은 일이었다.

경호원들이 총을 갖고 있으므로 진입 후 총격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로노프가 정신적 문제라던가 경호원 쪽과의 불화 등의 이유로 경호원들을 권총으로 기습한 뒤 자기도 자살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경호원들이 쏜 총알 자국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토의 끝에 내가 침실 창문 앞의 큰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지나 방심하고 있을 미로노프를 PM으로 먼저 쏘고,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토마스, 미하일과 칼리가 현관으로 쳐들어가 경호원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토마스는 침실 창문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 같았다고 했지만, 혹시 있다면 상황을 봐서 창문을 뚫고 쏘든지 내려와서 현관으로만 진입하던지 결정하자고 했다. 페터는 쓰레기통 옆에 서서 미로노프가 창 밖으로 도망치거나 외부 변수가 나타날 경우 적절히 대응할 것이었다. 에밀은 중간에 죽으

면 가장 중요한 현장 위장을 할 수 없으므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 밖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었다.

자정은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토마스는 각자 체스트 리그를 나눠주었고, 다들 자기가 챙겨온 것들을 리그에 넣기 시작했다. 나는 우선 캐리어에서 구급키트를 꺼내 엉덩이 부분에 달린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무기 받으면 탄창 넣을 곳, 잡다한 것 넣을 곳, PM 권총을 넣어둘 곳 외에 모든 주머니의 똑딱이 단추를 채웠다. 그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었다. 원래 입고 다니던 카고 캐주얼 바지를 벗고 암회색의 청바지를 입은 후 남색 바람막이를 걸쳤다. 미하일도 비슷하게 질겨 보이는 소재의 바지와 고어텍스 상의를 입었다. 이렇게 해야 나뭇가지 같은 것에 옷이 걸리지 않고 위에 체스트 리그를 입기도 편할 것이었다. 칼리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관광객 행세 하려고 입고 있던 긴 치마를 어두운 색의 청바지로 바꿔 입고 나왔다. 여기 남아 안나 쪽 PMC와 주변 CCTV로부터 정보를 얻고 우리를 지원할 루카스는 나갈 준비를 하는 대신 캐리어에서 원래 쓰던 것이 아닌 새로운 노트북과 헤드셋을 꺼냈다.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탄창에 조그만한 구릿빛 탄을 세 발 밀어넣고 탄창을 PM 권총에 꽂았다. 나는 차디 찬 권총을 체스트 리그 주머니에 넣었다. 어느새 묵직해진 리그를 탁자 위에 내려놓자 덜컹하는 소리가 팔로 전해졌다. 새삼스럽게. 난 또 다시 총을 품었다.

토마스가 벽 한가운데 걸린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나도 따라서 시계를 보았다. 야속한 바늘은 이제 한 시를 막 가리키고 있었다. 루카스는 노트북을 탁자에 펼쳐놓고 키보드를 열심히 두들겼다. 칼리는 바람을 좀 쐬고 오겠다

며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철문은 왜인지 무겁고 천천히 닫혔다. 이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는 에밀이 소품을 만들던 방으로 가서 구석 벽에 기댔다. 책상에는 에밀이 필사하다가 실패해서 옆으로 밀쳐놓은 위조 유서와 BIC 볼펜, 각종 공구들이 있었다. 그 어지러운 책상을 멍하니 쳐다보며 천천히 바닥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미하일이 방안으로 들어오며 말을 걸었다.

“파울 씨. 갑자기 이름으로 안 부르니까 이상하네요. 하하.”

내 고뇌에 침입한 그가 반가웠을까. 나는 웃어주며 말했다.

“그러게요. 오늘 새벽에는 시후니 승현이니 필요 없네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고. 그냥 그런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재수 없는 건 다 저만 당하더라구요. 운동장에서 다같이 축구했는데 나만 무릎 까지고. 같이 담 넘었는데 나만 혼나고. 아, 그래서 오늘도 웬지 저는 죽고 말 것 같아서요.”

나는 위로를 받고 싶은 입장이었지만 막상 항상 웃던 미하일이 이 많은 사람들 중 나에게 속을 털어놓으니 그에게 조금의 연민을 느꼈다.

“저도 죽을 뻔하고 살아난 적이 있었고 미하일 씨도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 발버둥쳤으니까 여기서 다음에 올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요.”

“그치만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나는 뭐라고 하면 그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잠시 생각했다. 쉽지 않은 문제였다. 죽을 수 있다는 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미로노프라는 인간을 죽이러 온거지 우리가 죽으러 온게 아니잖아요. 죽을 생각을 자꾸 하지 말아요. 나도 못 지킬 말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 나는 죽지 않고 개들만 죽일지. 치밀하고 깨끗하게, 충을 최대한 덜 쓰고. 뭐 이런 생각이나 해보죠.”

“그게 죽는 거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덜어준다면요.”

“아무래도 좀 낫네요. 아, 근데 저 화장실 좀.”

“아, 네.”

그는 방을 나서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가면서도 할 말은 했다.

“조금은 도움이 된 거 같아요. 빈말이 아니라. 감사해요!”

화장실 문이 쿵 닫혔다. 미하일은 긴장하면 설사가 나오나. 과민성 대장염인가 뭔가 하는 게 있었던 것 같다. 나도 방에서 나왔다. 페터가 물었다.

“What did he just say?” (방금 재가 뭐라고 한거야?)

답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내 기분도 왠지 좀 빠들었다. 나는 아무렇게나 말했다.

“Uhm, nothing, sir.”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Alright, take care.” (그래, 좀 식이고.)

페터는 내가 작전 직전이라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미하일과 한 말들이 한 단어 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도 죽기 싫은 건 매한가지인데. 나는 방금 미하일에게 가식을 떨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을 가장해 위선적으로 아무 말이나 떠들어댄 것이다. 내 두려움에 대한

답으로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나는 이따위 소리를 지껄이는 인간의 면상이 얼마나 역겨워 보일까. 나는 내 약해빠진 마음에 잠시라도 장갑을 둘러줄 생각이 필요했다. 그런 위로, 그리고 그런 걸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나도 모르게 현관문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부터 칼리에게 기대고만 싶게 된 걸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경험이 많은 그에게로 가는 것이 합당할거라고 애써 생각하며 문을 나섰다.

“Sir, I may have to talk to Kali for a bit.” (저, 칼리 씨랑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해명을 남기며 무거운 문을 닫았다.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페터에게인지, 흘려보고 마는 토마스에게인지, 노트북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루카스에게인지, 아니면 자신에게인지. 등 뒤로 문이 또 한 번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혔다. 갑자기 나는 실내의 전등불과는 단절되어, 어둡고 추운 밤공기 한 가운데 놓였다. 칼리가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에선가 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었다. 안가 뒤편으로 힘없이 발을 내딛었다. 별이 밝았다. 나는 별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군청색 밤하늘 아래, 밤하늘보다도 어두운 칼리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작은 언덕 위에 쪼그려 앉아 별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걸어갔다. 잔디가 부드럽게 밟혔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칼리는 계속 별을 보면서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 생각보다 늦네.”

“저를요?”

“응. 다 못한 얘기를 해야지. 너한테 뭐라고 하려고만 하면 누가 자꾸 나타나서 방해하더라.”

하긴, 그건 맞다. 그게 미하일인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의 옆에 조금 떨어져 앉으며 말했다.

“아하, 네....”

“아직도 못 받아들인거지?”

“네, 죽음을요.”

그는 살며시 웃었다.

“그래.”

칼리는 밤공기를 크게 한 숨 마시고 뱉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네?”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건 아주 힘든거야. 근데 있지, 넌 오늘 안 죽을거야.”

나는 아까 미하일에게 아무 말이나 해대던 내 꼴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그를 비꼬았다.

“칼리 씨가 절 죽게 놔두진 않으실테니까요?”

“뭐어, 그런 것도 있고. 그거보다는 네가 널 죽게 놔두지 않을테니까.”

“....”

“새틴 6 있지. 너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음, 뭐랄까. 멘탈도 강했어. 근데 갠 죽고 넌 살았잖아. 넌 어떻게든 살아낼 능력이 있어. 그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나는 미하일의 말을 빌리기로 했다. 이제는 오늘 내가 죽을 거라는 걸 내가 증명해내려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그치만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란 보장은 없지 않나요.”

나는 언하에 내 미련함을 책했다.

“네가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뻔 한 건, 미하일이 아프리카 다니면서 죽을 뻔한 것과는..., 미하일한테 미안하지만 수준이 달라. 개들은 다 어디 스페츠 나츠 출신이었거든.”

“....”

“그게 운이었든, 네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든,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았어.... 파울 씨는 정신만 차리구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 아, 그리고 나도 있잖아! 히히.”

나는 분위기에서인지 억눌러오던 두려움에서인지 칼리에게 내 속을 털어놓아 버렸다.

“꿈을 꿴습니다. 비슷한 걸 여러 번이요.”

그는 힘을 풀어 얹어진 눈으로 내 얼굴을 지그시 올려다보았다.

“죽은 동료들이 저를 원망하고, 그 러시아 놈들이 쫓아와요. 저는 계단 아래로 도망가요. 그때 칼리 씨가 제 앞에 있어요. 칼리 씨인지, 러시아 놈인지 모를 사람이 권총으로 저를-”

내 얼굴에 거친 코트 자락이 스쳤다. 길게 내려온 그의 옆머리가 목덜미를 간질이고 지나갔다. 칼리의 품은 건조하고 왜소했지만 그 어디보다도 아늑했다. 나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내 귀에 낮게 속삭였다.

“잠깐만 이렇게 있어....”

나는 큰 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잠시동안 각박한 현실은 그의 옷자락 뒤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찬 밤바람이 언덕을 쓸고 지나갔다. 칼리가 나를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행동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았다.

멀리서부터 흙과 자갈이 타이어에 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칼리는 고개를 들어 내 등 너머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어깨에 돌렸던 팔을 천천히 풀었다. 멍하던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나가 오나 보네. 우리도 가 봐야지....”

우리는 언덕을 걸어 내려왔다. 그는 내 손을 슬며시 잡아 가져가며 말했다.

“잘 할거야.”

운전수가 물고 왔을 차의 어두운 헤드라이트가 안가를 비추었다. 우리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